

대상

장훈고등학교

나민웅

잃어버린 시간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 일궈낸 결과물이 단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경험이 있는가? 나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과학 독후감 대회가 열렸다.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으로 상을 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며칠간 책도 열심히 읽고 독후감도 몇 번을 심사숙고 하며 수정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독후감을 완성했다. 열심히 한 만큼 기대도 컸다. 그리고 다음날 결과물을 제출하려고 했을 때였다. 한 친구가 자기가 독후감을 못 썼다며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것 같으니, 내 독후감을 조금만 참고해도 되냐고 나에게 물었다. 평소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내 것을 빌려 줬다. 하지만 그 친구는 내 것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독후감을 썼고, 심지어는 내 독후감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 것을 마구 빌려줬다. 그 결과, 한 반에 거의 비슷한 작품이 7 개씩이나 존재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몇 명의 독후감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7명 모두가 인터넷에서 작품을 베꼈다고 오해하셨고, 난 상을 못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한동안 선생님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다. 친구들이 난처해 질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며칠 동안을 끙끙거리며 고민했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저작권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어 피해를 입은 게임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때 있었던 일이 불현듯이 떠오르면서 적어져 있지 않은 창작자들의 심정까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공감이 갔다.

나는 고작 며칠을 노력해서 써낸 독후감이었지만 음악, 게임, 영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노력은 인정받고 보상받기는커녕, 점점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상의 수십, 수백 개의 p2p 사이트와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무단 배포되고 있는 음악과 영화 파일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아무런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는 스마트폰 게임 파일들, 인터넷 상에서 판매까지 되고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까지. 정말 많은 경로들을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실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만으로 창작

자들의 노력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물론 법률도 중요하다. 우리를 감시하고 제재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터가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우리의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한 생각은 ‘나 하나쯤은 어겨도 괜찮은 것’ 또는 ‘위반해도 누군가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일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 받을 때도, 스마트폰 게임 파일을 구하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돌아다닐 때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신문 기사를 읽고 내 경험을 떠올렸을 때, 깨달았다. 나도 그때 내 독후감을 빌려갔던 친구들처럼 그 사람들의 노력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미워했던, 나쁘다고 원망했던 그 친구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남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정말 많이 하였다. 지금 저작권을 아무런 죄책감과 생각 없이 침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이러한 사실을 느끼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전했던 일 하나쯤은 존재할 것이다. 그때 자신이 투자했던 시간, 열정 그리고 꾸었던 꿈을 다시 떠올려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그 꿈, 시간, 열정을 도둑질 해왔다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도 다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무시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잠깐이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지금의 나’가 잘못 났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여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많은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들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투자해온 시간. 그동안 우리가 저질러온 실수들이 그 시간의 가치를 잃게 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시간을 찾아줘야 할 때이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반성하며 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사회라는 자물쇠를 하루라도 빨리 열 수 있으면 하고 소망해본다. 그리고 그 자물쇠의 열쇠는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 침해 무찌르는 꿈나무

“야!, 왜 내 그림 베껴?”

“내가 뭘 했다고! 이거 내가 직접 그린건데!”

“이 나무랑 집도 완전 똑같네. 남의 저작권, 침해 하지 마라~~”

요즈음 우리 반에는 ‘저작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한 달 가량 컴퓨터 수업시간에 저작권에 관한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트를 잘 정리해서 ‘저작권교실 우수교육이수자’라는 교육이수증도 받았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신문이나 뉴스에 저작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나하고 먼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작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웠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조금 헛갈리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꼬박 꼬박 여쭙어 보거나 수업시간에 배운 저작권 책을 훑어서 찾아보기도 한다. 그 덕분에 인지 지금은 저작권 수업만 들었을 때 보다는 이해가 더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얼뚱 브라더스 딱 걸렸어!>라는 책 덕분이다. 평소에 나는 ‘e-독서친구’를 한다. 2주에 한 번씩 엄마와 함께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 10권씩 빌려 온다. 이번에 빌린 책 중에 우연히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동화’라고 써 있는 <얼뚱 브라더스 딱 걸렸어!>를 만나게 되었다. 이런 책도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읽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작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copyright ©’의 정체를 알게 되어 기뻐다. 왜냐하면 내가 즐겨보는 ‘명탐정 코난’에도 끝날 때마다 ‘©’ 표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사실 나는 공짜를 무척 좋아한다. 마트에 가면 시식은 빼놓지 않고 다 먹는다. 또 물건을 사면 따라 나오는 ‘원 플러스(1+)’도 좋아하고 세일도 좋아한다.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주는 공짜 선물도 아주 좋아한다.

이런 내가 저작권 수업을 받지 않았다면 노래나 영화를 불법인지 모르고 공짜라며 좋아라하고 다운로드 받았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아직은 내가 노래나 영화 같은 것을 하나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작권’ 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내가 저작권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나는 이유는 바로 다빈치의 비밀노트 때문이다. 다빈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노트에 적은 아이디어를 빼앗아 갈까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여 비밀노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트에 글씨를

쓸 때 거울에 대고 거울에 비친 글씨로 필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글을 자신만의 암호로 바꾸어 필기 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빈치를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다빈치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작품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다빈치야말로 처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이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 반 친구들만 보더라도 다 한 번쯤은 다른 친구들한테 “내 것을 베끼기지 마” 라고 말해 본적이 있을 거고, 그림이나 글을 쓸 때 남들이 못 보게 가리기도 했을 거다.

사실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다. 제목은 ‘야미군’이다. 내용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8컷짜리 만화지만, 벌써 14화까지 만들었다. 나는 이 만화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곤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내 만화를 본떠 만든 캐릭터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또 어떤 친구는 “나도 만화 그렸다” 라고 해서 봤더니 캐릭터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내가 내 만화를 내 것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빠진다.

나도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나빠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이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가 상을 받는다거나, 자신이 지은 노래를 노력의 댓가 없이 누군가가 인터넷에 불법유포해 버린다거나,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베껴서 어딘가에 제출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저작권 침해에 관련한 일로 속상해 하는 일이 없도록,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사라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포항제철동초등학교
4학년 1반 남예령

유료 앱이 '공짜'라구요?

최근에 우리학교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학내 토론대회가 열렸다. ‘인터넷 음원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제였다. 토론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찬성 팀과 반대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나는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저작권’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메모도 해보았고, 토론이 끝난 뒤엔 나름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다. 이 가운데 내가 주목한 것은 바로 ‘유료 앱’이다.

애플리케이션(응용소프트웨어)은 인터넷 상에서 추가로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게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때 저작권이 있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토렌트’를 이용하고, P2P사이트와 여러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에서 영상을 무료로 보아왔다. 또 음악파일을 받기 위해 구글 등 사이트에서 ‘mp3’를 검색어로 넣어 찾기도 했다. 이런 나의 행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았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 침해다. 이미 법에도 처벌까지 규정돼 시행중이다. 만약 네티즌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된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작은 음악파일 하나 얻으려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을 불법 다운로드 용도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의 긍정적 의미를 더럽힌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터넷 특성상 이런 악용은 쉽게 확산되는 점도 문제다. 세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의 저작권자의 수익을 떨어뜨려 결국 창작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누가 창작활동에 힘을 쏟겠는가.

그런데 불법 다운로드, 보다 엄밀히 말하면 유료 앱에 대한 ‘무료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난 토론대회에서 ‘음원의 무료 다운로드’에 찬성하는 팀이 내세운 논리와 비슷한데, 역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우선, 무료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될수록 많이 알려지고 그래야 음원도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다운로드를 심하게 제한하면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의 자유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시각이었다.

얼핏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논리엔 허점이 있다. 먼저, 무료

배포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저작권자가 할 소리지, 무료 이용자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또 불법다운로드 제한이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 왜냐면 불법 다운로드를 방치할 경우 저작권자의 창작의욕이 떨어지고, 이는 인터넷 상의 콘텐츠가 줄어 오히려 네티즌 활동범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네티즌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건 다운로드 제한이 아니라 불법다운로드 방치 때문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와 함께 불법다운로드가 마치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에 대해서도 나는 반대다. 저작물의 권리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컴퓨터 외에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있다. 특히 나와 같은 청소년층은 컴퓨터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접한다. 물론 여기서도 게임, 영화, 음악 등을 앱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하는 사람이 많다.

스마트폰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다. 친구들 얘길 모아 보면 한마디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돈 주고 사기엔 아깝다는 것이다. 물론 아까울 수 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저작권자가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만약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큰 변화로는 불법 다운로드라는 일종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좀더 깨끗하게 돌아갈 것이다. 또 저작권자는 자기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더 다양하고 좋은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인터넷 공간은 더욱더 즐거워질 것이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껏 모르는 척해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어린왕자》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양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다.

소리도서관과 저작권법

저작권법을 위배한 사람들의 사례들만 쏟아지며, 사람들은 보통 저작권법이 아주 강경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실은 저작권법만큼 관대하고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도 드물다. 나는 봉사활동에서 저작권법의 아름다움을 처음 보았다.

떨리는 마음에도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나는 한 자 한 자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수업에서 지적받았던 고쳐야 할 점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잘 읽는 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숨소리도, 책장을 넘기는 소리도 모두 조심해야 했다. 베란다 창을 두드리는 바람소리까지 최대한 줄여야 했기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눈으로 읽는 것과 다르게 입은 천천히 글자들을 읽어 나갔다. 그렇게 몇 십 분 동안 긴장상태에서 책을 읽자 단편 한 편이 만들어졌다. 나는 소리도서관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 간 봉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는 우리나라 소리도서관의 현실을 들었었다. 시각 장애인들은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 알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눈으로 책을 읽을 수는 없기에, 그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디오 북이 필요하다. 그런 오디오북이 있는 도서관을 소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리도서관의 장서 수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그마저도 옛날 책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접하는 베스트셀러들이나 최신 소설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 소리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읽는 연습을 거쳤다. 읽고 읽으며 서로 충고해주고 여러 번 녹음해보자 처음에는 어눌하고, 생략되었던 조사들과 낱말들이 점점 적어졌다. 드디어 책을 읽을 준비를 끝마치고 이제 녹음을 하려는데,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저작권법이였다. 저작권법을 위배한 사람들의 사례와 저작권법의 중요성이 한참 대두되고 있던 시기였다. 모두들 조심하며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이런 예외가 있었다.

저작권법 제 33조의 2, 이는 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면 저작물에 포함된 것을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중수신할 수 있다고 써 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작권법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다. 강남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책임을 맡고, 그렇게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소리 도서관 만들기에 착수했다.

오디오 북을 만드는 사람들, 비공개 카페인 이 카페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녹음 파일

이 올라온다. 아직 많은 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봉사자들이 꾸준한 녹음으로 책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맹아학교에는 책 샘플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배움에의 의지는 생각보다 대단했다. 샘플들은 올린지 하루 만에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고 있었다.

소리 도서관은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꿈을 펼쳐줄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피어날 생각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감사해진다. 그런데 그 소리 도서관을 있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법이었다. 가장 필요한 곳에는 흔쾌히 예외를 허락해준 저작권법에 우리는 깊이 감사했다. 저작권법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나를 도둑으로 만든 빵점, 그리고 끝나지 않은 나의 이야기

2년 전 일이다. 영어 학원에서 에세이를 쓰는 숙제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과학과 관련된 연구 자료를 찾았고, 외국 사이트 까지 들어가면서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한 후 완성 된 숙제를 제출하고 뿌듯한 기분으로 평가를 기다렸다. 1주일 뒤 수업이 끝나기 직전 선생님은 학생들이 낸 과제물을 돌려주셨다.

“자, 여러분이 1주일 전에 쓴 글에 대한 첨삭 지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꽤나 다양한 자료를 찾았으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차서 바로 점수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0점’ 나의 글은 평가를 할 가치도 없다는 무서운 글이 빨간 글씨로 토렷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친구들이 점수를 볼까 봐 리포트를 구깃구깃 접어서 뭉치고는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시무룩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25점 만점에 10점도 아니고 0점이니 많이 속상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빵점이 나온 이유를 알기 위해 구겨진 리포트를 다시 펴고 조용히 선생님의 평가 란을 읽어나갔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용한 것인지 정확히 표기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자료 출처를 밝히고, 나머지는 내가 쓴 글과 인용한 사이트에서 베낀 글을 구분 없이 섞어가며 모두 내가 쓴 글인 것 마냥 표현한 것이 잘못이었다. 선생님의 평가 끝부분에는 ‘표절은 범죄’라는 무시무시한 글도 적혀 있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약이 되었고, 비로소 저작권과 표절이란 단어에 눈을 뜨게 되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만 출처를 밝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 인용한 부분은 모두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일부만 출처를 밝힌다면, 나머지는 내가 쓴 글이 되므로 결국 표절을 한 것이다.

최근에 특이한 춤과 노래를 발표한 걸 그룹이 일본의 가수들을 표절했다는 인터넷 기사로 시끄러웠다. 그동안 표절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거라고 예상된다. 2년 전에 그 선생님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저작권과 표절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숙제를 할 때 늘 그랬듯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널려 있는 여러 정보들을 복사하고 편집해서 자랑스럽게 제출했을 것이다.

내 꿈은 외교관이 되어서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와주고,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점점 실력을 쌓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관이 되어 외교부 장관이 되고 싶다. 장관이 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장관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때 만일 내가 논문을 썼는데 표절을 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장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장관이 되더라도 도중에 장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제로 장관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이렇듯 표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평소에 수업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를 할 때에도 출처를 밝히는 연습을 하여 실수로라도 다시는 표절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지식이나, 생각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드는 도둑이 되면 안 되니까…….

표절뿐만이 아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많다. 평소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도 공짜로 음악을 다운 받고,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를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한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공짜로 동영상을 보려고 할 때,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막았다는 공지 글을 본 적이 있다. 아직도 많은 누리사랑방에서는 음악을 무료로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센터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공짜로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 비디오를 못 받거나 신곡을 못 들을 때는 괜히 신경질을 내기도 한다. 저작권자들이 열심히 만든 작품을 공짜로 베끼고, 듣고, 보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게 만든 작품이 인터넷 등에서 공짜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많이 억울할 것이다. 어쩌면 저작권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일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지리라 믿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실천할 예정이다.

먼저, 음악을 듣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무료 음악 공유 사이트 등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고는 하였지만, 이제 나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유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해 놓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가 남의 창작물을 무료로 누리사랑방에 올려놓는다면, 댓글을 통해 삭제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끔은 저작권보호센터에 신고도 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내 저작권도 보호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항상 출처를 제대로 밝힐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주로 자료를 조사하는 숙제를 많이 내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누리 사랑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그대로 베끼고는 한다. 앞으로는 퍼 갈 때 댓글을 반드시 남기고, 출처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어 숙제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독후감 쓰기 숙

제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자신이 쓴 글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친구들에게 신신당부했다.

현재 학교 방송부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끔씩 좋은 기사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보았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인용한 기억이 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꼭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인용법을 사용해서 표절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다. 더불어 우리 학교 ‘저작권 보호 문화 전도사’로 활동 할 예정이다.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 사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출처를 밝히는 올바른 방법도 알려주며,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유료 음악 사이트도 알려줄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되어 버리는 저작권과 표절의 범죄에서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나의 활동은 멈추지 않으리라.

새롭게 움트는 우리들의 저작권 의식

새움중학교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이 기다리던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동아리들은 일찍부터 모여 축제 준비를 했다. 올해는 매년 하던 체육대회 대신에 학교축제를 하게 되자 학생들의 기대감은 컸다.

만화동아리는 다른 동아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축제 준비에 나섰다. 부원들은 모두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만화캐릭터를 사용한 팬시상품을 만들어 파는 건 어때? 열쇠고리나 스티커 같은 것은 만들기도 쉽고 예쁘잖아."

"오, 그거 좋다. 그럼 수빈이랑 나는 만들 수 있는 상품 알아볼 테니까, 나머지 애들은 캐릭터를 선정해줘."

부장인 은희가 낸 아이디어로 결정이 되면서 부원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 맡은 일을 시작했다. 은희는 친구들과 인터넷을 검색해보며 쓸 만한 캐릭터를 찾아보았다.

"은희야, 이거 예쁘다. 쿠키 캐릭터네 귀엽고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

"오, 처음 보는 캐릭터네. 이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디자인했나봐. 헬로키티 같이 유명한 캐릭터는 너무 흔하니까 이 캐릭터로 하자. 다들 괜찮지?"

"응! 수빈이랑 상의해봤는데, 열쇠고리랑 노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은희는 집에서도 상품 제작 준비로 바빴다. 견본을 만들어보기 위해 캐릭터 이미지를 복사하려는 순간, 은희의 손이 멈췄다.

'잠깐, 이 캐릭터는 이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디자인한 건데... 막 복사해서 써도 되나? 썼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분도 정말 화나실거야.'"

다음날, 만화동아리 부원들은 동아리실에 모였다. 은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애들아, 제작은 이 캐릭터 제작자한테 허락부터 받고 난 뒤에 해야 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엄연한 저작물인데 우리가 함부로 복사해서 쓰면 안되겠더라구."

"그래도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떡해? 학교축제 때문에 잠깐 썼다고 무슨 문제야 생기겠어? 그냥 복사해서 출력하자."

"아니, 난 은희 생각에 찬성이야. 은희 말을 듣고 보니 나는 캐릭터에만 신경 쓰고 있었지, 캐릭터의 저작권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누가 네 지우개를 너도 모르게 슬쩍 가져가서 썼다고 생각해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화가 나겠지? 그런데 상대방은 이렇게 사소한 것이 무슨 도둑질이나면서 박박 우기는 거야. 지우개 한 번 쓴다고 얼마나 닳겠냐며 도리어 성을 내는 거지. 그럼 네 기분이 어떨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뽀뽀하다."

"그치? 지금 우리가 그 캐릭터를 몰래 복사해서 쓰면 우리가 그렇게 양심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해명한대도 저작자 귀에는 뽀뽀한 변명으로 들리겠지."

"수빈이 말이 맞아. 우리 그 분한테 허락 받고 쓰자. 허락 안 해주시면 다른 캐릭터 찾아보면 되지 뭐."

"좋아!"

만화동아리는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다. 며칠 뒤 블로그 운영자는 캐릭터 사용을 선뜻 허락해주었다. 이미지를 마구 복사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심적으로 부탁해주었다며 고맙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만화동아리는 팬시상품 만들기에 더 열중했다.

한 달 후, 새움중학교의 축제날이 되었다. 학생들은 각자 동아리에 모여 판매나 전시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축제가 시작되자, 전교가 학생들과 방문자들로 바글바글했다. 귀엽고 참신한 캐릭터가 달린 열쇠고리와 노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학교가 어딘지 몰았던 캐릭터 저작자는 직접 학교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잘 활용해 예쁜 상품을 만들었다면서 매우 좋아했다.

은희에게 이번 축제 준비는 매우 큰 의미였다. 자신과 친구들이 준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뻛고,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지켰다는 것에 뿌듯했다. 동아리 친구들 모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표절' 선생님이 필요하다

중학교 시절, 나름대로 바른생활 아이였던 내가 딱 한 번 수행평가 0점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학교에 새로 오신 원어민 선생님께서 내주신 보고서 숙제였는데, 당시 나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단어 몇 개만 바꾸어 제출했고 0점이라는 점수와 함께 벌점을 받았다. 처음으로 받아본 0점은 내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선생님은 이후 아이들에게 '표절(표절 벌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표절을 쉽게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매 수업 시간마다 꾸짖음을 늘어놓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에게 보라고 올려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표절(plagiarism)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0점과 벌점은 무서워서, 우리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베끼면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숙제를 몇 시간에 걸쳐 끙끙대며 해야 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표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등학교에서 첫 과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적이 나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몇몇 학생들이 인터넷에 있는 독후감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해 교무실에 붙여졌기 때문이었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표절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2년 간 표절의 독재 하에서 떨며 '숙제는 절대 베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으레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베껴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점수 배점이 크지 않은 수행평가는 인터넷에서 베껴가도 그리 신경 쓰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표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표절이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의 '지식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할 숙제를 대신해 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유명 책의 제목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oo책 독후감'이 뜬다. 대학생마저 리포트를 쓸 때 인터넷의 자료를 베끼니 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표절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각종 분야의 유명 인사들의 논문 표절 사건이나 음반업계에서 일어나는 표절을 고발하는 기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결국,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표절을 경시하는 풍조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 문화권 사람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어릴 때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표절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표절을 했을 경우 그 처벌의 강도 또한 매우 강하다. 학교에서 표절을 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 퇴학 처분되며 사회에서의 표절은 곧 주변인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 풍토가 이러하다 보니 표절은 곧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나의 중학교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숙제를 베껴가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표절을 가볍게 여기게 된 이유는 급격하게 진행된 빠른 산업화와 정보화에 있다. 6,70년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카피캣(copy cat)이 되어 다른 나라의 좋은 상품을 베껴 대량생산한 후 싼 값에 수출하였다. 마치 지금의 중국이 싼 값에 각종 '짝퉁'을 유통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당시 우리 나라는 경제 발전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개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남의 것을 표절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 밖에 있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렇게 산업화 시대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무서운 경제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IT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턱없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와 함께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는 표절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큰 시장성을 지닌 음원 혹은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는 차차 큰 문제로 부상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가치가 적은 표절에 대한 문제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 속에서 그리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굿다운로드' 캠페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법 다운로드 방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표절에 대한 활동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표절은 생각보다 악질이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숙제를 베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서도 표절을 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표절을 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며,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이윤 창출을 하거나 학위를 받는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이다. 또한 글로벌 사회인 지금, 우리 사회와는 달리 표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국제사회에서의 표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신뢰가 걸린 일이 된다. 실제로 2005년에는 동물 복제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황우석 박사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 밝혀져 국제 사회의 맹비난을 받는 적이 있었다. 표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황우석 박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문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표절에 대한 인식 문제는 우리가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표절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률을 제정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표절 관련 법률을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는 점, 단 한 명의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나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표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게 되었다는 점을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표절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표절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표절 선생님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삼촌, 힘내세요

작년 일이다. 삼촌은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옆에 끼고 있던 두꺼운 책들을 모조리 인터넷에 내놓아 팔아버리셨다. 그러고는 큰 사진기와 장비들을 사서 방에 앉아 만지작거리시고 틈틈이 나와 내 동생을 찍어 주기도 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삼촌이 공부를 그만 두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요. 만날 책에만 묻혀 계시더니…….”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가 대답하셨다.

“돈 벌면 결혼도 곧 하겠지, 뭐.”

할머니는 삼촌이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곧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다. 삼촌은 우리 가족이 쉬는 날에 혼자 바빠지셨다. 할머니께 빌린 돈으로 작은 차를 사서 토요일 아침이면 집을 나가셨다.

“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응, 음식점이나 잔칫집에 가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는단다.”

“그럼 돈을 많이 버세요?”

“글쎄, 바쁘게 다니는 걸 보면 좀 벌긴 벌겠지.”

아빠가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삼촌은 예전과 달리 자주 웃으셨다.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야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은 집에 오시면 컴퓨터로 찍어 오신 사진과 동영상을 한 데 합치는 일을 하셨다. 삼촌은 내가 옆에서 구경하도록 해 주셨는데 다 만든 작품은 음악과 함께 들으면 더 멋져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과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가게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장사하는데 그건 괜찮은 건가요?”

삼촌은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니지. 상점에서 노래를 틀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노래를 틀어놓는 거야. 그렇지 않은 가게도 있겠지만 그건 불법이야.”

내가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를 합해 보면 이렇다. 삼촌이 자기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삼촌 누리집에 동영상 여러 편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문제였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넣어 편집하셨는데 그만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삼촌은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셔야 한다면서 슬퍼하셨다. 지금까지 번 돈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삼촌이 정말 불쌍해 보였다.

처음에는 삼촌이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들어주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 아닐까요? 노래가 유명해지면 만든 사람들도 유명해질 테니까요.”

아빠에게 내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다.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렴.”

내가 작곡자나 가수가 되었다는 생각해 보았다. 내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자기 것인 양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그 노래를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 않고 공짜로 구해서 듣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 안타깝고 슬펐다. 빵장수는 빵을 팔 때마다 돈을 벌게 되고, 책을 쓴 사람들은 책이 팔릴 때 돈을 벌게 되듯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자기 노래를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삼촌의 일을 통해 동영상에 노래를 넣는 일도 많은 분들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노래를 작곡한 분, 가사를 만든 분,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돕는 많은 분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것이다. 허락 없이 그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삼촌은 그 일이 있는 후 허락 받지 않은 음악을 올리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열심히 일하셔서 손님들도 많아지셨다고 한다. 삼촌은 오히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겪었던 일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다행스런 일이다.

삼촌의 나쁜 경험이 내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이란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소중한 것이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영화를 만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힘을 내어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실 것일 테니까. 삼촌을 마음속으로 응원해 드렸다.

‘삼촌, 앞으로도 힘내세요.’

저작권, 아름다운 약속

“학교 다녀왔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생님께서 내준 독후감 숙제를 끌러고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 ‘플란더스의 개 줄거리’라고 치니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독후감 공책에 옮겨 썼다. 옮겨 쓰니 독후감 숙제는 빨리 끝났다. 숙제를 다 끝내고 난후, 블로그를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던 작은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정성껏 쓴 독후감을 허락받지도 않고 베껴써 놓고 블로그를 꾸미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난 독후감 쓰기는 정말 싫단 말이야! 그리고 귀찮다고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오는 독후감을 무엇하러 한두 시간 고민하면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런 착한 짓은 언니나 해!”

“역지사지도 모르니? 그리고 너 저작권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저작권?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무시하지 마!”

“그럼 저작권이 뭔데? 한번 말해봐.”

“저작권이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 배웠거든 언니는 내가 그 정도도 모르는 줄 알았어!”

“저작권 뜻도 알면서 왜 남이 힘들게 쓴 독후감을 베끼는 거야?”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줘.”

작은언니는 화가 난 듯이 문을 뿡 닫고 방을 나갔다. 작은언니가 나간 뒤 인터넷으로 ‘역지사지’라고 쳐 보았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역지사지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봄’이라고 나왔다. 그때는 역지사지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

이튿날 독후감 검사가 끝났는지, 선생님이 나를 불러

“네 숙제를 보니 인터넷에 있던 독후감이랑 정말 똑같더라. 혹시 독후감을 베꼈니?”

“선생님, 저는 독후감을 베낀 게 아니고 참고해서 쓴 건데요.”

나는 점점 말이 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어제 작은언니의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도 해 보았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듯이 그저께 내가 했던 말과 행동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내가 했던 일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시고 주의를 주고 제대로 독후감을 써 오라고 하셨다. 선생님 말씀 이전부터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작은언니에게 학교에서 있는 일을 말해주고 나를 염려해 줬는데도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작은언니는 그것보라며 씩 웃으며 사과를 받아 주었다.

인터넷에는 좋은 분들이 있어 함께 나누는 보물도 있지만 그 보물에도 항상 조건이 붙어있다. 저작권 교실에서 배운 '저작권 공정이용제도'가 그것이다. 그런 내용을 알아두고 또 만든 분에게 허락을 필요로 하는 보물들이 있다는 것도 되새겨두어야 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켜줘야 할 약속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귀찮음을 핑계로 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냥 그런가보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깨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우리반 친구들 사이에는 블로그를 꾸미는 일이 유행이 되어있다. 나는 블로그를 꾸밀 때 참고하려고 나를 방문한 다른 이웃 블로그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내 블로그에 있던 사진이나 웃긴 이야기 등이 다른 사람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다. 내 친구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하던 일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퍼갔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댓글로 물어보았다.

“저기요. 근데 이사진 제 블로그에도 있거든요. 이 사진 참 재미있죠?”

라고 댓글을 올렸다.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것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물어보았다.

이튿날 다시 그 블로그에 들어와 보니 또 내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나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 순간 얼마 전 독후감 사건이 떠올랐다.

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나 이야기 등을 베낀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힘들게 쓴 독후감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내가 편한 것만 따라가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언니가 말한 '역지사지'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

맨날 작은언니가 말하는 말. 역지사지, 독후감 사건 때도 작은언니가 말한 역지사지.

그때는 역지사지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지만 오늘에서야 역지사지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남이 내 글을 보든 안보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베끼지 않는 자랑스러운 내가 될 것이다. 물론, 저작권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이 배워서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계속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사진이나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베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무도 공들여서 그림이나 사진 등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전 세계인들도 저작권을 소중한 약속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당한 대가 지불, “굿다운 로더”가 되어요

나는 1년 전부터 코난을 즐겨보기 시작했다. 코난은 사건을 해결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는 만화이다. “언제나 진실은 하나!”라고 외치는 귀여운 코난을 보기 위해 케이블 방송을 자주 보았는데 케이블 TV에서는 극장판이 공짜가 아니었다. 나는 돈이 없었고 결국 엄마에게 부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나의 부탁에 엄마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볼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검색에 들어갔다. 코난의 극장판을 검색창에서 쳐보니, 드르르륵 영화가 나왔다. 시리즈를 차례로 검색한 뒤 1회부터 여기 저기 블로그에 “극장판 1기 보기”, “명탐정 극장판 다시보기” 등이 나왔다. 그런데 유독 “명탐정 코난 극장판 다시 보기”라는 블로그가 눈에 띄었다.

딸깍.

클릭을 하니 어머니 세상에! 1기부터 16기가까지 짝 모여 있었다. 나는 야호를 외쳤다.

나는 신나게 1기부터 열심히 만화를 보기 시작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일본에 가서 사가지고 온 것일까? 어쨌든 영화는 일본 것이지만, 자막은 한국말이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만화를 보느라 놓쳤던 드라마 “주군의 태양”도 본방송도 놓치고 나면 케이블 TV에서 돈을 주고 봐야만 한다. 그래도 난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인터넷이다. 한마디로 천국이다.

최신 영화부터 어제 나온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공짜이다. 난 또 신나게 놓쳤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끼이끼이 웃으며 보았다. 이렇게 웃고 즐겼던 감상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블로그의 제목에 내가 방금 들어가서 감상을 했던 바로 그 사이트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사이트 보지 마세요.”

왜 그러지? 나는 궁금해서 다시 클릭을 하였다. 그런데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이니 들어가서 감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즉 각종 영상물들을 불법적으로 훔쳐와서 올린 것이라는 얘기다. 저작권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저작권이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 멋지게 자기 이름을 내 걸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봤던 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주인 허락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왠지 모를 미안함이 몰려왔다. 내가 본 명탐정 코난과 주군의 태양이 허락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나에게 잡힌 것이다. 내가 만든 예쁜 손수건을 다른

친구들이 내 허락도 없이 손도 닦고 땀도 닦을 때 쓴 것과 같다. 아, 그런 기분이란? 완전히 불쾌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본 것이다. 단지 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이걸 만든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다.

나는 내 방에서 내가 만든 꽃펜을 가지고 가려는 오빠한테 말을 했다.

“난 허락한 적 없어.” 라고.

“야, 이번 한 번만 쓰자.” 오빠가 말했다.

“다음부터는 내 허락받고 써.”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야, 정말 치사하다!” 오빠의 대답이었다.

그래, 어쩌면 나도 사람들도 돈을 내라는 케이블 TV에 치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드라마와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위해 몇 시간씩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마땅하다.

나도 물론 나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물건을 허락받고 가지고 가야 한다는 아주 쉬운 원칙에 대해서 말이다. 그 일 이후 나는 합법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보고 있다. 노래도 영상도 아이디어도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듣고 본다. 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굿다운로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 가족과 친구들을 어서 빨리 ‘굿다운로더’로 만들어야겠다.

창작의 고통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소설 쓰는 것을 즐겼다. 소설 한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몇 달이 걸릴지 혹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찾은 후에는 개요를 짜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작가는 글을 쓸 때 끊임없이 고민한다.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게 될지 생각하면서 한 페이지를 쓰기 위해 이 전까지의 내용을 수십 번씩 읽어본다. 이 과정은 가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소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창작물이든 창작은 힘들다. 나는 매일 이런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기에 저작권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하지만 내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알고 그 것을 지키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기술 선생님께서는 저작권의 정의, 종류 등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나누어주시고 그 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저녁 나는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기 위해 그 유인물을 펼쳤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항상 무료로 음악, 영화, 책을 다운로드 해 즐기고 그 것을 업로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한 경험들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고 양심을 쿡쿡 찔렀다. 창작을 하는 사람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해 무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수업을 듣기 전까지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기에 아무 죄책감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작권을 잘 지키지 않게 된 이유가 불법적인 행위의 대중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근 100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현재 IT강국으로 불리며 그 어느 나라보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그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너무 빠르게 바뀌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주기는 힘들었고 지금이 그에 대한 결과이다. 거의 모든 집에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니 처벌도 힘들어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홍보를 통하여 국민이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갖게 해주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이들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크게 꾸짖거나 혼내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것을 원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이런 점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국민 전체의 인식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CCL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CCL

은 Creative Commons License 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하의 다른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마크를 뜻하는데, 이 것을 통하여 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 무분별한 도용을 피할 수 있고 저작물에 대한 사용 범위를 나타내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더욱더 직접적인 홍보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알고 보호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의 저작권 관련 법률은 기준이 모호하여 기관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의 단순한 사실 전달은 이용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단순한 사실 전달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소설이나 영화의 비평 글은 저작권 법 위반이 아니지만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위반인지 확실 하지 않아 한쪽이 역지를 부린다면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이 내려 질수 있다. 전체를 아우르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만 비로소 저작권이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의 경험, 인생, 감정, 생각, 가치관 등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창작물이다. 그리고 창작자는 창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다. 그런 것들이 창작자에게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유포, 확산된다면 그것은 한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훔치는 것이고 나아가 인생을 훔치거나 난도질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흔히 말하듯이 창작을 통한 직업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음악이나 만화를, 영화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저작권은 법이기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하기에 법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 ? 남? 우리!

어느 한 초등학교의 미술 시간,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찰흙들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든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짝꿍에게 불평을 하고 있다. “나 따라하지 마!” 아이는 친구가 자신의 찰흙 작품을 따라 만드는 것이 억울했나 보다.

당돌하게도 친구에게 짜증을 낸 이 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손재주가 뛰어나 미술 시간이면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친구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가 만든 작품의 모양과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이후 나는 짜증을 내던 모습들이 부끄럽게 느껴져 더 이상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편했다.

어릴 적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찰흙을 주물러 만든 공룡들도, 서툴지만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뽀뽀뽀하게 그린 엄마와 아빠의 모습도 저작물이다. 사실상 어린 내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저작권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초등학교의 나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았다. 그 저작물이 어떠한 것이든지, 저작물에는 만든 이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허락도 없이 자신의 저작물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저작권자로서의 ‘억울함’이 ‘나’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 억울함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억울함은 이기적이기까지 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되어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친구들의 다툼은 종종 볼 수 있다.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에서부터 필기 방법까지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서로 억울함을 주장한다. 나 역시 친구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마냥 사용했을 때에 속이 상했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오로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만 권리가 있고 자신만이 저작권자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선 무심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 즉, 타인이 느낄 억울함은 간과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시작으로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수많은 정보들과 저작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편리성이 동시에 ‘저작권 침해’라는, 정보화시대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SNS인 ‘Facebook’, ‘카카오톡’에 들어가 페이지를 스크롤하다 보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국내·외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

놓은 글을 공유하며 엄연한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감상하고 있다. SNS 자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까지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종종 친구들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사진, 문구들을 자신의 글에 실곤 하는데 그 중에서 출처가 적혀 있는 글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권리를 주장하던 청소년들이 정작 타인의 저작권은 보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아닌 저작권자들의 권리와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토록 무감해진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작권자’의 ‘자(者)’가 아닌 ‘저작물’의 ‘물(物)’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받아온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 지니고 있는 법적 권리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했을 때의 처벌에 주로 치중돼 있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저작물들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하나의 저작물은 홍수의 한 방울에 불과했기에 청소년들은 저작물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점점 둔감해져갔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기 전에,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정보 없는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자’의 ‘자(者)’에 초점을 맞추어 저작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에 의해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수고로운 과정과 저작권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제작한 저작물에 시간과 정성이 깃들었듯이, 다른 저작권자들 역시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수많은 저작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접한 ‘사람’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려 노력한 것처럼 타인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지사지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창작 활동을 한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 스스로가 저작권자임을 항상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입장이 되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지은 소설이나 자서전에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에게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써 넣게 하는 것을 어떨까? 혹은, 청소년 개개인의 ‘저작물 폴더’를 ‘에듀팟(Edupot)’에 만들어 차곡차곡 저작물들을 쌓아둔다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저작권자였고 앞으로도 저작권자라는 점을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포래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가 있듯이 청소년들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이버 저작권 지킴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반크가 이메일을 통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놓은 해외 지도 사이트에 시정을 요구하듯, 사이버 저작권 지킴이단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고 있는 또래에게 이메일과 댓글 등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나 어른이 아닌 또래에게 받은 조언과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래에 예민한 청소년들은 쉽게 친구들의 조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언을 준 지킴이단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이 저작권법 사수예의 사명감을 심어주어 조언을 주고받는 청소년들 모두가 저작권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니, 실로 ‘원-원 전술’이라 할 만한 일 아닌가?

우리 청소년들은 그동안 저작물을 만드는 데에 쓰인 ‘나’의 노력, ‘나’의 시간에만 주목하였고, 스스로를 ‘유일무이’한 저작권자라고 이기심으로 자만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를 침범해 왔다. 하지만, 자신 말고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작물은 갑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도 저작권자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둔다면 저작권법에 대한 준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만 저작권자가 아니다.

‘남’들도 저작권자들이다.

‘우리’ 모두 ‘저작권자’이다.

저작권 보호, 법보다는 의식으로

"자, 여기 plagiarism에 대한 서약서를 나눠줄 테니 모두 잘 읽고 사인해 주길 바래요." 수터 선생님은 종이를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자료에서 내용을 빌려오거나 문장을 사용할 때 정확히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4일 정학'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란 나라에서 얼마나 저작권을 중요시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다. 의도가 어떻든 저작권 침해는 한 치의 용납도 없는 어찌 보면 약간 치사할 수도 있는 나라. 그것이 미국의 첫인상이었고 저작권과의 첫 만남이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던 나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저작권이 그토록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다. 여느 학생들처럼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들을 이용해왔지만, 모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자 혹은 대리인의 권리, 저작권. 불법다운로드가 판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온 나에겐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었다. "4일 정학"이란 무시무시한 단어를 보고 나서야 번뜩 정신이 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하더라도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각주를 넣고 출처 표시를 하였다.

바쁜 첫 학기와 한국에서 보낸 짧은 방학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시작될 공부에 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후, 내 기숙사 방에 친했던 한국인 친구 수연이가 조용히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수연이는 문 앞에서 갑자기 영영 울기 시작했다. 당황한 내가 겨우 진정시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겨울 방학 전 기숙사 급수 밸브가 터져 화장실 옆이었던 수연이 방엔 홍수가 났고, 가뜩이나 정신없는 상황에서 수연이는 바쁜 학교 스케줄에 못 이겨 '2문장'을 다른 친구의 숙제에서 베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나 4일 동안 정학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컴퓨터도 아니고 손으로 한 숙제에서 그 두 문장을 발견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토록 작은 실수도 용납 못 하는 선생님들이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다. 수연이는 다음 날 있을 학생징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내가 자신의 변호를 맡길 바랐고, 난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였다.

청문회 당일, 전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자 피곤한 모습이 역력한 수연이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교장 선생님과 징계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위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그곳에서 당시 수연이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심적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했고, 다행히도 위원회에선 학교 책임이었던 홍수 건을 고려해 경고조치만 내리게 되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수연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도대체

저작권이 뭐기에, 라고 생각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난 그 사건에 대해 점차 잊어가기 시작했다. 미국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 즈음, 난 블로그에 나의 미국 생활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다. 많은 유학생과 예비 유학생의 공감을 얻은 나의 글들의 조회 수는 빠르게 올라갔다. 많은 사람이 나의 글을 봐준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었고, 난 더욱더 열심히 글을 쓰곤 하였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남은 시간엔 글을 썼고, 인기가 좋은 글은 조회 수가 1000이 넘기도 했다. 사람들이 나의 글에 단 댓글을 보는일이 가장 즐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올린 글 맨 아래 오른쪽 귀퉁이에 "스크랩 13"이라는 걸 발견했다. 나의 글을 스크랩해간 사람들이 13명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댓글 란엔 아무도 나의 글을 퍼간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어디에 퍼갔는지 보기 위해 똑같은 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검색창엔 원본 외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들 나의 글을 공개 표시하지 않고 퍼간 것이다. 내가 쓴 글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왠지 화가 났다. 열심히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쓴 글인데, 고맙단 말도 없이 그렇게 퍼간다니. 갑자기 내가 퍼부은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너무 괘씸했고, 더 이상 글을 쓰고 싶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때 잊었던 기억 속에서 생각난 건 바로 수연이 사건이었다. 난 당시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다. 그까짓 거 표기 한번 안 한 게 뭐 큰일인가, 라고 생각했던 나였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해였다. 열심히 공들여 만든 나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는 것은 절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그것은 저자의 의욕마저 뺏어가는 커다란 범죄였다. 일종의 고마움의 표시이자 노력의 인정 정도로만 생각했던 출처 표기는 매너가 아닌 의무였던 것이다.

난 당장 블로그에 내가 썼던 모든 글을 스크랩해갈 때엔 원본 출처를 꼭 남기고 댓글에 퍼간다고 적어 달라 부탁하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며칠 후 그 '13'명중 7명이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 스크랩을 해 갔고, 나의 글을 통해 많은 조언을 얻어 고맙다는 쪽지를 보내왔다. 그들의 블로그에 당당히 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글들을 보자,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창작의 욕구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한동안 놓았던 타자기를 잡았다.

한국에선 미국에서처럼 저작권에 대한 의식과 교육이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 미래의 소설가, 드라마 작가, 영화감독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의식 없이 창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나처럼 상처를 받고 창조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바른 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방패

저작권에게

안녕? 나는 춘천 소양초등학교 5학년 신유민이라고 해.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도 힘이 점점 사라지고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내 귀를 속삭이고 있어. 가을, 참 좋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을 한 권 읽는다면...어른들 흉내 좀 내 볼까? 금상첨화겠지? 히히 씩스럽네.

저작권아

사실 난 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 어렴풋이 들어 본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 그래서 오늘 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나의 이런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난 네가 궁금해 졌어. 그래서 너를 인터넷에서 찾아 봤지. 그런데 너에 대해서 이해되기는커녕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머릿속만 더 복잡해 졌지 뭐야. 그러다가 쉬운 뜻을 찾게 되었어. '내 창작물을 독점할 권리'라는 문장이 내 눈에 쏙 들어 왔어.

우리는 학용품에 이름을 쓰지. 그러면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주인이 누구인지 쉽게 찾아 줄 수 있어. 또 그 물건을 써야 할 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창작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남의 물건을 쓸 때 허락 받듯이 음악이나 게임을 다운 받을 때 그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해야만 해.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바로 너! 처음에 네가 법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어. 나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규칙이지 법이라는 것은 생각 못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무수히 많은 저작권을 어겨 왔어. 음악이나 게임을 종종 마켓에서 불법 다운받고, 휴대전화 테마도 불법으로 다운받았어. 나는 너를 어길 때 이걸 만든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했어. 그때 그냥 무료로 다운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 만약 이걸 만든 사람이 내 행동을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지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지.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니.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만 해야지' 마음먹고도 어느새 또 너를 어기고 있더라고.

나는 사실 네가 싫었는지도 모르겠어. 요즘은 정보시대잖아. 저작권은 정보공유를 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했어. 좋은 것 좀 같이 쓰는 게 뭐 그리 나쁜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용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 생각이 바뀌더라.

친구가 내 그림을 모방하고 따라 해서 무척이나 속상하고 화가 난 적이 있어. 나는 열심히 꽃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꽃잎 한 장 한 장 그리는데 많은 정성을 드려서 그렸지. 마침내 그림을 완성하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글썽 내 짝꿍이

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내가 10분 전에 보았을 때는 나무를 그리고 있었어. 그런데 나랑 그림이 같으니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어. 꽃 색깔만 빼고 위치, 크기가 다 같은데도 짝꿍은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겼어. 마음 같아서는 가서 꿀밤을 한 대 때려 주고 싶었어. 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 앞이라 꼭 참고 넘겼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짝꿍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창작물을 모방 당하고 불법 다운로드 당한 사람도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야. 나는 고작 글과 그림이지만 그 사람들은 창작물로 먹고 사는 것인데 나보다 100배는 더 화가 나고 속상했을 거야.

‘내 돈 서푼은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논리의 나의 이기주의! 부끄럽다. 이제서야 나는 저작권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내가 모방과 불법 다운로드의 방패가 되어 준다는 것도 느꼈단다.

우리는 너의 존재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 그래서 다들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모방을 하는 거지.

‘나 하나 저작권 어긴다고 뭐가 잘못 되나?’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야. 물론 한 명이 저작권을 어긴다고 세상이 잘못 되는 않아. 하지만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한다는 게 문제지.

저작권아,

앞으로 너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할게. 너는 모두가 지키고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라고. 널 지키지 않은 것은 남의 물건을 주인 허락도 없이 쓰는 도둑질과 같다는 걸.

앞으로도 넌 지금처럼 창작물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어 줄 거지. 난 아직은 어리지만 너의 한쪽 날개가 되어줄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방과 불법 다운로드 없는 나라가 되고 모두가 너를 지키는 나라가 되길 바랄게. 안녕

2013년 9월 1일 일요일
유민이가

저작권가족

- 아버지는 프로그래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아버지의 컴퓨터는 항상 켜져있고, 한숨소리와 머리를 박박 긁는 소리로 거실은 가득 찬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광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지.”

라며 컴퓨터와 매일 싸우시는 아버지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시다. 아버지는 주무시는 시간만 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셔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신다. 어쩌면 꿈속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를 하실 지도 모른다.

맥주 한 잔을 하신 날에는 덩수룩한 수염을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소프트 개발팀에 이창훈 대리 알지. 글썄 그 놈이 아이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네. 저작권료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네.”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다. 얼마 전 국어 시간에 배운 단어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는 저작권은 요즘 들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라고 한다. 그것을 아버지도 가지고 싶어서 저렇게 매일 컴퓨터와 싸우고 계신 가보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아버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한숨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아버지의 수염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피기 시작한 꽃들은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다.

사실을 알고 보니 아버지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이 사용된 것이었다. 아버지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죄가 크게 인정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몇 년간 노력한 것들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모래성이 되고 말았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러 베낀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 버렸다.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도 있었지만, 저작권법이 다른 어떤 법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그 법 때문에 잘 살고 싶었지만, 결국 저작권법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한 번 컴퓨터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 어머니는 디자이너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나가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어둡게 변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다.

“엄마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한테 도용되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공부하는 중이야.” 얼마 전 아버지께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저작권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고의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디자인을 몰래 빼서 회사에 보고를 하고 상품으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아시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것을 보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저작권을 훔쳐간 사람이 너무 미웠다.

저작권이라는 법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고스란히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 내신 것을 잃어버릴 뻔 하셨다는 생각이 드니 아찔했다.

다행히 법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고, 어머니의 디자인에 저작권 보호라는 도장이 찍혔다. 어머니께서 저작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저작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도 함부로 연예인의 사진을 옮길 수 없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쓴 수필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방학 숙제로 친구의 일기장을 베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내일 학교에 가서 일기장을 빌려 준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겠다. 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말이다.

- 나는 학교 신문사 기자

“광연아, 아직 멀었어? 선생님께서 한 시간 후에 출력 들어간다고 하셨어.”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복잡한 머릿속에 재범이의 재촉까지 글을 한 줄도 써 내려 갈 수 없었다. 컴퓨터 화면 속 커서도 깜빡깜빡 글들을 달라고 난리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걸로 왕재수 유림이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었는데…….’

지난 달 유림이는 아주 멋진 기사로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잘난 척 하며 다니는 모습이 나를 더 짜증나게 했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무조건 유림이보다 좋은 기사로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 출신 선배가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었다.

‘그래.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걸 조금 수정해서 내 기사로 만들어야지.’

순간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나의 두 손을 망설이게 했지만, 수정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사진과 기사내용을 복사한 후에 내 것처럼 만들었다.

‘역시 이렇게 하면 금방일 것을 괜히 머리 아프게 고민했네.’

신나는 발걸음으로 인쇄된 기사 내용을 들고 선생님께 갔다.

“광연아, 이거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은 거니?”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자 선생님께서는 나의 기사를 보란 듯이 짹짹 찍으셨다.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광연이가 학교 신문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저작권법은 존재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기사를 올리고 이름을 그 밑에 달아놓은 순간 너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의 이야기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유림이 코를 납작하게 해 주려다가 오히려 내 코만 더 납작하게 되었다.

“저작권은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존중해 주어야 빛을 발할 수 있어.”

며칠 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 콕콕 들어왔다. 모든 법에는 양심이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양심과 배려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법을 지키지 위해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그 사람의 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저작권은 보호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작권 수호천사 نامه

나의 소중한 동생 수현이에게

수현아, 나는 네가 이 세상에 내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기쁘고 고마워.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뭐든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네가 좋아.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라고 누나가 지어준 태명처럼 저작권 수호에도 으뜸이 되길 바라면서 누나와 저작권 수호를 함께 하자는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누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널 안아줘도 너는 아파서 울기만 했지. 아픈 걸 말로 표현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너를 보는 것이 누나는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데 내가 우연히 뽀로로 만화를 보고 배시시 웃는 걸 보고 우리 가족은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즐거운 만화가 너의 통증을 줄여주고 너를 웃게 만들어 준 것 같아 뽀로로가 너무도 고마웠지. 누나도 뽀로로 만화를 보고 자랐고, 뽀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너도 좋아한다니 우린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구나. 뽀로로는 역시 뽀통령이 맞았어. 아직 사물을 100% 정확히 볼 시기가 아니라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는데 뽀로로를 보고 즐거워하다니 정말 신기해.

누나는 요즘 엄마의 주방 일을 돕고, 아빠의 구두를 닦고, 안마를 해드리며 용돈을 벌고 있는 중이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말고 네게 유료 콘텐츠로 제공되는 뽀로로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거든. 요즘은 영어 뽀로로를 볼 수도 있어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도 초등학교에 가면 영어를 배워야 하거든. 미리미리 즐겁게 배워두면 좋잖아. 무료로 제공되는 뽀로로 콘텐츠도 있지만 저작권료를 내고 정정당당하게 네게 많은 뽀로로를 보여주고 싶어. 예전 누나가 어릴 때 야시장에서 가짜 뽀로로 인형을 사달라고 떼쓰고 조른 적이 있는데 캐릭터 용품도, 장난감도, 만화도 다 주인이 있어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엄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 가품을 사용하지 말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누나는 저작권료가 포함된 정품 뽀로로 인형과 젓가락, 도시락 등을 사용했어. 돈이 더 들어도 저작권료가 포함된 정품을 사용하니 마음도 편하고 자부심도 느껴졌단다. 정품은 안전도 보장되거든. 가품에는 유해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니 더욱더 저작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작권을 지켜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뽀로로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고 사용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누나가 요즘 좋아하는 아따맘마를 일본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수입했듯이 뽀로로가 외국에 수출 될 때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데. 우리나라 캐릭터가 저작권을 보호받으며 세계에 수출되고 세계의 어린이가 다함께 좋아한다는 것이 너무 멋지지 않니?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뉴스를 보니 뽀로로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국민이 먼저 저작권을 잘 지켜줘야 외국에서도 저작권이 더 잘 보호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 수현이가 더 컸을 때 저작권을 잘 이해해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던 누나처럼 막 조르고 떼쓰지 말고 말이야. 그러면 누나는 네가 뽀로로보다 훨씬 많이 자랑스러울 거야.

네가 배가 아파 울고 있을 때 뽀로로가 큰 힘이 되어 주었듯이 네가 크면 정품 뽀로로 캐릭터용품을 사용하고 콘텐츠 비용을 내고 이용해서 뽀로로의 저작권을 지켜주렴.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를 하는 사람들에게겐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말이야. 저작권 수호로 은혜 깊은 수현이. 상상만 해도 누나는 흐뭇하고 네가 대견해.

이제 다음 주면 누나가 네게 뽀로로 유료 동영상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가 태어났을 때 제대로 된 선물도 하나 사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누나 힘으로 네게 뽀로로를 저작권료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아. 또 저작권에 대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려. 이 기회에 누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누나는 용돈 벌기가 너무 즐겁기만 해.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누나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누나는 네게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는 남매가 되자고 꾸준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거니까 기대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저작권 수호천사 남매가 되자꾸나. 내 동생이니까 분명 너는 누나보다 더 저작권을 잘 지켜줄 거라 믿는다. 어서 빨리 배탈 다 나아서 다음에 누나가 뽀로로 유료 콘텐츠 보여줄 때 더욱 활짝 웃어주렴. 저작권의 미래도 너의 미소처럼 활짝 피어나게 될 거야. 사랑해.

창작자, 저작물 나아가 사회가 행복하도록, 저작권을 지키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단어를 처음 안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조금 뒤의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솔직히 처음 저작권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내가 창작한 저작물이 어느 범위까지 가리키는 말인지를 몰라서 의미 이해가 어려웠다. 권리를 모르면 누구만 손해냐면 나만 손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렇게 손해를 입어본 적이 있어서, 저작권이란 것에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아서 저작권의 의미를 깨달았다. 날 울고 웃게 만든 그 사건, 저작권이 뭔지 알게 해준 그 사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고 나면 블로그에 독후감을 옮겨 적었다. 글을 읽는게 재미있어서 글을 읽고, 짧게나마 독후감을 써서 올렸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내가 글을 쓰고, 나의 글을 다시 누군가가 읽고... 이 순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가 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11살의 나에게 저작권의 개념이 없어서 누군가가 내 글을 악용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4월 23일날 저작권 교육을 받고나서도 단순히 블로그에 올린 이 몇 자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늘 여름방학, 겨울방학 숙제가 있었는데 여름방학에는 반드시 독후감을 써갔어야 했다. 순수하게 독후감이 좋아서 방학 동안에도 글을 올렸다. 물론 댓글은 아무도 써주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올렸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의 방학은 책과 함께 보내고, 바다와 함께 보내고, 도시와 함께 보내고, 시골과 함께 보내고 세상의 많은 것들과 보내서 좋았다.

개학을 하고 당당하게 제출물을 냈다. 거기에는 내 정성과 노력이 담긴 독후감도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열심히 썼다고 칭찬하시는 줄 알고 쫓르르 달려갔다. 그러나 칭찬은 무슨, 아직도 기억하는 그 날 날씨처럼 우중충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들었다. 11살 소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그 날의 날씨처럼 축 처지게 됐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안네의 일기, 동물농장 등의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제출했는데 우리 반 어떤 아이와 똑같은 제출물을 냈다는 것이다. 그 아이는 평소에 선생님을 속을 꽤나 썩이고 반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었다. 그런 학생과 내가 똑같은 제출물을 냈다니! 난 저런 아이와 영원히 관련 없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당시 나는 반에서 암전하고 바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와는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게도 방학 제출물 때문에, 내 독후감 때문에 이렇게 불리다니! 11살 여자아이는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속으로 엉엉 울었다. 속으로만 울었다. 겉으로 울면 더 창피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음 날 말하길 그 아이가 내 아이디로 블로그를 찾아서 독후감을 옮겨 썼다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누군가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분 좋게 올린 글이 누군가가 보아서 날 슬프게 만들었다. 이 아이러니는 어디서 비롯된걸까. 바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었다.

-내가 블로그에 올린 짤막한 글들도 다 저작권이 있단다. 그건 누군가가 알려준 게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서 난 너의 창작물이야. 그 저작물에는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이 있어. 이제는 꼭 명심하렴, 앞으로는 블로그에 글 올릴 때 저작권을 생각해서 함부로 퍼가고 복사할 수 없게 하렴. 그리고 저작권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도용하면 처벌받는다고 하고. 그 애는 원래 남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깐 이해해주렴.

저작권? 선생님 말이라면 그 아이는 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일정 대가를 받아야하지만 나는 사과 받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다. 내 독후감이 누군가가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분하고 아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저작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 그리고 세상에 평생 안 엮일 사람은 없다는 것도. 우중충했던 그 날의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깊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그러나 그 일이 생생해진 까닭은 내 저작권을 침해했던 아이가 했던 사과의 영향이 더 크다.

그 아이는 다음 날 바로 사과를 했지만 나는 내 것을 마음대로 쓴 그 애가 알미워서 아무 말도 안하고 지냈다. 같이 나이를 먹었지만 다른 반이 되고 다른 공간속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나에게 와서 자신이 도용했던 독후감의 책들을 모두 사다 자신이 쓴 독후감과 함께 나에게 줬다. 어찌면 서서히 잊어버려서 지워져버렸을 그 사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 애가 나에게 이러한 사과를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런데 난 세계 책의 날이라서 책을 주는 줄 알았다.

-너 왜 5학년이 돼서 이걸 주니? 난 뒤끝 없거든?

-오늘 저작권의 날이잖아.

-오늘 4월 23일인데, 세계 책의 날이잖아?

-바보야. 오늘 세계 책의 날이면서도 저작권의 날이거든.

-그래서, 이 책들하고 독후감은 뭐냐.

-미안해. 그 때 독후감 쓰기 너무 귀찮아서... 네 아이디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블로그 가서 그냥 복사했는데 그게 저작권침해인지 몰랐어. 미안해, 이 책보고 내 독후감 보고 내 독후감 본 소감을 올리면 내가 이번에는 댓글도 달께!

-뭔 소감은 소감이야~. 알았어. 올려줄게.

알았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12살 소녀는 양 손 가득 책과 행복을 안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갔다. 그 애의 독후감은 줄거리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아이의 능력으로 만든 창작물이다. 저작권이 있는 소중한 글이다.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난 울고 있었다. 그러나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고 저작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자 나는 싱글벙글 웃음이 났다.

창작자에게 창작물은 그것의 가치가 창작물 자체를 뛰어넘는다. 단순히 사진, 노래, 글 몇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생명이 그대로 담겨있는 생명체이다. 우리가 창작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변형시키는 것은 소중한 생명체를 불법적으로 대하는 범죄행위다. 창작하는 창작자에게는 행복함이, 창작물을 보는 대중들에게도 행복함이 있게 만들려면 우리는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창작자를, 저작물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저작권을 지키자.

즉시 동영상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집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엄마 친구분으로부터 온 한 통의 전화로 비롯되었다. 언니의 연주 장면을 유튜브에서 보셨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의아해 하며 유튜브에 들어가서 언니의 이름으로 동영상을 검색해 보았다. 거기엔 언니의 여러 연주들이 올라 와 있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품들의 광고와 함께...

몹시 당황한 엄마는 즉시 언니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다. 언니는 현재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지금 독일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언니에게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항상 민감한 것이며 늘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인 것 같다. “예은아 혹시 네 연주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허락한 적 있니?” 언니의 대답은 “그런 적 없어요.” 였다.

수화기를 내려 놓은 엄마는 몹시 화를 내며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곤 동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메일을 보냈다. ‘연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주 동영상을 올리신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오니 즉시 동영상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이 주일이 지나도 그 동영상은 그대로 유튜브에 남아 있었다.

엄마는 다시 메일을 보냈다. ‘즉각 동영상을 내리지 않으시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유튜브에서 더 이상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며 나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다.

왜냐하면 나도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 자주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의 사진을 마구 올려 왔기 때문이었다. 내 홈페이지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면 방문자 수도 많아질 것 같았고, 또 그 연예인과 내가 마치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쭐해 지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내 홈페이지에서 모든 연예인들의 사진을 눈물을 머금고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진 작가들과 연예인들이 아직까지는 나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러나 연예인들에 대한 나의 미련과 애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에, 오랜 망설임 끝에 나는 엄마에게 여쭙 보았다. “엄마,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 연예인이나 풍경 사진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며 “글썩다, 먼저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연예인들이나 사물들의

사진을 검색하되 고급 이미지로 검색해 보렴. 설정에 들어가면 그것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사진인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진인지 알 수 있단다. 그 중에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진을 사용하면 괜찮단다. 그러나 연예인의 사진인 경우 사진 작가 뿐만 아니라 연예인 본인의 허락도 받아야 한단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엔 연예인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등을 통해 문의해 보렴”

이 일 후로 나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 사용하는 사진은 꼭 이미지 고급검색을 통해 저작권 해당 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작년 연말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창작물들은 (그것이 연주 동영상이든 사진이나 그림이든) 일반 상품처럼 고유의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이듯 남의 창작물을 아무런 문의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 역시 물건을 훔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우리 사회를 지식 사회라고 부른다. 지식과 정보가 소중한 재산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는 창조 경제를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곧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창조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인식과 교육이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저작권은 나의 재산이기에 앞서 모든이들의 재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을 창작한 창작자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기본 습관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코스가 될것같다. 앞으로 학교친구들과 저작권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대화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 아직 나는 어리지만 앞으로 저작권의 창작물을 나에게 크게 다가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저작권 교육 글짓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000. 생일 축하합니다.’ 가사만 보아도 그 음이 저절로 흥얼거려지는 이 노래의 가치는 무려 500만 달러이다. 술하게 많은 생일 파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이 노래. 이 노래를 불러야만 진정한 생일 파티라고 생각됐다. 그런데 이 노래가 무려 5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노래는 1935년 summy사의 의해 저작권이 확립되고 1990년에는 워너 셰펠이 1500만 달러를 주고 구매하였고 평균 로열티가 700달러나 된다.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았던 이 노래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란니. 그동안 우리는 저작물에 대해 가볍게 여겼다.

저작권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보통은 현실화된 상품에만 가치를 매겨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 또한 고유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 또한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나 소설 등은 작가의 시간과 지저인 노력의 결합체이다.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긴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그 영화 한 편에는 많은 스태프와 배우, 감독의 피와 땀이 담겨 있다. 몇몇 영화는 개봉도 되기 전 세계로 퍼져 투자한 많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돌려받지 못했다. 얼마나 가슴 아픈가. 피와 땀을 흘린 작품을 그대로 도둑질 당한 기분이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불법 유출에 의한 손해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그에 지난해 흥행작이었던 ‘건축학 개론’은 지난 2012년 5월 8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유출돼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십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인류 전체는 창작물을 접할 기회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지난 3월 6일 ‘건축학 개론’ 측은 민사·형사 상의 소송을 모두 취하였다. 불법 유통자들의 대부분이 학생 또는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저 가볍게 듣고 보는 것 뿐 그 것이 다른 사람의 엄연한 지적재산이라는 것을 안지하지 못한다.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아이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은 염두하고 있으나 정작 실천하지는 않고 있다. 말은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친한 친구가 따끈따끈한 신작이나 유명한 곡이나 파일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내밀고 본다. 그 순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양심은 사막의 물처럼 금방 고갈되고 바로 어둠의 경로를 사용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 아이, 노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행동이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치원 때부터 사람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덕 개념을 배운다. 어른을 공경 하여라,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도덕 교육 속에 저작권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더군다나 사회는 점점 정보의 교류가 빨라지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 속에서 저작권 의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작권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사 고소율이 많다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경고 조치를 넘어서도 잘 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경고를 해도 ‘한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경고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다. 하루 빨리 저작권 보호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다른 이의 고유의 창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부끄러운, 우리 학교의 저작권 침해 실태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해지도록 해주었다. 사람들은 정보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전 세계의 소식을 sns, youtube 등 각종 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직접 도서관에 가야지만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콘텐츠가 잘 구축되어 있어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궁금한 점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지적 재산을 가진 정보의 불법적 접근과 이용 또한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식 도둑이라고 불리는 논문 표절에 관한 논란, 작사·작곡가와 가수들의 노력 끝에 생산한 음원의 불법다운로드, 거금을 들여 제작한 영화의 불법 시청 및 저장, 공유, 출판된 소설이 txt파일로 변환되어 유통되는 등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사회 전반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개봉된 지 일주일도 지났을 즈음, 친구에게 같이 보러 영화관에 가자고 했더니 친구는 집에서 '불타(불법다운로드를 가리키는 준말)'해서 이미 봤다며 거절했다. 또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tv에 방영된 직후, 여러 p2p사이트에서 바로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놀랐다. 파일을 바로 올려 놓는 사람들과 그것을 또 찾아서 내려받는 사람들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만 보더라도 그 빈도와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우리 학교는 기숙사 학교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 열 몇 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의 컴퓨터에는 torrent, 4shared 등의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음악,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기숙사 학교의 특성상 파일의 공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러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윤이 돌아가지 않아서 누구도 자신의 창의성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정확한 실태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재학생 80명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13.08.05~13.08.07). 질문은 9가지로, 각각 저작권 침해 경험 여부와 소장 파일의 몇 %가 불법다운로드를 통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고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지속 여부, 양심 가책의 경중, 적발 경험의 여부 그리고 적발될 가능성 등을 질문했다.

나에게 있어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다.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80명 모두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었고, 빈도수로 보자면 음악 저작권(76명), 영상저작물(72명), 컴퓨터 프

로그래밍 저작물(32명), 어문저작물(24명) 그리고 기타 저작물(10명) 순이었다.〔중복응답 가능〕 불법 소장 파일에 관한 질문 음악 저작물은 약 63.03%가, 영상 저작물은 시청이 아닌 소장 비율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1.05%를 기록했다. 독특했던 점은 저작권 침해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었다는 것이었다. 음악 저작물에서 불법 소장 비율이 30% 이하인 사람은 22명이었고, 70% 이상인 사람은 54명이었으며 그중 90% 이상인 사람은 33명까지 기록했다. (총 76명 중) 미숙한 설문조사이기에 오차범위가 꽤 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로는 p2p 사이트(50명), 웹하드(32명), 포털 사이트(32명), 스마트폰 앱(28명) 순으로 토렌트와 4shared를 주로 많이 사용하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불법다운로드가 가능한 앱 또한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중복응답 가능〕학생들은 왜 불법다운로드를 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돈'이 52명, '구하기 쉬워서'가 50명, '소장이 목적'이 28명이었다.〔중복응답 가능〕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58명, '양심의 가책을 다소 느낀다.' 14명, '적발될까 봐 걱정한다.'가 8명 순이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58명의 학생은 이미 저작권 침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것일까. 적발된 경험을 물어보았는데 100%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앞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4명, 절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56명에 이르렀다. 행위의 지속성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80명 중 단지 8명만이 앞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을 뿐, 72명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금 우울한 결과였다.

이렇게 미숙하지만,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실태를 어렵듯이 가늠해보았다. 솔직히 나 자신 또한 흠 없는 곳 다운로드라고는 자부할 수 없다. mp3 내의 여러 음원이 4shared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이고, 가끔 집에서 영화도 baykoreans, 토도우 등을 통해서 불법으로 시청한다. 내 n드라이브 안에는 영화와 드라마도 몇 편 있다. 만약 내가 p2p사이트나 토렌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면 돈을 아낄 수 있고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철없고 근시안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설문조사에서의 심각한 실태를 보면서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내 친구들의 행동에 식겁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였다. 이 결과를 보여주면서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이제 저작권을 지키면서 살자고.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자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저와 같이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며, 자신이 언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며, 저작자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우리 사회 전체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하지 못해서 저작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지켜야만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문화라는 나무의 비옥한 땅이다. 그 나무는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으며 성장하고, 나무가 커지면서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고, 열매를 먹는 등 그 이익을 누린다. 우리는 그런 나무가 자라는 땅이 메마르게 된다면, 즉 사람들이 저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성장하고 있던 문화 나무는 결국 죽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다.

남의 두뇌에 빨대를 꽂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기사 안 넘겨”

마감을 1주일 앞두고 우리학교 신문 부 “해담휘루”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데드라인 (dead line-마감시간)이라고 칭하는 기사 마감 시간에는 간혹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담당하는 부분을 정확한 글자 수에 맞추어서 맞춤법 교정까지 끝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학년 후배 기자가 아직 교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겨우 싸움으로 번질 상황까지는 막았다.

“다른 스크랩 끼워 넣기 안 될까?”

빈 공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짜깁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나의 말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내게 레이저 눈빛을 쏘았다. “아니, 뭐, 그냥 해본 말이야.”하는 방패막이로 각을 세웠지만 친구와 후배들의 어이없는 표정이 그대로 읽혔다. 우리 끼리 약속인 남의 것을 베끼지 말자는 은어 “남의 두뇌에 빨대 꽂지 마라!”를 어긴 나는 흉당무가 되었다. 신문 마감은 시험기간과 겹치는 경우여서 시간에 쫓길 때가 있다. 방학식이나 입학식에 학교 소식도 전할 겸 해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발행하곤 하기 때문이다. 또 퇴고를 거듭하다 보면 자꾸만 시간은 우리를 억박지른다. 그 상황에서 은연중에 나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학교 신문기사 한 꼭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의 회의와 의견 교환을 한다. 대학 탐방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연락과 취재 요청, 그리고 담당자와의 연결과 취재 내용 교환 등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일도 많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뒤지면 학과 소개도 있고, 학교 소개도 있다. 어쩌면 대면해서 취재하는 것보다도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대면 취재를 한다. 그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없다는 저작물의 표절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현장 확인 없이는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이 대상이야, 대상”

작년 우리가 만든 신문 “해담휘루”가 전국 고등학교 신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 덕으로 두둑한 100만원의 상금과, 교육부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모두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당연히 이어졌다.

이름 한 줄을 넣는 것을 바이라인(by line)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필요한 경우 취재를 한다. 이러한 노고가 없이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모두 자신의 이름 한 줄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고, 자신이 책임지는 기사를 끝까지 안고 고민했었다. 그리고 그 합작품이 대상의 영예까지 안게 된 것이다.

“아니 왜 첫 문장을 들여 쓰지 않지?” 내가 처음 언니들에게서 질문했던 내용이었

다. 보통의 단락을 나누는 기준으로 한 줄을 들여 쓰는 원칙이 통용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신문은 그렇지 아니했다.

“우리학교 신문의 특징이기도 하고, 편집원칙이야, 그리고 이것도 저작권이기도 하지.”

선배 기자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학교 신문에서도 편집의 여러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내는 신문의 편집체계 역시 고유한 것이야. 그래서 이것도 저작권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 기사를 나누는 편집체계 역시 다른 신문을 흉내 내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우리가 남을 흉내 내지 않고, 남의 지식을 훔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 없이 우리만의 색깔을 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글을 흉내 내거나, 훔쳐 오는 것을 차단하는 우리 여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득하는 기회였다.

신문기사에 자신의 이름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이러한 진대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고통이야 그 몇 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시인들의 작품에서 글 한 줄이 가진 위대한 힘 때문에, 시인은 그 한 줄을 위해 몇 달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저작권은 이러한 노고에 대한 보상이다. 자신의 지적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한 지식노동의 결과물이다.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상품을 재화라고 하고, 무형의 가치를 용역 혹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언젠가, 부모님께 이런 일화를 들은 기억이 있다. 어떤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다고 한다. 수리 기사 한 참 동안 냉장고 주변을 서성이며, 귀를 대고 소리를 듣더니, 냉장고 한쪽을 툭하고 치더라는 것이다. 냉장고는 즉시 제대로 작동했고, 냉장고 수리기사는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은 어떻게 한 대 툭 치고 수리비를 요구 하냐고 하자, 그 냉장고 수리기사 왈, “이 한 대를 치기 위해 10년을 노력했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의 기준으로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지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그 방식이 그가 가진 노하우이다. 그 노하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수리비가 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변경이 없어도, 그것은 인정해야 하는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글귀를 만나면 내 마음이 먼저 그 가치를 안다. 좋은 그림을 만나면 눈이 호강하고, 두뇌가 상쾌해진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귀가 반응하고, 가슴에 청정함이 흘러넘친다. 분명 눈에 보이는 물건이 오고간 증거는 없다. 그림에도 내 마음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마음은 경제적 지불의 대상이다.

내가 쓴 학교 신문 기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내 기사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 몇 번이고 고민한다. 마찬가지로, 내 권리와 내 이름이 소중하기에 남이 가진 권리와 그 가치를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창의적 생각이 넘쳐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저작권, 그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위하여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닙니다. '의무'만 존재하는 사회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 무시당하는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수 있고, '권리'만 존재하는 사회는 자신의 권리만 추구하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 혹은 무의식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자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만큼 우리는 그 '저작권'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하고, 음악을 다운받아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와 같이 저작권도 엄연한 '의무'인데 왜 유독 저작권 범법자들만 점점 많아지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우리 옆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나 자신, 혹은 옆 친구의 말을 들어봅시다. '야, 너는 왜 영화를 공짜로 다운받냐?'는 질문에 친구는 황당한 표정으로 '몰라서 묻냐. 다들 그렇게 보는데 나만 돈 내고 보면 억울하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적법성과 합리성을 따지기 전, '다들 그렇게'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니 불법 다운로드 행태는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나만 돈 내고 보면 억울하다'는 말처럼 사익 추구에 밀려나 저작권의 '인식'이 부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하다 보니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아예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와 여든까지 가는 '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실효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물론 처벌입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아 수사 비용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불리 처벌과 관련된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 처벌만큼 공공성을 띄면서도 대중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에는 정책적 교육이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미미한 만큼, 정책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의무화해야지만 저작권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여 의식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증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범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저작권 범법에 발 맞추어 정확한 이수 시간과 내용을 정해두고 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교육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기 보다는 의무 교육 기관인 학교

에서부터 시작해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10대 학생들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저작권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작업 역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힘들고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인식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이 인식에 맞추어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또한 바로잡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률이 99%에 달하는 20·30대와 그 이상 연령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여전히 의무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는 이 경우를 '저작권법의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명명해보았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본래 무역 용어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서로 원산지 규정이 다르고 어디까지 특혜 관세를 허용해줄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fta의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범법의 기준이 복잡하고 출처 표시 방법도 자료 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적어 저작권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육하원칙에 입각해 사실만을 서술'한 신문 기사면 스크랩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 기사에 단 하나라도 기자의 논평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대로 스크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구입한 cd의 음원을 youtube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런 세세한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일일이 출처 표시하기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효용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게 꼬인 스파게티볼을 풀어나가는 것은 보다 접근성이 높은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의무화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성인이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인터넷에 접속함과 동시에 포털사이트 등에서 저작권법의 제한 정도와 출처 표시방법을 확인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한 쪽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담은 창을 띄워놓는다면 저작권법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준수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용 저작권 앱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 '귀찮음'의 문제가 줄어들어 일상 속에서 프레젠테이션과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출처의 표시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고 고개를 돌리는데, "내가 엄청난 거 알려줄까?"하고 친구가 짐짓 음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가 발견한 앱인데 드라마, 영화 안 나오는 게 없어!" 핸드폰을 들이키는 친구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담뿍 묻어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저작권 준수가 '의무'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시행과 강화도 좋고, 관련 앱의 개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을 비롯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무료'의 다른 말이 '정당한 대가의 부재'라는 것을 몸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어떤 해결책도 소용 없는 저작권 범법자들의

천국 아닌 천국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다운받지 못해 느끼는 '억울함'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억울함'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조그마한 인식의 변화가 더 따스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내가 먼저 지키자!

방과 후에 난 평소처럼 메신저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쪽지가 3통이나 와있었다. 보니까 친구가 노래를 보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엔 좋아 팔짝팔짝 뛰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 되었다. 친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냥 카페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 준 거라고 한다. 아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나는 쪽지 답장으로 ‘친구야 고맙지만 그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야!’ 라고 보냈다. 친구는 알려줘서 고맙다며 이젠 허락도 말고 불법다운이 아니게 노래를 다운받겠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한명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니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 다음날도 메신저에 들어가 보았다. 이번엔 6통이나 와있었다. 무척 기대하며 쪽지함을 보았다. “어! 예쁜 그림이다!” 나는 웃으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엔 예쁜 꽃과 나비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쪽지를 보냈다. ‘이 그림 네가 보낸거야? 이쁘다^^’ 친구는 ‘아니야 내가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더라구 그래서 그냥 퍼왔지’ 그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 설명해주었다. “친구야 만약 네가 직접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퍼 가기만 하고 말도 안하고 고맙단 인사도 안했어. 기분 좋아?” 친구는 싫단 듯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나쁜 거지!” 라고 말했다. 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저작권도 침해한 행동이지” 친구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야?” 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친구야 너 몰랐구나. 저작권은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그림을, 노래를 퍼오고 가져와서도 안 되지. 적어도 저작자의 허락은 말고 가져가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고마워. 이건 내가 힘들게 직접 그린 그림인데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해준 보답이야” “우와! 주는 거야? 고마워. 너의 저작물이 생겼네. 헤헤” 나는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며 웃었다. 나는 내가 저작권보호자가 되면 어떨까 싶어 컴퓨터를 통해 많은 저작권들을 찾아보았다.

내가 저작권보호자가 된지 한 달, 그림대회가 우리학교에서 개최 되었다. 나는 롤루랄라 신나서 외계인과 사람이 소통하고 뽀죽뽀죽 모양과 제멋대로인 아파트도 그렸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다가와 “나 아이디어 주면 안 돼?” 라고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어? 뭐라고?”라고 답하였다. 친구는 계속하여 되물었다. 이에 나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친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그림을 속속 그렸다. 나는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랐다. 친구는 색깔만 달랐지 내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린 것이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친구야! 왜 내 그림을 따라했니?” “뭐? 아난데, 내가 먼저 아이디어 냈는데.” 나는 순간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믿고 친했던 친구가 날 저버리고 배신하는 느낌이 컸다. 그래도 내

가 먼저 아이디어 냈으니깐 난 당당했다.

그림 시상식 날, 난 은상을 받았다. 친구는 무슨 상을 받았는지 보았는데 아무 상도 못 받았다. 그리고 친구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괜스레 미안해졌다. 나는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다. “난 네가 내 그림 말고 너의 아이디어만으로 했다면 충분히 금상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친구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우리 둘이 그림이 같은데도 왜 너만 받았지?” 나는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렸는데 허락도 없이 내 저작권을 침해 했으니까.” 라고 답했다. 친구는 울상 지었다. “내가 너에게 허락 말으러 갔는데 네가 허락을 안 해준 것뿐이잖아.” 나는 친구를 토닥였다. “친구야 내가 저작자인데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 있는 권리도 없겠어? 내가 허락을 안 한 이유는 내가 허락을 하면 우리 둘 다 상을 못 받았을 거야 ” “그렇겠지?” 나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가자! 상 받은 걸로 맛있는 거 사줄게!” 친구는 갑자기 펄펄 울었다 “에? 친구야 왜 그래? 어? 왜 울어?” “나는 너에게 잘 해준 것도 없는데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에이 왜 그래 우린 친하니까! 그 정도는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뭐!” “맞아!” 우린 손을 잡고 마트로 향했다. 나는 벌써 10명 정도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같다. 그냥 우리 반을 저작권 지킴이반으로 만들면 어떨까? 음.. 그럼 우리학교도 빛나고 우리 반도 빛나고 나도 빛나겠지? 생각만 해도 기쁘다.

2주 뒤 동생이 다가와 물었다. “누나 근데 내 숙제인데 저작권이 뭐야?” 나는 “컴퓨터 찾아봐 만능컴퓨터.”라고 답했다. 내 동생은 실망한 듯이 컴퓨터 방으로 가였다. 1시간 뒤에도 동생이 컴퓨터 방에만 있자 걱정이 된 나는 방으로 가보았다. 동생은 컴퓨터에 있는 글을 따라 쓰기 바빴다. “뭐하는 거야? 허락은 말고 쓰는거야?” “아니” “그리고.. 이건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잖아.” 나는 한숨을 쉬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쪽 말해주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놔 컴퓨터에 있는 거 함부로 따라 쓰지마 알겠어? 차라리 부모님이나 나에게 물어봐. 따라 쓰는 건 나쁜 짓이야.” 동생은 끄덕거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밤에 집을 나와 별과 달을 보며 생각했다. 저작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왜 사람들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걸까? 별과 달이 내마음속에서 답해주는 것 같았다. 저작권이 없으면 자신의 저작물이 한 순간에 남의 것이 되고 영화는 돈도 안내고 보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저작권을 잘 모르거나 지키기 어려워 해서 못 지키는 것 일지도 모른다. 난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설명해주고 도와주어야겠다. 난 항상 궁금증이 있으면 밤에 집을 나와 별과 달을 보며 내 자신에게 묻는다. 그러면 마음에서 답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특이하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묻고 내가내 자신에게 답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나도 내가 좋다.

그리고 저작권은 틀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한 것 같다. 저작권을 모르고 안 지키면 틀이 되고 잘 지키고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자유가 되는 것 같다. 나는 저작권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 자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이제부터 저작권을 널리

퍼트리고 사람들이 저작권이 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저작권은 내가 먼저 지키자 !

어린 작가의 꿈을 지켜주세요

“이규빈 나와!”

“언니, 제발 나 이것만 끝내고.”

휴- 우리 엄마는 컴퓨터를 각자 1시간 밖에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매일 밤 8시가 되면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동생과 실랑이를 한다.

1시간이란 시간은 내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블로그를 꾸미는 데만 최소 30분, 온라인 숙제라도 있는 날이면 40분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동생의 시간을 뺏어서라도 인터넷을 해야만 했다.

4학년 때부터 시작한 내 블로그를 꾸미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이다. 음악과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뮤직비디오나 내 소설, 동시 등을 올리는 재미로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날도 그 재미로 블로그를 열었다. 그런데 방명록에 왕눈이의 이름이 40여개나 적혀 있었다. 수상한 점은 그 친구가 쓴 댓글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하루에 수 십 번씩 들락날락 하면서 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왕눈이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세상에! 그 블로그에 올려진 글들이 대부분 내가 쓴 글이었다.

내 시, 소설, 학교과제로 낸 주장하는 글 등. 그대로 복사해 올리기도 하고, 어떤 글은 내 글의 일부분만 바꾸어 올린 것도 있었다. 친하지 않은 친구이기는 하지만 같은 반인 왕눈이에게 뒤통수를 한 방 세계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댓글을 남겼다.

“왕눈아, 우리가 평소에 친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글을 그대로 베껴 올리며 양심에 찔리지 않던? 엄연히 내가 쓴 글 인거 친한 친구들은 다 아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나는 왕눈이의 블로그부터 들어가 확인을 했다.

댓글엔 어떤 사과도 말도 없이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 것 없잖아.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어이없는 댓글에 헛웃음만 났다. 그 후로도 몇 번을 경고를 했지만 왕눈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 글들을 쓰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 어울리는 낱말을 찾고 적당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노력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내가 몇 시간에 걸쳐 쓴 글을, 왕눈이는 단 한순간에, 그러니까 단 2초 만에 쓴

것이다. 난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더욱 슬펐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난 나의 소중한 저작권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저작권은 내가 만들어낸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란 걸.

설명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많이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피니트를 비롯한 여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가사, 안무 영상, 동영상 등을 계속 스크랩 해가고, 복사도 하고…… 내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원작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앞으로는 다운을 받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보같이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왕눈이에게 따지기만 한 게 후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번 저작권 교육만큼은 제대로 듣고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맨 뒷줄에서 웃으면서 떠돌고 놀았을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자, 오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작권이 무엇이라고 했죠?”

난 그 순간 손을 번쩍 들어 선생님을 향해 바라보았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만든 이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 있게 포박포박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해주었다며 자그마한 사탕을 하나 주셨다. 난 사탕을 받은 것보다 내 스스로가 그 정답을 맞혔다는 그 자체가 뿌듯하고 대견했다. 사탕의 포장지를 뜯어 열른 내 입속에 쏙 넣었다. 그 어떤 사탕보다도 달콤했다. 작은 사탕 한 개가 커다란 행복을 주는 순간이었다.

약 1시간의 저작권 수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듣고 나니 왕눈이 생각이 났다.

‘왕눈이는 이 수업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

난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왕눈이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겠어.’

그 날 저녁, 동생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거짓말로 약 10분간의 시간을 더 얻었다. 동생에게는 미안했지만, 그 10분으로 나의 소중한 글들을 지킨다는 생각에 곧바로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썼다.

“왕눈아, 오늘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수업을 들었잖아. 넌 무엇을 느꼈니? 난 앞으로는 절대 남의 것을 베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뮤직비디오나 소설, 시, 가사, 등을 블로그에 올릴 때에도 그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어. 내 생각엔 넌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해 알지 못한 것 같아. 그 글이 재미있다고, 신기하다고, 새롭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 퍼가거나 스크랩해 내가 쓴 것처럼 만드는 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 글을 쓴 사람은 열

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니? 단순히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창작 의욕까지 빼앗는 행동이야. 우리가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그랬겠지만 너도 저작권을 이해하고 나면 소유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야.

저작권은 창작물의 보호막이래. 그 보호막은 창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뜨려선 안 돼. 저작권이 나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은 더 신나게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 앞으로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어떠한 창작물을 베껴서 너의 것처럼 만들거나 공짜라고 마음대로 다운받지는 말아줘.

왕눈아, 그럼 잘 부탁할게!!”

왕눈이에게 글로 내 생각을 전하고 나니, 한껏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앞으로는 왕눈이도, 나도,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다른 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권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말할까? 말까?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참고해도 됩니다.”

지난 6월에 ‘호국보훈 통일백일장’과 ‘독도바로알기’ 교내대회가 열렸다. 나와 내 주위 친구들은 독도에 관련된 포스터를 선택했고, 다들 열심히 생각하며 그리고 있었다. ‘그리기와 글짓기는 늘 즐겁고 신나는 일이야.’ 나 역시 최대한 내 생각을 표현해 가며 그렸다. 잠시 후 친구들이 하나둘씩 컴퓨터실로 갔다. ‘아! 참고하려고 그러겠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뭔가 좋지 않은 이 느낌, 우리 반 친구들을 의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컴퓨터실로 가보았다. 예감은 적중했다. 몇몇 친구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독도포스터를 베끼려 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나와 친한 친구가 인터넷에 검색된 다른 사람의 독도포스터를 열심히 베끼고 있었다. 그 친구는 그림과 문구를 다 베끼고 색깔 한 두 개 정도만 바꿔 칠했다.

그때 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래 ‘갈등!’ 갈등이 마구마구 샘솟았다. ‘이걸 어찌지. 선생님께 이르면 나는 고자질쟁이가 될 텐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친구가 베낀 포스터로 상까지 받게 된다면.....’ 아무리 나와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의 행동이 알뜰고 화도 났다. 친하다는 친구가 그러니 실망은 더욱 더 컸다.

이걸 선생님께 말할까? 말까?

그 당시에 마음은 좀 안 좋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 내가 그때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 친구에게 친구가 한 행동이 심각한 일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 주었을 텐데.

그 사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저작권,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배웠다. 이미 알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으나 대부분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이 더 많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으며, 나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참고’란 사전에 보니 살펴서 생각한다고 되어있다. 이 참고란 말로 인해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 몰랐던 나는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종알종알 얘기했다.

어머니께서는 저작권이란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난 주로 책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저작권의 범위는 너무나도 다양했다.

글, 그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로고, 연극, 무용, 건축물, 영상, 사진 등등 그 범

위가 정말로 다양했다.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권이라는데 쉽게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몇 개는 알쏭달쏭했다. 나는 선생님께서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 하실 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됐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더욱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겠지.’ 나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찾아 읽어 보았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학년별 필독서가 나오고 도서관을 다니며 재미있는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중에 저작권에 관련된 어린이용 책도 읽어보고, 어머니의 권유로 문화관광부 어린이 홈페이지에서 쉬운 저작권이야기를 보고 나니 이제 정말 쉽게 이해가 된다. 역시 사람은 배우고, 또 공부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나보다. 내가 가끔 어머니께 ‘몰라서 그랬어요.’ 하면 어머니께서는 ‘몰라서 한 행동이라도 한 일을 용서 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항상 배워야해’ 라고 하셨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얻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다양하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베끼는 일도 드물었고, 또 베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아주 많이 참고할 수 있고 나쁜 맘을 먹기가 더 쉽다. 생각해 보니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저작권처럼 우리가 또 지켜야하고 책임져야할 것도 많은 것 같다.

우리 주위에는 예전의 나처럼 저작권에 대해서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작권에 침해되는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만약 6월의 어느 날처럼 저렇게 갈등이 되는 상황이 오면 친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친구야!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게 된다면 수상이 취소 될 수도 있대. 그러니 참고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해내자.” 라고 말이다.

저작권은 소중해요!

♪ ♪ ♫딩동댕동♪ ♪ ♫

선생님 : 내일은 독후감 쓰기 대회가 있으니 모두들 생각해오세요. 수업 끝!”

반장 :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세라 : 민아야, 그런데 독후감이 뭐야?

민아 : 독후감은..... 나도 잘 모르겠어. 세라야 우리 집에 가서 독후감이 뭔지 찾아볼까? 그래, 좋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후)

민아 : 세라야! 내가 찾아봤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쓴 글이래. 근데 민아야. 나는 책읽는게 너무 싫어. 나도 책읽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한 번 볼까? 그래, 그래.
세라야, 우리 그냥 이 글 베껴서 쓰면 안 돼? 그럼 그럴까?

[다음 날 독후감 쓰기 대회]

세라 : 민아야, 어제 복사한 글 가지고 왔지? 응!

민아 : 응. 여기있어.

세라 : 고마워. (복사한 글을 원고지에 그대로 옮겨 적는다) 끝!!! 다 적었다!

[다음 날]

선생님 : 이제 우수자를 발표하겠다. 장려상 최민지, 이서운, 강하나

우수상 장지현, 이지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최우수상 박민아, 이세라!

모두들 이 7명에게 축하의 박수를!

♪ ♪ ♫딩동댕동♪ ♪ ♫

민아 : 세라야!! 나 기분이 완전 좋아.

세라 : (못마땅해하며)나의 것을 베껴서 최우수상 받은 건데 기분이 좋아?

민아 : 응...왜? 넌 어때? 기분 엄청좋지? 난 가서 엄마한테 자랑까지 할 거다!

세라 : 으응? 난 왠지 기분이 짹짹해.

[그 날 저녁]

지킴이 : 민아야, 민아야, 민아야! 안녕? 난 지킴이라고 해. 지금 네가 어떤 사고를
저지른 줄 아니? 너는 지금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어.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야.
민아야!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너희가 베낀 독후감의
저작자에게 용서를 빌어. 그리고 앞으로 절대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
알았지?

[다음 날 아침 등굣길]

민아 : 세라야! 어제 나 이상한 꿈 꿔어!

세라 : 뭔데? 무슨 꿈?

민아 : 글썄.. 말이야.... 지킴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대.

세라 : 근데, 저작권이 뭐야?

민아 :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했어.
우리가 그 저작권이라는 것을 침해했대. 지킴이가 오늘 학교에 독후감 베낀
사실을 말하래. 아 참! 그리고 저작자가? 하여튼 독후감을 쓴 주인에게
용서를 빌래.

[방과 후]

세라, 민아 :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 애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민아 : 저희가 독후감 쓰기 대회 때 다른 사람이 쓴 독후감을 베껴서 적었어요.

세라 :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저작자에게 바로 사과 할게요. 용서해주세요.

선생님 : 세라야, 민아야. 너희 저작권이 뭔지는 아니?

민아 : 네. 알아요.

세라 :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에요.

선생님 :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독후감을 베껴서 적었니?

민아 : 그땐 몰랐어요. 어젯 밤 꿈에서 지킴이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한 거예요.

선생님 : 아, 그랬구나? 이제라도 저작권에 대해서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너희가 일찍 말을 안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 이제부터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겠지? 이번 일이 너희에게는 큰 경험과 지식이 되겠구나.

민아야 세라야 앞으로는 저작권에 대해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렴. 그리고 만약, 저작물이 필요할 때에는 꼭 출처를 밝히거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된단다. 알겠지?

민아, 세라 : 네 알겠어요.

저작권법에 걸린 도둑

탁탁!

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더니 콧소리가 섞인 선생님 목소리가 내 귓 속에 박히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교내 독후감쓰기대회가 있어요. 주말을 이용해 글을 잘 써오도록 하세요. 원고지 8~10장 이내로 작성하여 다음주 화요일에 제출하도록 해요. 자세한 내용은 학급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요, 친구들."

그렇게 말하곤, 수업이 마쳐 함성지르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선생님은 종종걸음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글쓰기라면 자신 있었다. 유독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나는 교내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번에도 못할 거 없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떤 책을 주제로,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넣을 지 생각하였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벗어 던지고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작은 머릿 속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딱딱한 줄거리를 부드러운 내용으로 바꾸었고, 아름다운 표현을 써넣으며 시 같은 리듬으로 바꾸었다. 아름다운 나의 상상의 날개에 잠겨 나는 원고를 가득 채워 나갔다. 주말을 열심히 활용해 나를 환상적이고 완벽한 글을 완성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월요일이 되었다. 나는 내일 깜빡하고 원고지를 집에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 서랍에 둘 참으로 원고지를 손에 꼭 쥐고 학교로 향했다. 원고지를 서랍 안에 두었다. 나는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큰 상황에 빠지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친구들과 도란도란, 선생님과 종알종알, 즐겁게 공부하며 지내니 하루는 금방 지나갔다. 다음 날, 나는 비장한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했다. 선생님께서 말하셨다.

"자, 저번 주에 안내했던 교내 독후감쓰기대회 글을 거두겠습니다. 자, 모두 원고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아이들은 하나 둘 자신의 독후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나도 그런 아이들에 속하려 책상 서랍을 휘저었다. 어? 원고지가 없었다. 서랍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을 꺼내어 살살이 뒤져 보아도 원고지가 없었다. 어라? 선생님께서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이세민, 네 책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설마 원고를 가져오지 않은 건 아니지? 아니길 바란다."

나는 울컥하였다. 저도 몰라요! 제 원고가 어딘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울음이 터져버렸다. 선생님은 당황하여 괜찮다며 나를 다독여 주

졌다. 결국 그날은 지나갔고 그로부터 일주일의 휴식이 흘렀다. 학교 안에는 포스터가 붙었다.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 수상자 발표>>

최우수상 : 김종찬

우수상 : 000

금상 : 000

.....

포스터를 보던 난 눈이 휘둥그레 졌다. 김종찬? 김종찬은 이때까지 상 한번도, 아니 칭찬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이이다. 종찬이의 축구 코치님께 날쌔다며 칭찬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 글쓰기라면 유치원생보다 못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교장 선생님께 애걸복걸하여 종찬이의 원고를 손에 넣었다. 아니나다를까, 제목도 '황금 깃털', 내가 쓴 원고의 제목이었고 내용도 내가 적은 내용과 같았다. 나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결국 종찬이와 나는 교무실에 불려갔다. 교장선생님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김종찬 학생, 이 원고가 이세민 학생의 원고 맞습니까?"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않던 종찬이는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번 반복해서 물으시자 결국 입을 열었다.

"네."

그 종찬이의 짧은 말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다. 억울함에 옥죄어 오는 나를 풀어주었고, 최우수상 상장이 내 손에 쥐어지게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명예를 얻게 해 주었다. 나는 종찬이가 맞다고 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내심 놀랐다. 반에 돌아가자, 선생님께서 종찬이에게 말하셨다. "종찬아, 네가 한 행동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동이야. 조금 실망이구나."

종찬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저작권이 뭐예요?"

"저작권이란, 어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고, 저작권법이란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법이야. 너는 권리 승계인, 즉 세민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민이의 창작물을 훔쳐갔어. 따라서 너는 저작권법에 걸린 거야. 도둑이 된 셈이지."

선생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찬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잊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찬이가 나를 불렀다.

"이세민, 미안해."

그 말 한 마디로 인해 종찬이는 법에게, 그리고 나에게 용서받았다.

그 일을 계기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다.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이 내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권리 승계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란 다른 말로 '나의 불완전한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당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훼손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도 다짐했다. 푸른 하늘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작권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 몸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진솔입니다. 부모님께서 “너는 항상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며 지어주신 이름이죠.

저의 꿈은 작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글짓기 대회에서는 항상 제가 최우수상을 받고는 했지요. 주위의 어른들, 친척들, 선생님들은 줄곧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너의 글을 읽다보면 ‘이게 초등학생이 쓴거야?’하며 너의 표현에 놀라곤 한단다.”

“정말 글쓰기에 소질이 있구나!작가가 될거니?”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정말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달까?

어느날, 5교시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나와 집에 가는데, 2반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약간 들떴어요. 4학년 2반 선생님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저희 학교에서 국어와 관련된 토론, 글짓기 대회, 그런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맡으시거든요. 그리고 교외의 백일장 행사도 접수하시는 선생님이지요.

“진솔아. 이것 좀 볼래?”

선생님께서 종이 몇 장을 저에게 건네주고는 읽어보라 하셨어요.

『제 2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백일장』

역시나. 선생님께서 저를 전국백일장 대회에 나가게 하실 생각이셨던 것이죠.

“어때?너 실력이면 이 대회에서 충분히 상을 탈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을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종이에 눈을 돌렸습니다.

‘대상은 상금이 100만원이라고?’

저는 상금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국에서 하는 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원하던 MP3를 살 수 있는데……나가 볼까?’

“어때, 나가 볼 거니?”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물어보셨어요. 저는 MP3 플레이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대답했어요.

“네! 나가 볼래요!”

제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종이 한 장을 더 주셨어요.

“진솔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잘 들어야 된다.”

선생님은 종이에 써있는 ‘대회 유의사항’에 빨간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우선, 절대로 남의 글을 베껴쓰거나,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써서는 정말 안

돼. 이걸 자기 스스로 창작해서 나가는 대회거든. 절대로 남이 쓴 책을 따라 쓰거나, 한 부분이라도 따와서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진솔이는 진솔하니까 이걸 지킬 수 있지?”

“네!”

“그 다음에는…응모방법…”

선생님께서는 빨간펜으로 종이에 밑줄을 치고 별을 그리며 대회 유의사항과 요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집에 가서 글을 쓰고 싶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고, 추천서는 여기 선생님이 써 줬고, 이거, 신청서만 써서 내일까지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면 되. 자. 리플렛이랑 신청서 챙겨 가. 추천서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게.”

드디어 설명이 끝나고, 선생님께는 투명파일에 추천서와 리플렛, 안내종이 몇 장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지요.

“선생님, 안녕히계세요!”

집에 도착하자 마자, 저는 저녁 국거리를 준비하시는데 바쁜 엄마를 보냈어요.

“엄마!엄마!”

“왜 또? 엄마 국 끓여야 해.”

저는 선생님께서 파일에 넣어주신 종이들을 빼내며 부엌 식탁에 올려놓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부엌에서 뛰어다니며 ‘백일장,백일장’하고 노래를 불렀죠.

“선생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셨어요!”

“그래. 부엌에서 장난치지 마. 물 끓고 있어. 위험해. 다친다.”

엄마께서는 백일장대회고 뭐고 물 끓이고 있는데 뛰다가 제가 다치는 게 더 걱정되셨나 봐요. 저는 자랑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제는『하늘』이었어요. 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고민을 했지요.

원래는 글짓기 하라고 하면 영감이 막 떠올라서 술술 써졌는데…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대회여서 잘 써야 될 텐데…상금도 타서 MP3도 사고…’

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잘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 온 게 있었어요. 바로 『하늘나라의 계절』이었죠.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죠. 이 책의 작가님을 저의 롤모델로 삼기도 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끼지 말라고 했는데…그러면…조금만 내용을 고쳐쓰는 건 문제 없을거야. 표현도 가져다써야지. 아무도 모를거야. 내용도 조금은 바꿀거니까.’

저는 그 책을 펼쳐놓고 원고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의 것을 베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지자, 저는 그저 잘 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 썼다고. 완벽하다고. 분명 나는 대상을 받을 것이라고.

출품한지 2달 뒤, 저는 대상을 받았어요. 그 책은 방 안에 쭤 박혀 있었습니니다. 저는 그 책의 존재조차 잊고 수상의 기쁨에 겨워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방청소를 하다 『하늘나라의 계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가 볼까 폐휴지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걸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매일 부모님과 제가 경찰에 잡혀가는 악몽을 꾸게 되고,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이제서야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엄마께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고, 그 다음 날, 부모님과 저는 주최측과 심사위원, 『하늘나라의 계절』작가님에게 가서 잘못을 빌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작가선생님께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저작권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뜻에서든 남의 것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단다. 진솔이는 잘 몰랐으니까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시며 웃으셨어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베끼지 않고 당당한 제 작품을 써서 훌륭한 작가가 될게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세 살 저작권교육, 여든까지 간다!

‘저작권? 저작권이 뭐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저작권이라는 단어의 뜻조차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알려나가는 존재가 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사실 나는 작년에 저작권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때는 저작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저작권의 뜻만 조사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썼던 것 같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해서였는지 보기 좋게 떨어졌고, 난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저작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올해 봄, 학교 대표로 친구들과 함께 저작권 골든벨 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저작권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눈에는 친구들의 저작권 침해 행동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또래 친구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 유행인 카카오토리의 경우, 친구들이 자신의 스토리에 연예인 사진이나 인기 캐릭터 사진 등을 마구 마구 올리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친구들은 인기 캐릭터 사진들을 자신의 스토리에 올린 후 댓글을 달아주는 선착순 몇 명에게는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신의 친구관계를 늘려나가는 놀이도 하고 있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 사진을 갖고 싶어서 경쟁하듯 댓글을 달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의 출처가 궁금해서 처음 사진을 올렸던 친구에게 그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인터넷에서 캡처하거나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얻은 사진들이라고 했다. 그 어느 것도 본인이 직접 찍거나 만들어낸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친구에게 이건 저작권 침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지만 친구는 저작권이 뭐냐고 별 관심 없이 묻고는 남들도 다 하니깐 괜찮다고 하며 계속 불법으로 사진을 구해서 본인의 스토리에 올려 자랑도 하고, 친구들과 주고받기를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 황당한 싸움을 본 적도 있다. A가 멋진 글이나 참신한 설문조사 등을 직접 만들어서 공유하는 글로 올렸는데, 그 글이 인기 있는 공유 글이 되었다. 그 게 부러웠던 B는 그 글을 화면만 캡처 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글처럼 속인 후 자

신의 스토리에 다시 공유 글로 올린 것이다. 결국, 인기 있는 이 글은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되어버렸는데, 진짜 원작자인 A보다 가짜 원작자인 B의 공유 수가 훨씬 더 많아서 사람들은 B가 진짜 원작자라고 믿고, A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심한 악플을 달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이제 제법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들이 많아졌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토리 같은 모바일 앱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나는 무엇보다 초등 교과서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저작권의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뭔지도 모르고 저작권침해의 죄를 짓고 있는 내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습관처럼 저작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

만약 초등 교과서에서 정식 수업내용으로 저작권의 의미부터 구체적 내용까지 다루어 준다면, 적어도 몰라서 죄를 짓는 내 친구들은 없어질 것이다. 한 번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너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가르쳐주지 않은 어른들이 더 잘못된 것 아닐까?

한 가지 더!

이런 저작권 관련 대회가 더 많이 생겨서 나처럼 저작권에 관심 갖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릴 적부터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며 관심을 갖게 해준다면, 저작권 침해는 이 땅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작권을 지키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파이팅!!!

송이의 숙제

드디어 내일이면 여름방학이 끝입니다. 송이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방학이라고 실컷 논다고 글짓기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깜박 잊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아~ 어찌지? 내일까지 숙제를 다 할 수 있을까?' 송이는 방금 문구점에서 산 원고지를 들여다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에잇, 모르겠다. 일단 놀고 저녁 때 하지 뭐.' 송이는 전화기를 꺼내 친구 주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송인데,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송이는 주희가 놀러 오란 말에 신이 나서 주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송이 머릿속에는 글짓기 숙제 따위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주희와 방으로 들어가서 주희와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희 어머니께서 주희에게 신부름을 시키시자 주희는 송이에게 잠깐 심부름을 다녀온다며 혼자 기다리라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있던 송이는 문득 주희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원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다! 글짓기 숙제가 있었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졌습니다.

'주희가 쓴 숙제를 한번만 읽어볼까?' 송이의 귀에 북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서는 '안돼!'를 외쳤지만 송이의 손은 이미 주희의 원고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 읽은 송이의 손은 마구 흔들렸습니다. 송이는 서둘러 주희의 집을 나서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송이는 글짓기 숙제를 하려고 앉았지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주희의 글짓기 내용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따라서 쓸까?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히 보시진 않겠지?' 송이는 주희가 쓴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썼더니 순식간에 원고지 다섯장을 채워나갔습니다. '와~ 벌써 다 끝났네.' 숙제를 다 끝냈다는 개운함과 동시에 송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시큰시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학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다 떨기도 전에 선생님께서는 야속하게도 글짓기 숙제를 걷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짓기 숙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이걸 내도 될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내는 것 꼼꼼히 다 살펴보진 않으시겠지?'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숙제를 내밀었습니다. 숙제를 내지 않아서 벌을 받는 친구들을 보며 송이는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낸 송이는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고 무엇보다도 친한 친구인 주희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송이는 급식시간에 밥을 먹는둥 마는둥 하더니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5교시가 체육시간이라 아이들은 급식을 빨리 먹고 운동장으로 나간다고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곁으로 다가간 송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송이는 그제서야 어제있었던 모든 일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내내 눈물이 자꾸만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다가 송이 어깨를 감싸안아 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송이의 글이 주희의 글과 비슷해서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송이가 먼저 이야기 해주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송이가 용기있기 이야기해준 상으로 송이에게만 특별히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주셨습니다. 송이는 드디어 자신을 누르고 있던 짐을 벗어 던진듯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희와 선생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니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송이는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머릿속 생각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란다. 송이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선생님은 기쁘단다."

방학 숙제로 인해 하루동안 송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음속의 짐을 벗어던지게 된 송이는 한층 더 성숙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카피

보통 나는 주말에 컴퓨터에 앉아 있는 세 시간 중 두 시간을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그 소중한 두 시간에 결과는 댓글 두 개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친구 블로그는 나보다 조금 더 예쁘고 포스트가 조금 더 많은 것 뿐 인데 나보다 인기가 한참 많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별거 없어 그냥 다른 블로그에 있던 거 몰래 올리면 돼”

나는 조금 놀랐다.

“그런 거 불법 아니야?”

“괜찮아 나는 매일 그렇게 했는데 걸린 적 없어”

그래도 나는 조금 마음이 찢렸다. 그래도 내 블로그도 그 친구처럼 만들기 위해 다른 블로그의 사진을 몰래 가져왔다. 역시 가슴이 쿵쿵 찢렸다. 하지만 효과는 대단했다. 댓글 마흔 세 개 엄청났다. 이 기세로 조금만 가면 그 친구도 뛰어넘겠다.

다른 블로그에서 사진을 가져 온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내 블로그의 인기가 정말 쭉쭉 늘어났다. 이제 마음이 찢린 다는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포스트 중 댓글이 또 하나 생겼다. ‘이번엔 무슨 댓글이 생겼을까나?’라고 기대하며 그 댓글을 봤는데 가슴을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진 내가 찍은 사진 훔친 거 아님?”

나는 일단

“아닌데요, 잘못보신 듯”

이라고 하고는 일단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예전처럼 하면 블로그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 정말로 약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조금하다가 또 정보 도둑의 세계로 빠져 버리고 말았다.

결국 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다. 실수로 어떤 학교 친구의 블로그에 있던 사진을 가져와 버린 것이다. 그 친구는 댓글로

“야, 너 내꺼 훔쳤지. 너 이제 학교에서 죽었어.”

라고 했다. 나는 이제 정말 학교 가기가 싫어졌다. 어차피 가면 언어맞을 텐데 그래도 엄마가 가라고 구박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학교에 갔다.

내가 자리에 앉자 애들이 나를 가리키며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교실에 들어 온 애한테 또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너지 블로그에 있던 사진 훔친 도둑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친구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다시 보니 별 일 없이 교실의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블로그에 들어 가봤다. 그 친구가 남긴 악플과 무슨 일인지

묻는 친구들의 댓글이 전부였다. 나는 그냥 블로그의 글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옛날 블로그 생각이 났다. 옛날에는 댓글 수도 적고 인기도 없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과 지어낸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려 댓글이 하나 생길 때 마다 정말 미치도록 좋았다. 그리고 댓글은 적었지만 욕설과 비판하는 글은 없었다.

나는 다시 블로그를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도둑질 하지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 블로그에는 없는 나의 사진을 올렸다. 역시 포스트도 적고 댓글도 별로 없었다. 그래도 도둑질로 가짜 글을 쓰는 것 보다 더 뿌듯했다.

이제부터 나는 학교, 산책, 집 어디에서도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다. 놀거나 걸을 때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재미있거나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카메라로 찍거나 휴대폰에 메모해 둔다. 학교에서는 친구에게 사과를 하자.

“진작 그럴 것이지”

이라고 웃으며 넘어 가줬다.

나는 이번 경험으로 내가 재밌고 편하다고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가면 그 친구 처럼 손해 받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의 피해만이 아닌 그 피해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내가 혹시 걸리겠어?’ 라든지 ‘나만 하는 게 아닌데 뭐’ 라는 생각이 나를 망치고 잘못된 길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친다면 늦지 않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된다. 용서받기 어려운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를 올바르게 키워준 반갑지 않은 경험들을 조금은 고마워해야겠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이러다가 공항시간에 늦겠어요.”라며 엄마, 아빠의 몸을 힘껏 흔들었다.

오늘은 내가 손꼽아 기다리던 나의 첫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며칠전부터 나는 푸켓으로 날아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십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디게 가는 시계를 쳐다보며 지냈다.

그렇게 며칠을 설레임 속에 지내다가 드디어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우리 가족은 공항을 향해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넘는 비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아닌 낯선 다른 공항에 내려 “와, 엄마 여기가 푸켓이예요?” 하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푸켓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크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정감있게 느껴졌다.

내가 푸켓공항이 낯설지 않고, 정감있게 느껴진 이유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져 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가요가 흘러나온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지막하게 나의 귀에 아주 낮익은 멜로디가 들려왔다. 나는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 노래를 흥얼거리는지 알았다. “엄마, 그렇게 좋아요, 노래까지 부르세요?” 엄마는 “아니, 안 불렀는데.” “이노래는 공항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엄마 말씀에 다시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공항에 있는 상점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였다.

‘아! 너무나 익숙한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 그런데 정말 내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 가요가 푸켓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었다. 놀란 마음을 뒤로 한 채 입국심사대에 서서 내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서 심사대 앞에 섰는데 심사관이 나에게 영어로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물론 “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다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춤을 흉내내며 노래를 부르셨다. 우리 가족은 너무 놀라 심사관 아저씨를 보며 함께 큰 웃음을 지어보였다. 심사관 아저씨는 나에게 춤을 같이 추자며 손짓을 하셨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심사관 아저씨와 같이 짧게 춤을 추었고 아저씨는 나에게 잘했다고 인사도 해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일은 우리가 머물게 될 리조트에서도 일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나라 가요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두곡이 아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른 가요들이. 내가 며칠 전까지 집에서 들었던 노래들이 말이다. 아빠께서는 차를 마시면서 “우리나라 가요를 이렇게 틀면 안되는데.”하시면서 이권 저작권이 있는데 허락을 받고 트는건지, 아님 불법을 하는 건지 하시며 약간 언짢아 하셨다. 나도 엄마, 아빠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부터 들어서 저작권의 뜻과 의미에 대해

서는 알고 있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권 권리. 저작권은 문화, 영화, 예술 작품등 도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음악은 저작권료가 있어서 가수의 노래를 쓸 때에는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장기자랑 대회에 나갈 때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맹연습하니 너희들 그 노래로 춤까지 똑같이 추면서 대회에 나가려면 그 노래와 춤을 쓴다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블로그에 올린 음악을 마음껏 퍼가라고 파일 등록하는데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셨다. 음악을 만드는데는 가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등 한국을 위해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곡들을 마구자비로 블로그에 올리고 다운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점점 발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저작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솔직히 나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하나 때문에 큰 돈을 주고 음악 CD를 사는 것은 너무 낭비라는 생각을 한다. 여러 가수들의 노래들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데 비싼 CD를 사자니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나의 생각이 더 우리나라 대중예술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엄마가 따끔하게 충고해 주셨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저작권 위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하는 일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부터 고쳐야겠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하는건 괜찮고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속의 안일했던 생각부터 다 고쳐야겠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것은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우리나라 가수들의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가요를 들으면서 여기가 진짜 푸켓인가 싶을 정도였다. 내가 더 큰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저작권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그에 알맞은 댓가를 지불하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문화를 공부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문화예술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배우는 길은 나부터 저작권법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이용하는 것이며, 내가 먼저 실천하면 내 친구들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저작권법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는 것은 힘들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배워가면서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에 대해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께서 인터넷 저작권, 줄임말, 외계어, 악성댓글 등의 주제로 표어를 지어오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나는 인터넷에서 표어를 참고하여 짓기 위해 네이버에 검색을 했다. 여러 가지 표어가 나왔고 그 중 가장 맘에 드는 표어와 비슷하게 수정하여 학급 홈페이지에 올렸다. 학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표어를 어떻게 지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 내가 검색한 표어와 많이 비슷했다. 살펴보니 내가 본 게시물에서 본 것과 똑같은 표어였다.

며칠 후, 선생님은 학급 홈페이지에 올린 표어를 종이에 적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반이 적은 표어는 6학년 교실 복도에 붙였다. 친구들이 쓴 표어들을 구경하다가 내 친구 표어를 보고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너 네이버에서 복사했어?”

“응.”하며 말하였다.

복도를 보니 저작권에 대한 주제로 쓴 표어는 없었다. 우리는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Ctrl+C, Ctrl+V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진들도 인터넷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다. 분명 블로그에는 ‘무단 배포 금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출처도 밝히지 않고 마음대로 복사해서는 자신의 게시판에 자기 것인양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동영상을 볼 때 동영상 위에 닉네임이 적혀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적혀있는지 오빠에게 물어 보았다.

“오빠, 여기 왜 이렇게 적혀있어?”

“이거 자기 것이라고 증명하는 거야. 자기가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 동영상은 내꺼라고 증명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사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야.”라며 말해주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나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함부로 가져와 쓴 적이 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내꺼 보지도 못 할텐데.’

라는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져온다. 나는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범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어떤 형식이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이 보호된다. 우리 모두가 저작권 침

해를 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가 표시한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보고 판단하거나 배포 가능한 게시물을 사용한다. 우리 모두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그래서 게시물을 올릴 때 예는 꼭 누구의 저작물인지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힘쓰지 않을 것이고 우리 문화는 퇴색할 것이다. 우리 문화가 찬란히 꽃피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는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주는 공익광고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문화라는 꽃은 “예쁘다”, “잘 커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햇빛도 쬌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해야 노력의 결실이 맺힌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칭찬의 말과 햇빛과 물이 되어 우리 문화 꽃을 피워야한다.

우리 문화 꽃을 피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 ‘저작권 보호 센터’ 등을 열심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We are well aware of the need for copyright.’

우리는 저작권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저작권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학년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어플을 이용해 노래를 다운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들어보라고 블로그 등에 올리려는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한류’로 우리나라 드라마나 노래가 많이 수출되었었는데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불법DVD만 팔려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된 적도 있다. 저작권에 대해 배우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작권 책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서고,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올바른 다운로드처럼 창작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당당하고 올바른 다운로드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 공정 이용에 관한 계몽운동을 펼쳐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야한다. 예를 들자면, 저작권 포스터 그리기, TV광고 만들기, 저작권 만화 그리기, 어린이 신문에 기사 쓰기, 길에서 광고지 나눠주기, 저작권 노래 만들기, 표어 만들기 등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계몽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편집해서 사용 할 때 이용허락을 받은 후 사용한다. 영화를 볼 때에는 영화관에서 보거나 DVD를 빌려 본다. 사진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사진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저작권에 대해 잘 몰랐던 나도 이번 논술 대회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평소 책임기를 싫어하던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게 더 뿌듯한 것 같다. 저작권이란 말은 듣기만 했지 평소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하고 책을 읽어 보고 하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더 공부해 봐야겠다. 그리고 내 장래희망인 교사라는 꿈을 이뤄 내 제자들, 자녀들 모두에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문화의 꽃이 찬란하게 피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저작권이라는 것만 잘 지켜도 우리 문화의 꽃은 싱싱하게 찬란히 피워 미래에도 그 꽃은 영원히 죽지않고 필 것이다.

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학교에서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놀러가서 멋진 사진을 찍어오는 방학숙제가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들과 친척들이 단양에 1박 2일로 놀러 갔으니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나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그때 동생 얼굴과 다른 친척 아이들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많았다.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에 사진 파일을 옮겨 두었는데 동생이 그 사진들로 자신의 블로그를 꾸미고 있었다. 저녁에 동생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 자신의 얼굴만 나온 사진이 아니라, 내 얼굴과 다른 친척 동생 얼굴도 나온 사진들이 여럿 있었다. 댓글도 벌써 몇 개씩 달려있던 것이다. 나는 동생의 블로그를 돌아본 뒤, 갑자기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목소리를 높여 동생을 불렀다. 그러자 동생도 화난 나의 목소리를 들은 후 쿵쿵 다가오더니

“왜 불렀는데?”

“너는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찍은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는 건데. 빨리 이 포스트 지금 당장 지워!”

그런데 동생은 무시 하는 척 다시 돌아갔다. 나는 그 사진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동생만 나온 사진이라면 허락해 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진까지 다 가져가서 아예 맘이 틀어져 버렸다. 동생이 버티고 있어서 특별조치를 취했다. 일단 동생이 아이디어와 비번을 적어놓은 쪽지를 보고 접속해서 사진 속 친척 얼굴을 색칠하여 가렸다. 포스트를 삭제할까 하다가 그것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렇게 소동이 나서야 조금씩 안정이 되어서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동생한테 한마디를 했다.

“너 이제 남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내 사진 다시 올리지 마. 그리고 그때 내가 그린 그림도 허락도 안 받고 살짝 수정해서 이름만 바꿨잖아! 너 그렇게 내 것을 네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저번에 내 그림을 허락 없이 얼굴 그림만 수정해서 이름을 바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 생각이 기억났다. 그땐 너무 화가 나 내가 포스트를 삭제해 버렸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동생은 앞으로는 다시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 한동안 남매 사이는 토라지고 티격거려도 밝게 웃는 남매사이로 다시 돌아오며 더 가까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았았나 생각했다. 나도 그런 적 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남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도 못하고 만만한 동생에게 쓴소리만 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한 일을 되돌아 보았다.

학교에서 정보윤리학교를 하고 있어서 저작권에 대해 배우고는 있지만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저 베끼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공정하

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권리의 케익을 떼뚝하게 함께 먹는 것은 지혜도 필요하니 말이다. 항상 새로운 것은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탄생하는 일이 많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글과 사진 등을 적당한 정도에서 출처를 밝혀 허락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덕분에 학교 숙제를 할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도 저작권을 잘 지켰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출처도 밝히지 않고 내가 쓴 것처럼 숙제를 내서 잘못된 일이 많았고 단지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변명한다.

처음 저작권을 배울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아 놀라웠다. 내가 미술시간 때 그린 그림도 저작물이고, 하다못해 그림은 영 소질이 없는 동생이 그린 그림도 베끼지 않고 그리면 저작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가 하면, 몇 가지 약속만 지켜주면 자신이 애써 만든 것을 얼마든지 쓰라고 나누어주는 고마운 분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로 그런 ‘공정이용’ 약속을 지켜주는 일이 필요하다. 내가 힘들게 그린 그림인데 몰래 가져가 쓰면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들 것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동생이 내가 그린 그림을 자기 작품처럼 올릴 때, 아무리 동생이지만 나의 소중한 보물을 도둑맞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저작물을 함부로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 쓰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많이 화가 나는데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저작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작자들의 마음을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한 친구가 이런 적이 있었다. 내가 꾸밀 때 쓸 조각그림을 만들었는데 미술시간 때 한 친구가 내가 만든 그림을 따라한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따라한 그림을 보고

“우와~ 만든 것도 잘 만든데다가 모양들도 하나 같이 이쁘네.”

칭찬하셨다. 그 친구가

“아, 이 그림은 소희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고 거짓말에서 상처를 받았다. 한순간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다.

“너, 그런데 내가 이 그림 가르쳐 준 없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태연한 척 웃으면서

“이거? 네 그림 따라했을 뿐인데? 뭘 그래.”

나는 무척이나 속이 상하며 우울한 표정으로 화장실로 가서 울먹이며 혼잣말을 했다. “따라했을 뿐이라고? 그 짓이 얼마나 속상하게 만드는 건데, 따라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걱정을 하면서 ‘소희야, 따라 한 짓은 나쁜 거 맞아’, ‘따라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다니.’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같이 맞는 말 같았다.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일인지 경험하니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또한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했다. 내가 멋진 그림을 그린 저작자로 떼뚝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

이다.

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다.

나는 작년과 올해 2년 계속해서 친구들과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서 환경탐구대회를 나가고 있다.

작년에는 대회기간이 두 달이 채 안되어서 몇 번의 체험학습과 실험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갔고, 지도 선생님께서 보고서와 ucc를 거의 작성해 주셔서 별 어려움없이 대회를 잘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회는 작년에 비해서 주제 연구상 대회기간이 6개월이나 되고, 또 모든 규정들이 강화되었다.

가장 강력해진 규정은 온라인탐구활동을 하면서 절대로 인터넷이나 기사에서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지 말라는 것과 기사 역시 짜깁기를 하거나 그대로 올리면 감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에 위반이 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탐구활동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회에서는 온라인 활동비중이 매우 큰데, 거기에 사진게시판이나 자료실에 자료를 올리는 것은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아서 이것을 많이 올리려고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인터넷에는 대회와 관련된 자료와 사진들이 엄청 많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이 무엇이 어렵지?’ 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 직접 사진을 찍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고생이다. 직접 가야 하고,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사진이름을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이제 두 달 남은 대회는 결과물로 20장의 보고서와 5분 이내의 ucc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ucc에 넣을 바탕 음악은 저작권에서 자유롭거나 우리가 창작을 하여야 한다. 창작이라니. 팀원 중에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연주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잡음이 많다. 무슨 옛날 시대 녹음같이 영 어색한 것이 듣기가 불편하다. 그동안 클릭만 해서 아무 생각없이 자료들을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괴로운 줄 몰랐다.

그러면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음악을 골라야 하는데, 저작권에 자유로운 음악을 다운받아서 일일이 듣고, 편집하고자 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7곡 정도를 들었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

찾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렇게 힘들여 만든 음악을 공유한 가수와 작곡가가 정말 고마워진다.

얼마 전 교육원에서 자유내용으로 ucc를 만들어 오라는 과제가 있었다. 아무 생각없

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ucc를 만들고 있는데, 컴퓨터 옆을 지나가던 엄마가 그러면 저작권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잘못하면 내가 만든 ucc과제는 저작권 위배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시간상 다시 만들 수 없어 제출했지만 좀 당황스러웠다.

‘응? 이런 것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

네이버 국어사전에 ‘저작권’의 단어를 쳐보니 다음 글이 떴다.

문학, 예술, 학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과제에 인터넷 사진 20장은 사용한 것 같은데, 2장 빼고는 다 인터넷에서 퍼와서 내 것인양 만들었으니 내가 만든 것의 90%는 다른 사람의 노력물을 그냥 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지를 검색해 봐도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학교에서 늦어도 3학년때부터는 컴퓨터를 배우고, 핸드폰은 훨씬 일찍부터 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저작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도 없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이상, 일부러 위법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작권 교육이 학교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장미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사랑하는 토돌아♥, 너는 저작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거실에서 놀고 있는 토끼에게 질문을 했다. 토끼는 들은 채도 안하고 화분에 피어있는 장미 잎을 뜯어먹는다.

“나는 노력으로 생기는 땀방울이라고 생각해. 그 땀방울이 노력한 사람의 얼굴에 맺혔을 때 장미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너무 아름다워!”

토끼의 커다란 귀에다 대고 고함을 치듯 말했다. 토돌이는 깜짝 놀라듯 ‘강충강충’ 뛰면서 대답을 한다.

‘맞아, 맞아.’

어머니께서 백과사전을 주시며 찾아보라고 하셨다. 백과사전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아이와 물의 요정’ 책의 저작권이 궁금해졌다. 이 책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의 전래동화인데 함영연님이 우리 글로 다시 쓴 책이다.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함영연님 중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 좀 어렵다. 예쁜 장미꽃 잎을 뜯어먹고 있는 토돌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서 어머니께 여쭙어보았다.

“엄마 이 책의 저작권은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함영연님 중에 누구에게 있나요?”

그러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수돗물을 잠그시고 다가오셨다.

“나도 잘 모르겠는디? 찬영이는 누가 저작자라고 생각하니?”

어머니께서 도로 내게 물으셨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이야기를 지은사람들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구나, 하지만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말로만 전해오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없잖니? 우리말로 책으로 쓴 저작물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아하, 맞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에 들인 시간과 정성, 한편의 글을 쓰기위해 책상에 앉아서 내용을 고치고 또 고쳤을 함영연님, 필요한 자료도 찾아야 했고 좋은 단어를 찾기 위해 수도 없이 국어사전을 뒤적거렸을 함영연님에게 저작권이 주어지는 거구나.

어머니께서 정성을 들여서 피운 장미 꽃잎처럼 내가 쓰는 이 글짓기도 나의 정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은 내게 있다.

“야 토돌이 너 내길 베껴 쓰면 안 돼!”

누구에게나 재산은 소중하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열심히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샀는 아파트, 자동차는 부모님 노력의 결과를 보여준다. 시험성적이 내가 공부한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있다. '지적재산'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멜론을 이용해서 돈을 주고 다운을 받는다. 아빠께서 컴퓨터로 사용하시는 바둑놀이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시집과 소설책을 돈을 지불하고 주문을 하신다. 이런 사실은 모두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숙제로 저작권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했다. 저작권 침해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 저작물을 만들어서 저작권도 누리고 싶다

나모 모르게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

“이거 재밌다.”

내 방에서 장롱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내가 혼잣말을 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누른 후 이미지 저장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인터넷에 올라온 멋지고, 예쁜 사진들을 가질 수 있다. 난 이렇게 다운로드한 재미있는 사진들을 우울할 때, 짜증날 때 보고 기분을 풀고는 한다. 그렇게 지낸지 약 다섯달쯤 지났나? 우리학교가 저작권연구학교로 선정되었다. 덕분에 나는 저작권 연구학교 학생으로서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되었다. 저작권은 왜 지켜야하는지, 어떤 경우가 저작권침해인지 등의 저작권에 대하여 만화로 교육을 매주 가르쳐주었다. 그런 저작권 교육을 받던 중 나는 나 스스로 저작권을 침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던 중 다섯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저작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온 것이 생각났다. 순간적으로 내가 저작권침해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쿵쿵, 두근두근 거렸다. 그래서 지난 6월 저작권 골든벨 대회에 나가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에게 내가 할 일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물어보았다. 친구들은 저작권 관련 책을 보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끄덕이며 책을 훑어 보고 이렇게 이야기 해 주었다.

“야 내가 알기로는 그거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께 여쭙어 보는 것은 어때?.”

친구의 말에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로 그 생각과 말을 듣기 무섭게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내가 약 다섯 달 동안 사진을 다운로드 한 일을 다 차근차근 설명 드렸다. 선생님께서 일부는 저작권에 위배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해 주셨다.

“선생님~ 왜 일부는 위배되고, 일부는 위배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셨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중 저작자가 배포를 허락했을 때 그것은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작자에게 허락 받지 않는 사진이나 그림, 음악을 사용자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동이지요.”라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다운로드 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동 또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시며 또 다른 예를 들어 주셨다.

“먼저 저작권은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지, 쉬운 예로 우리 반 친구들이 만든 UCC나 내가 지은 시, 친구가 그린 만화 등을 만든 후 갖는 권리란다. 저작권의 종류도 소설이나 시, 무용 등 매우 다양하단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허락을 구한 후 저작권의 내용을 사용 하는데 이때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한단다. 물론 이 저작권 침해에도 저작권처럼 종류가 있단

다. 허락 없이 복제하여 쓰는 복제권,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배포권 등이 있다. 너무 어렵니?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위해 그런거란다. 네가 보호받는 만큼 너도 그 사람들의 권리를 소중히 대해주어야겠지? 저작권을 예방하는 법은 정품 사용하기, 창작물을 이용하고 자할 때는 허락 받기 등의 방법을 해야 한단다.어때 이제 알겠니?”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다. 아니 당연히 맞다. 나나, 다른 사람이나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막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한다. 나는 이 저작권에 대하여 하루동안 곰곰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은 아주 소중한 권리다. “

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블루투스로 서로 마구 바꿔 다운 받은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때는 그게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라면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단호하게 외칠 것이다.

“OO아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받지 말고 우리같이 정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같이 정품을 이용하자.”

라고 말해 주셨다.

남의 일로만 알았던 저작권 침해가 나의 일이라니,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니,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어린이 저작권 교실을 읽고

여름 방학 만들기 숙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로 했었다.무엇을 만들어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집 만들기를 하자고 하셨다.우리는 이틀 밤을 세어 가며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열심히 클레이와 타일로 지붕도 꾸미고 나무로 벽도 꾸미고 울타리도 만들고 하니 정말 근사했다.엄마께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사진을 찍어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셨다.개학을 하고 내 만들기 숙제는 최우수상을 받아 다른 반들 작품과 전시됐다.근데 내 집만들기랑 너무 비슷한 작품이 또 있었다.난 좀 비슷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 일은 잊어버렸었다.그런데 며칠후에 방과후에 집에 왔는데 엄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정말? 그럼 내 카카오스토리에서 보고 한거 같다고?그럼 저작권침해당한거야? 호호호"

하시며 조금있다 전화를 끊으셨다.나는 너무 궁금해 엄마께 무슨 말인지 여쭙봤다.우리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만들기를 다른 반 엄마가 보고 따라 만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그 말에 난 좀 화가 났다.내가 이틀 동안 밤새서 만든건데...따라 만들다니 ...그럼 그 때 본 비슷한 작품이 그거였나..하는 생각에 그 애가 얄미워졌다.그리고 저작권침해가 무엇인지 궁금해 여쭙봤다."음..좀 쉽게 설명해주자면 지금처럼 남이 만든 작품을 주인의 허락없이 베끼는 걸 말하는 거야.그걸 저작권법으로 정해서 어긴 사람은 처벌을 받기도 해"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사실..엄마도 다른 사람 블로그에서 집만들기 보고 만든거였거든. 그 사람이 알았다면 허락도 없이 따라 만든 우리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하시며 저작권에 대해 더 알아보자고 하셨다.

이 틀후에 택배로 책이 도착했고 엄마께서는 좀 어렵다고 내게 책을 읽어 주셨다.바로 "어린이 저작권교실"이라는 책이었다.그 책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독후감 숙제를 내 주셨는데 아이 세명이 인터넷을 보고 베꼈는데 셋이 다 똑같은 독후감을 베껴 선생님께 들통이나 저작권에 대한 수업을 듣는다.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고 빌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이런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지식재산권이다.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하이먼이라는 학생이 특허를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는 말에 나도 발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또 조지프라는 소년이 발명한 철조망도 처음엔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터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나는 또 한번 놀랐다.이런 특허권말고도 디자인권,실용실안권,상표권등 아직 1학년인 내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법들이 많았다.그리고 남들이 힘들게 만든 영화나 음악등도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으면 주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도 또 처벌과 피해보상까지 해야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사실 나도 핸드폰이 처음 생

겼을 때 엄마께 최신곡을 다운받아 달라고 무지 조른 적이 있었다.그 때 난 당연히 공짜로 다 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큰 죄를 지을 뻔 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이 책에서처럼 인터넷상의 예절,네티켓을 잘 지켜야 겠다고 책을 덮으면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우리 반도 저작권 수업을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려 볼 생각이다.이 책을 함께 읽으신 우리 엄마께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미술놀이를 해주실 때 남의 블로그에서 주인 허락없이 베끼지 않으실거라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다.

내일은 학교에 "어린이 저작권 교실"책을 가져가 짝꿍에게 빌려줘 봐야겠다.그리고 반 아이들도 모두 빌려줘야겠다. 그래서 나처럼 모르고 저작권침해를 당하거나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오늘부터, 나부터 저작권 지킴이

막상 저작권에 대한 글을 쓰려니 의외이게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저작권은 나의 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초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그날도 언니와 함께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없냐고 질문했어요. 친구가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이지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의 제목들을 불렀고, 다음날 자연스레 그 노래들은 언니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학교에서는 안된다고 배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저장된 노래들이니 신나게 들었어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가슴아파 할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일단 저는 저작권의 뜻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작권의 사전적 뜻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래요. 즉, 언니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것과 언니의 친구가 그 노래를 정식으로 다운로드 받았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건 간에, 언니의 친구가 언니에게 노래를 보내준 것은 불법, 저작권 침해라는 이야기가 되요.

우리는 평소에 학교에서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장을 보고도 저작권 침해라고 말리지 못했다니. 아니,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니. 어쩌면 제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안했기 때문에 법이 어겨지는 현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모른채 넘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저작권 침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이 없고 나의 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저작권 침해가 저작권자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작권자가 열심히 한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값을 매기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아니, 가슴이 아플까요? 이 글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열심히 쓴 글이 제가 썼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이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낄까요? 어쩌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 사람에게 따지려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제 글을 베껴 낸 작품이 대회에서 시상을 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할 것입니다. 막상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새삼 저작권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느껴져요. 또한 우리 생활과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이 비로소 느껴지네요. 그 사람의 노력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저작권 법. 어쩌면 우리는 저작권 법이 있기에 안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여 사람들 앞에 내보이고, 그로 인해 인정 받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정말 확실하게 저작권에 대하여 알았으니 저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언니, 언니가 저번에 친구한테서 받은 노래 있잖아, 그거 노래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라고. 언니, 앞으로는 우리 정식으로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게 어떨까? 그럼 우리는 듣는 내내 기분이 좋고 떳떳하지 않을까?" 어쩌면 한 사람 쯤이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 모두 '나 하나썸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면, 그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부터 저작권 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소하다고 느껴져서 상관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과연 그때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떳떳하냐, 비굴하냐의 차이이지요.

과연 내 것일까?

-창작가와 미래가 들려주는 저작권이야기-

1교시는 쉬는시간입니다. 서영이와 성현이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이야기를 하며 쉬는시간을 보냅니다.

“서영아~ 너 EXO 으르렁 폰에 있어? 있으면 어디서 다운받았어?”

“응- 그런데 넌 아직도 그 노래 다운 안 받았냐? 줘봐, 내가 다운 받아 줄게”

서영이는 빠른 손놀림으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성현이의 스마트폰에 다운 시키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건네줍니다.

“우와~ 서영아 너 블로그에서 다른 노래도 다운 받으면 안되냐?”

“그래~ 내 블로그에는 내가 신곡 다~업로드 시켰지!”

2,3,4교시가 지나고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서영이와 성현이는 밥을 빨리 먹고는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로 블로그를 꾸미거나, 가수의 사진을보며 아무렇지 않게 업로드를 시키며 점심시간을 보냅니다.

5교시 시간, 담임선생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저작권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우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필요없는 수업을 하시는 거야~!” 라고 둘은 중얼거렸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인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란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면 여러 처벌을 받기도 하지. 참, 그리고 영화,음악과 같은 여러 저작물들도 있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수업 끝.”

“아~ 드디어 끝났다. 서영아! 오늘 우리집에 내가 새로 나온 영화 다운받아 볼건데, 같이 갈래?”

“진짜! 당연하지~ 나도 저번에 무료로 영화 다운받아서 본 적있는데.. 혹시 너도? 히힛”

수업이 끝나고 서영이와 성현이는 사이좋게 성현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영화 말이야, 무료로 다운 받았단~!”

“진짜?! 나도 이 영화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나도 집에서 다운받아서 또 봐야지!”

둘은 함께 영화를 본 뒤 헤어졌습니다.

그 날 저녁, 성현이는 미술숙제를 한다고 유명한 만화가의 만화 캐릭터를 허락없이 내려 사용하였고, 서영이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찍은 멋진 사진을 자신이 찍은 사진 마냥,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영아~ 안녕? 우린 창작가와 미래야~ 우린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

왔어!”

“응?!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서영이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작이와 미래를 쳐다 보았습니다.

“넌 불법으로 너의 블로그에 노래를 업로드 시키고, 그 노래를 너의 친구 성현이에게 주었잖아. 그리고 아까 성현이네 집에서는 불법으로 같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았고, 방금 전에는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마구 가져다 썼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 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아니~ 그런 건 절대 안돼. 너 도대체 오늘 5교시 저작권수업을 할 때 뭘 들었니?... 휴.. 잘들어, 네가 좋아하는 EXO를 예로 들어볼게, EXO의 으르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작곡가, 작사자, 반주자, 연주가, 안무가, 프로듀서, 앨범디자인, 코러스, 뮤직비디오 감독 등 말이야. 그럼, 그 노래의 권리는 당연히 그 분들에게 있어. 그런데 그분들의 허락도 없이 네 것처럼 마음대로 가지는 것은, 너희들의 그 분들의 권리를 침해한거야.”

창작이가 말하자, 미래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런 분들도 직업이니. 다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무료로 퍼트리면,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신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가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나라가 문화식민지가 될 수 있어!”

“응? 문화식민지가 뭐야?” 서영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창작이와 미래를 쳐다보았습니다.

“문화식민지는 말이야,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의 권리를 무시해서 창작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작해내지 못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의 음악, 영화, 문학 등에까지 필요한 부분을 다 가져다가 쓴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밖에 즐길 것들이 없어지는 거지. 창작자를 권리를 무시하다보면 여러 가수나, 배우 등과 같은 사람들은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이익과 권리가 없어지니까, 활동을 그만 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들도 앞으로 못 볼 수도 있어”

“미래 말이 맞아”

서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 맞아, 저작권에 대해 더 알려줄까? 친구가 찍어준 내 사진의 저작권주인은 그 친구가 되는 거야.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저작권주인은 책을 만든 사람이지.”

“그리고 교실에서 내가 낭송한 시도 저작물이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이지 그러니까, 그런 저작물들에 권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것이야.” 창작이와 미래가 친절하게 저작권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너희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고마워~”

“괜찮아. 대신에 꼭 저작권법을 지켜줘 서영아~”

그 다음날 아침, 서영이는 성현이와 만나 학교를 갔습니다.

“서영아~ 나도 내 블로그에 어제 신곡 업로드 시켰다~!”라고 성현이나 신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안돼, 그거 지워! 그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 노래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그런걸 계속 하다보면, 우리나라가 문화식민지가 될 수 있어!”

“문화식민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영이는 어젯밤에 창작이와 미래와 했던 이야기들을 성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럼 우리끼리만 그런 말을 할게 아니라 우리반 친구들에게도 말해주자.”

“그래, 그거 참 좋은 방법이야.”

서영이와 성현이를 멀리서 바라보던 창작이와 미래가 해맑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현아, 나 이번에 느꼈어, ‘역지사지’란 사자성어를 생각해보니, 내가 만약 저작권 주인이라면, 자신이 힘들게 만든 걸 허락없이 사용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애. 나, 지금까지 저작권법위반을 해서 올렸던 모든 글이나 사진, 음악은 모두 삭제하고, 저작물을 사용할때면 저작권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할 거야.”

“나도 서영아! 창작이나 미래 덕분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 저작권이 곧 우리 미래인 것 같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작권법을 꼭 지키자!”

“빨리 가자! 1교시가 저작권 수업시간이야!”

숨겨진 사실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그럼 숙제하고 있을래?아니면 최상유형 어려운 거 풀래?"

"최상유형 풀래요."

나는 다른 학원 친구들보다 먼저 책을 다 푼다.그럴 때면 최상유형 책을 복사해서 푼다.나 뿐만이 아니다.다른 친구들이 책을 안 갖고 왔거나 빨리 풀면 수학책을 복사해서 준다.나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졌다.지금 학원 뿐만이 아니다.전에 다니던 영어학원과 수학학원도 책을 안 갖고 왔거나 빨리 했으면 책을 복사해서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그런 나는 최근에 학습지나 책을 복사해서 푸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학원들 중에서 아이들이 책을 먼저 다 풀었거나 안 가져왔을 때 책을 복사하는 학원이 대다수 일 것이다. 나는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한다거나 영화를 영화관에서 찍어 간다는 등 이런 기본적인 것만 저작권 침해인 줄 알았지,책을 함부로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학책을 복사해서 사용한 프린트는 다 불법이고 나는 저작권 침해를 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나의 장래희망은 대법관이다.법을 위반하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법관이 꿈인 나는 내가 불법으로 수학책을 복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저작권 침해란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인데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사람들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용하면 사람들이 창작물을 안 만들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수학책도 마찬가지이다.우리가 시험 때 힘들게 시험을 치듯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고생고생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가 복사를 해서 수학책을 이용하면 문제를 출제하고 출판한 사람들의 힘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특히,이 찌는 듯 한 더위에 송골송골 땀방울을 흘려 가며 열심히 수학책을 만드는 대신 사람들이 수학책을 사야 만든 사람도 이익을 얻는데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만든 사람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러면 사람들은 수학책을 포함해 모든 창작물들을 안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나는 학원에서 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12살의 나이에 깨달았다.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된 것이다.하지만 학원에서 책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아는 어린이들이 많을까?지금껏 학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수학책을 불법으로 복사를 해왔건만, 선생님께 "선생님, 책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서 복사하면 안 되는데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나는 5년동안 학원을 다녀왔지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책을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하긴 우리 또래 친구들이 책을 복사하는 것이 불법이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 리 없다.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나오긴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왔다. 우리들이 저작권에 더 잘 알기 위해서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말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속담도 있다.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저작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두면 저작권 침해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두면 송골송골 땀방울을 흘리며 수학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고 저작권 침해가 없는 나라, 창작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멋진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수학책을 복사하시는 학원 선생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생님, 수학책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예요!"

손 안대고 코 풀기

초등학교 시절, 부끄럽게도 나의 생활 신조는 ‘손 안대고 코 풀기’ 였다. 너무 무식해서 용감했던 행동들을 떠올려보면 그 때의 나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와도 같았다. 그래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그 당시 내 머릿속에 항상 드는 생각은 친구들이 모두 바보 같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이 너무나 똑똑한 거 같았다. 그 이유는 친구들은 학교 숙제가 나오면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끄끅거리면서 열심히 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데 말이다.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그리 고민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체험학습에 대한 숙제가 있다면 네이버에 수많은 사진과 자료가 있어서 Ctrl+C, Ctrl+V만 잘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미술숙제 중에서 집에서 그려오는 숙제 같은 경우에도 대상, 금상, 은상 등 수상작품들을 검색해서 한 두가지 모양을 바꾸고 색깔을 바꿔서 그리면 너무나도 그럴 듯하게 보였다. 과학 상상화 그리기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게으른 내 성격에 대회는 나갈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간혹 교과서 숙제 역시 많은 자료 중에 베껴 비슷하게 쓰면 시간도 줄이고 숙제도 빨리해서 실컷 놀 수도 있는데 친구들은 그것도 몰랐나 보다. 또 모둠별 과제 발표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숙제 같은 경우도 이 모둠, 저 모둠이 열심히 한 것을 적당히 섞어서 만들면 된다. 모든 것이 간단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폰 세상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때에도 굳이 돈 들이지 않고 예쁜 사진이나 그림들이 공짜로 돌아다니는 것이 있으면 주워 담으면 되었다. 그런 그림들이 어떻게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때는 누구나가 그렇게 했었다. 또한 인터넷 세상에서는 문화생활도 공짜로 즐길 수 있었다.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고, 음악도 무한대로 들을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내 것이었다. 게다가 남의 아이디어도 조금만 바꾸어서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다. 왜 사람들은 힘들게 몇 달, 몇 년씩 고생하며 아이디어를 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천재가 아닌가 싶었다. 친구들이 몇 일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과제를 낼 때 나는 30분 만에 해치우고 게임을 실컷 할 수가 있었다. 정말 신났고 행복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년이 흐른 지금의 나는 그렇게 보낸 어린 시절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빈 껍데기로 살았던 것이다.

아름다운 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잔머리만 굴려서 한 순간 한 순간을 보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던 거 같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나는 도덕심도 양심도 그리고 배려도 없는 철부지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고 내가 바보였었다. 글쓰기에도 그림에도 일기 속에도 나는 없었다. 내 과제물에는 나의 땀도, 노력도, 양심도, 영혼도 없었으며 선생님께 의미 없는 껍데기만을 드렸던 것이다. 나와는 반대로 친구들은 비록 잔잔한 속제이지만 그 과제 속에 자신을 담고자 땀을 흘렸고, 거기에는 노력과 정직과 양심을 담아서 숙제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지만 아주 작은 그림, 글들에게는 주인이 있었으며, 그 주인의 영혼과 정신이 담겨있음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들의 소중한 작품을 나는 양심도 없이 내 맘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저작권이 너무나도 잘 지켜지는 지금 현재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0년 전의 나의 행동은 범죄와도 같은 행동이다. 지금은 작은 창작물 하나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저작권이 이제는 완성이 되어서 싸움도 없어지고 죄 짓는 일도 없어졌다.

언젠가 TV에서 들었던 내용이 기억난다. 우리가 도덕심과 양심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면 법 조항의 개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20년 전 시절 그 당시에 남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서로 보호해주며 배려했더라면 ‘저작권’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양심’ 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동물에게는 없는 그 소중한 선물을 잘 간직하여 참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지켜 나가길 나는 바래본다.

책의 향기를 찾아서

요즘 전자책을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책의 부피와 가격에 짓눌려 왔던 독자들이 하나의 저장소에 여러 권의 책을 넣어 간편하게 휴대도 가능하고 종이 책의 가격보다는 부담이 덜 되는 디지털의 세계로 입장하고 있다. 간편하게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책으로의 여행은 많은 사람을 탑승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문제점도 많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역사 숙제의 참고도서를 대여하였다. 전자책 부모님이 전자도서를 대여하여 읽는 것은 많이 보았으나 내가 필요로 해서 이런 책을 대여해 보기는 처음 이었다. 처음 접하는 전자책은 나에게 충격이었으나 새 책 냄새가 너무 좋은 나에게서는 책의 향기가 없는 전자책이 조금 아쉽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너무 좋았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전자책. 하나의 신기루였다. 그러면서 전자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참 이상적인 프로젝트이다.

2011년 출판사와의 합의는 끝이 났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출판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글이 공공도서관은 아니다. 그렇다고 교육적인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도 아니다. 전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곳에서 전 세계의 도서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료화해서 넣고 그것을 대여를 한다면 이것은 공공연한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로 쏟아지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제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개발자들을 무력화 시켜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글 쓰고 교정하고 해서 나온 정성이 들여진 출판물까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만들어 작가나 연구자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는 없다. 전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작은 권리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라나는 청소년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소중한 창작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져야 한다. 공정이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구글은 그 많은 책을 자료화하여 무료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여 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즐겨 다니는 도서관은 분명히 공정이용이고 무료이다. 전자책을 대여하여도 하나의 광고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러한 전자책처럼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한 책을 대여해 볼 수 있는 그림. 참 꿈같은 일인데 구글이 실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된 일이라면 구글의 손을 번쩍 들어 주고 박수갈채도 보내지만 구글은 영리기업이다. 이런 구글이 무료도서관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독자들은 구글의 대여료까지 책의 가격에 지불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저작권을 존중한다면 그 저작권이 왜 생기게 되었는

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50년의 세월이 지나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책, 차라리 구글은 이렇게 저작권이 충분히 지급되어진 책만을 모아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도 전 인류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창작의 능력은 따라온다.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아주머니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간다. 심지어 같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도 각 집마다 맛이 다르다. 이 모든 것에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서로 다른 맛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 식당의 밥 한 그릇에는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와 편안함을 주는 것들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평등하지 못한 사회보다는 상식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부터 저작권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상식은 커서도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바른 상식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여도 그 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불법복제물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좀 더 당당하다. 자녀 앞에서 당당한 부모는 사회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든다. 저작권의 인정은 나중에 사회에서 내 자녀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진다.

저, 여기있어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장발장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고, 그로 인해 오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물건이나 돈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린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수 많은 법 중에서 가장 간과시되면서 생활 속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이 있다. 바로 저작권법이다.

우리는 책을 사서 읽고 노래를 다운받아 듣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이 저작자가 책이나 음악, 영화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을 인정하고 그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주는 권리를 바로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이 저작권법인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법’이라하면 우선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할머니는 잘못된 것이 없어도 경찰서만 지나시면 괜히 무섭고 떨리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법’이란 크고 무서운 존재로 자리하고 있나보다. 그런데 여러 법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면서 또 전혀 주저 없이 어기는 법이 저작권법이 아닐까 한다.

정보화시대를 연 인터넷은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참 편리하다. 숙제나 자료를 찾을 때 우선 인터넷을 참고해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베껴 써 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 내용이나 신문기사, 그림이나 사진, 음악 등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저작권법을 쉽게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기면서 저작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마구 침해당하고 있다. 아이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절대로 건너면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아 내는 어른들의 교통교육은 참으로 엄하고 철저하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들에게 책, 음악 등의 창작물에도 신호등이 있으니 올바른 절차를 거쳐 알맞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법교육은 너무나 느슨한 것 같다.

얼마 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친구 MP3에서 복사해 몇 곡을 가져왔었다. 내가 필요한 음악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구입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주위에서 가장 쉽게 친구들끼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연히 이를 아시고 인터넷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해 주셨다. 처음이라 조금 복잡하게도 여겨졌지만 왠지 내가 인터넷에서 신호등을 잘 지킨듯 하여 마음이 가벼웠다.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베끼고, 영화나 음악, 휴대폰 벨소리를 다운받고, 게임을 복사하는 등 무심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우리는 이렇게 침해

하고 있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 몇 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너무나도 느슨하고 나태한 생각들은 얼마나 창작물의 권리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인가.

현대는 바야흐로 정보화시대로 더 많은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저작물의 홍수 속에서 우린 살아갈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말 속담이 있다.

그것의 소중함과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느끼고 늦게 조심한다는 말로 위험수위에 처한 우리의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다. 꼭 물건이나 금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끼거나 함부로 쓰는 것도 바로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범국민적 올바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법’의 개념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는 많은 법 중에서 저작권법만큼 경시되면서 많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어기고 있는 법이 없을 것이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을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에 대한 존재를 우리 모두 일깨우고 그것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삼성과 애플사의 디자인권 문제로 시작된 법정 소송은 아직까지도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창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숨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만화, 영화, 음악, 그리고 그 밖의 예술적 창작물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제 3의 산업이 될 수 있다.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만들어 수출해 수 조원의 국가적 이익을 남기고 영화, 음악 등도 상상을 초월한 숫자로 국가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 얼마 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싸이의 춤과 음악이 그 해답을 말해준다.

이렇듯 문화산업이 튼튼한 국내 성장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면 창작물이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바른 절차와 비용을 치르고 창작물을 사서 써야하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생각 말이다.

오늘부터 나도 길을 건널 때만 신호등을 지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만화, 음악 등을 이용할 때 일단 기다리고 질서를 지켜 ‘저작권법’에 신호등을 달아주어야겠다. 무엇인가 만들어 내고 새롭게 생각해 내는 창조의 과정이 ‘저작권법’에 의해 당당히 보호받고 더욱 가치 있는 일로 모두에게 인식되어 이제는 녹색불로 켜지길 기대해 본다.

죽어가는 멋쟁이 달팽이

멋쟁이 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멋진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달팽이는 그저 메마르고 작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살아가던 달팽이는 1957년에 멋진 등껍질을 가지게 되었다. 등껍질을 가지게 된 달팽이는 점차 성장하는가 싶더니 현재는 껍데기를 가지기 전보다 더욱 메마른 몸을 지니고 있다. 벌써 알아차렸겠지만 등껍질만 멋진 이 달팽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이다. 멋진 등껍질은 저작권법이고 작은 몸집은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저작권법을 지키는 태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문제점과 방안을 잘 파악하면 충분히 건강한 미래, 즉 튼튼한 달팽이의 몸을 되찾을 수 있다.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처럼 달팽이를 튼튼히 하려면 먼저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창작하고 고안한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을 지키면 배타적인 장점으로 문화와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은 신뢰와 양심이 바탕이 된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자가 대중을 신뢰하지 못하면 저작물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대중의 양심이 없다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저작권 건물의 바탕, 즉 우리나라의 서로에 대한 양심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양심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왜 흔들리는 것일까? 정답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허락 없이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다. 내가 몇 년을 공들여서 힘들게 만든 영화나 음악을 정작 사람들은 몇 초도 안되어 불법다운로드를 통하여 공짜로 다운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이다. 열심히 만든 창작물을 요금을 내지 않고 다운 받으면 저작자의 생계 유지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작자는 더 이상 쓸모 없는 창작물 만들기를 중단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쇠퇴의 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불법다운로드 건수가 증가할수록 저작자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롭고 창조적인 산출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감소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문화 발전은 더디어지고 문화 수준도 세계 속의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지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만약 불법다운로드 건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은 드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을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저작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을 알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과 저작권을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민들이다.

저작권을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주민센터에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저작권에 대한 강연을 여는 방법도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저작권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식을 심어준다면 그 효과는 성인이 되어 교육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다음으로 2번째 범주, 즉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발적인 방법과 강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행위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여 강제적으로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나날이 건강을 잃어가는 우리의 달팽이,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우리의 달팽이를 다시 건강하게 키우고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도움과 실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작권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뀐다면 죽어가던 달팽이가 멋지고 단단한 껍데기의 도움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달팽이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달팽이의 건강을 위해 파이팅하자.

경험으로 느낀 것

막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했을 무렵 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게임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포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재밌는 게임 추천' 으로 검색해 웹서핑을 하여 온갖 게임들을 다 즐겨보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검색하다가 발견한 블로그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라와있던 플래시게임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비슷한 게임들에 지루해하던 나에게 정말 새로운 게임이었다. 나는 혼자서만 이런 새로운 게임을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하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당장 게임을 내 블로그에 퍼오고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때부터 숙제를 마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블로그에 접속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기록경쟁도 하고 팁도 공유하며 지냈다. 그 날도 숙제를 끝내자마자 블로그에 접속해 게임을 하려니까 못 보던 댓글이 달려있었다. '어? 이게 뭐지?' 하며 댓글을 열었더니 욕설과 함께 대뜸 고소하겠다는 글이 보였다. 그때부터 심장이 좀 빠르게 뛰는 것을 애써 아무것도 아닌 척 무시하며 설마 하고 메일도 확인 했다. 메일에는 역시나 내가 아무런 말없이 게임을 퍼갔다면 고소하겠다는 글이 보였다. 메일에는 블로그 캡처본도 증거라며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쿵쿵뛰던 내 심장이 갑자기 텅 하면서 내려앉는 것 같다가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이 급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제의 게임을 지웠다. 그리고 급하게 함께 퍼왔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다른 친구들도 고소하겠다는 댓글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보기로 상의했다. 친구들과 며칠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방안도 떠오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도 초조해져 갔다. 그런데 댓글의 블로거가 사실은 플래시 게임의 원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블로거는 상습적으로 원작자를 사칭하여 저작권법에 대해 무지한 청소년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굉장히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지금까지 무거운 마음에 짓눌려 고민하던 시간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이 블로거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지만,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저작물을 접하고 있다. 학교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시 같은 것 에서 시작해서 신나는 음악과 연극, 영화, 주말마다 보는 예능프로그램까지, 우리 주변에서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저작물속에서 우리가 과연 저작권이란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저작권이란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해낸 저작물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들어낸 것 에 대하여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라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창작자의 의욕을 반감시키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내가 애써 만들어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해대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창작자의 의욕이 꺾이고 더 이상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문제다. 우리의 문화는 더욱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지키기 위해 노력할까. 내가 저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저작권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이다. 요즘 저작권법 위반사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가 대부분이다. 나는 비록 가슴 철렁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어도 '설마 걸릴까' 나 '어차피 남들도 다 하는데' 같은 마음도 문제다. 이처럼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상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키려면 일단 저작권에 대해 알아야한다. 하지만 '저작권' 이란 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이다.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하기에는 저작권이란 게 너무 어렵고 방대했다. 인터넷 사용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지금, 저작권 또한 수준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야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저작권과 저작물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려서부터 저작권의 개념을 알고 중요성을 아는 것이 올바른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교육도 좀 더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가까이서 접하는 소재로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저작권보호에 참여하고,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한 줄의 힘

나에게는 원칙이 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나의 숙제를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내가 밤을 새가며 준비한 나의 과제들이 아이들의 부탁으로 공유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원칙을 아는 친구들은 아예 나에게 숙제 좀 빌려달라든가, 책의 필기를 보여달라는 부탁은 안 한 지 오래이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사를 와서 친구가 적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고민 끝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빌려주었던 적도 있었으나 늘 후회했었다. 그 후 나는 소신대로 친구들의 숙제 부탁에 고민 없이 편하게 거절하며 평탄한 학교 생활을 해 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나의 원칙이 나의 학교생활을 꽤나 편하게 해준 것 같아 뿌듯하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과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전원을 켜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번 과제의 주제를 검색 창에 입력했다. 한참을 둘러 보다 좋은 자료들을 복사해서 짜깁기를 했다. 복사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심지어 화면 자체를 복사해서 활용했다. 그 완성된 나의 과제를 보며 흐뭇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나의 과제와 필기는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복사를 허용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다.

알고 보면 나는 저작권을 침해한 셈이었다. 남의 노력이 담긴 저작물을 복사해 가서 나의 과제물을 완성하고는, 남에게는 나의 노력이 담겼다고 하며, 나의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셈이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부끄러웠다. 내가 한 일, 해왔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후회와 함께 찾아온 것은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었다. 평소에 나는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p2p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다운받았고, 게임들도 다운받아 즐기고 있었다. 그저 다른 아이에게도 나와 비슷한 사고가 만연해 있었기에 내가 한 일들이 그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몰랐다. 오히려 몇몇 아이들이 불법행위가 아니냐고 했을 때, 걸리지 않는다고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영화, 게임, 소설 등은 대부분 제작자들의 혼이 담긴 창작물이다. 우리가 그들의 창작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제작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일이 곧 저작권을 지켜주는 일이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직접 보고, 음원을 정품으로 구입하며, 책을 직접 사서 읽는 소소한 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집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

는 것보다 직접 구매처에서 구매하여 이용하는 것이 창작자들을 향한 예의이며,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본적 문화소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료들을 과제물에 활용하고 싶다면, 창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한 줄로 가볍게 출처를 적어야 할 것이다. 출처를 적어둔 우리의 한 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 청소년들이 보다 늘어나,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을, 감동을, 희열을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적어도 내 주변 친구들은 그런 것 같다. 창작자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맺은 결실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나 또한 그간 모르고 지내왔지만, 알게 된 이상 이제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이 보는 영화가 만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 주고 싶다.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또는 연예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지금, 본국에서 자신들의 연예인을 좋아하면서도, 그들의 노력을 무료로 얻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 ‘공유’는 현대 사회의 핵심이다. 인터넷이란 거대한 매체를 통해 전세계인이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알려주듯, 그 공유가 타인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더 쉬운 환경이 갖춰진 만큼, 우리 모두 건전한 공유문화를 가지고, 바른 네티켓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창조의 미래

머리를 뽕뽕 싸매고 열심히 고민하여 드디어 글을 완성하고 내심 뿌듯해 한 적이 있는가? 몇 시간을 정성을 들여 꼼꼼히 그린 그림을 오래 보관해 둔 적이 있는가? 손을 다치거나 더럽혀 가면서 힘들게 만들기 작품을 완성한 후에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꽤 만족스러워 한 적이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 보았을 거라고 짐작한다.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 낸 결과물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해서 쓴 글을 누군가가 베껴 낸다면, 혹은 공들여 완성한 그림을 누군가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낸다면,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화가 날 것이다. 이런 경우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누군가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저작권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여 글을 쓰고 올리거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올리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이나 그림을 올리는 일이 쉬운 만큼 올려진 게시물을 복사하는 방법도 무척 쉽다.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 게시물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클릭 한 번으로 인해서 출처도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한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안타깝다.

내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일이다. 나는 자유롭게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나는 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열심히 독후감을 썼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내가 쓴 독후감을 올렸다. 다음에 그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다른 사람이 쓴 독후감을 볼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사람이 쓴 독후감을 구경하다가 내가 올렸던 독후감과 같은 책을 읽고 쓴 독후감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그 제목을 클릭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독후감은 바로 내가 쓴 독후감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었다. 내가 올린 것은 따로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내가 힘들게 쓴 독후감을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올린 것이었다. 그 누군가가 나의 수고와 노력을 빼앗아 간 것이었다.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 보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 그림,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당혹감이나 억울함을 보상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심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마우스를 클릭하여 음악과 영상물들을 내려 받

는다. 하다못해 학교의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출처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일은 아예 생략해 버리고 또한 ‘그래야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조차 못한다.

한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들은 진솔한 글로 표현된다. 화려하거나 혹은 신비롭거나 박진감 넘치는 영상물로 표현된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감미로운 선율이나 흥이 넘치는 소리로 표현되어 우리 가까이에 머무른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클릭 한번으로 깨알같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의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물적 재산이 아닌 지적 재산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의 뒷면에 남에게 침해할 당할 수도, 내가 남의 것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행복과 기쁨, 편리함을 주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그 결과물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만큼 이 사회는 더욱 발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지적 재산의 소유물들을 쉽게 도난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뭐든 빨리 빨리 쉽게 쉽게’를 외치는 요즘의 세태 속에 진정한 창조는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한 발짝 쉬어가며 숨을 고르는 자세 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얻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개개인의 지적 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임을 깨달아야겠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지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사회라 불리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사용에 능숙하고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 활용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의 특권인 지식이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것이 아닌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지식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전달되며, 소비되고, 변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누구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팔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저작권법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저작물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당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인 것이다.

저작권은 취득하는 것 보다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무료로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최신영화를 인터넷으로 보며 최신 베스트셀러 책을 전자책 파일로 스캔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보기도 한다. 또한 몇 달 전에는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 방송매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저작권 침해 사례는 개인뿐 만이 아니다. 방송사가 유명 연예인의 촬영 영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소송한 사례, 2004년 구글이 수천만 권에 이르는 책을 웹에 업로드 하여 전 세계의 구글 사용자들이 이들 책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작가와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하자 이에 구글은 이들 책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법적 다툼이 된 사례, 작곡가들이 라디오 방송국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 저작권법에 관계된 문제는 개인, 단체, 기업 등 너무나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생기기도 하고, 미디어의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런 분쟁의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저작물의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컴퓨터 화면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는 불법 복사인지 아닌지의 애매한 사항처럼 저작권법을 해석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허락을 받아내는 절차에 있어서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이 국제적인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반대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저작물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 침해의 정도 혹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직접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작가, 작곡가, 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도면설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창조해낸 저작물, 그리고 이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자하는 출판사, 영화사, 음반사, 소프트 회사, 기업체, 또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달라진 상황에 맞게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의 저작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나 역시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자의 권리를 빼앗게 되고,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며, 좋은 창작물을 많이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이론만 배워 알고 있을 뿐이지, 정말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내가 좋아하던 영화, mp3에 저장되어있는 200곡에 가까운 노래들, 흔한 ‘퍼가요’라는 말로 복사했던 많은 파일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들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 관련 책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도 했다. 가장 기본적인 해답은 개인이 만든 창작물은 꼭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이전에 이것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확인하는 작은 수고를 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실제 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에 관한 글을 쓰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 고통으로 창조해낸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치

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며 비도덕적인 일인지 다시 한 번 마음으로 느끼며 아는 만큼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마음을 견뎌내고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인 저작물을 잘 보호한다면 우리나라는 문화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

저작권.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이란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퍼서 카페에 올리는 것,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작문을 베껴서 과제를 해결하는 것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지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조차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순간 뜨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확실한 저작권 침해와 달리, 아주 애매한 저작권 침해들이 있다.

다음의 저작권 분쟁의 사례를 한번 보자. 영화『왕의 남자』는 영화의 한 대사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 영화가 상영되지 못할 뻔 했는데, 흔한 대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정말로 결정하기 힘든 딜레마 현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만큼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을 알아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의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링크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알아보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링크를 건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link), 프레임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분류된다고 한다.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라 한다.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링크도 이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구석이 있으므로 역시 링크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인 좋은 방법인 듯하다. 정확하지 않은 기준의 링크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만화와 같은 저작물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스캔해서 올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보고 싶은 만화들이 있으면 무료로 다운을 받거나 스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만화와 같은 것도 엄연한 저작물인데 우리가 만화를 스캔해서 사람들이 만화를 사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당연히 그 만화가는 쫓딱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웹문서에서 만화를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함부로 스캔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만화와 같은 저작물은 우리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셋째,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껴 쓰지 않는다. 물론, 너무 당연한 것이다. 양심적으로 숙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숙제를 매일 해결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남의 숙제나 보고서를 베끼는 것.'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의 숙제나 보고서(글짓기 보고서)도 엄연한 저작물이다. 막말로 글짓기 숙제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끼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저작물이다. 그런데 글짓기에는 '내 생각은 ~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인 것이다. 이런 점을 착각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 말고도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학생으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라도 우리의 저작권 보호운동이 확산되면 우리나라는 문화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만화 등을 창작해 낼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사회에서는 너, 나,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많이 당황하셨어요?

나는 요즘 청소년처럼 가요를 사랑하고 인기있는 웹툰도 많이 좋아한다. 대부분에 중학생이 그렇겠지만 나와 친구들은 모이면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다. 전날한 드라마 이야기, 최근에 컴백한 가수들의 이야기 등등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모자라 헤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모바일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이렇듯 내 주변에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있다. 엄마는 가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원하는 노래를 듣고 싶으면 핸드폰을 바로 바로 받아볼 수 도 있고, 궁금한 내용도 지식사이트를 통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니? 엄마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레코드가게에 가서 테이프나 CD를 사야했고 이걸 듣기 위해서는 카세트나 CD플레이어가 있어야 했단다. 그뿐인가? 궁금한 것들은 사전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가야했던 시절이 있었어."라고 말하셨다. 귀찮은 것들이 편해진 세상 살아가는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친구들과 토론주제를 정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다. 근데 점점 내가 무심코 맘대로 캡처하고 사용하고 친구들과 공유했던 것들이 무의식중에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많이 조심스러워졌다. 저작권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면 투정을 부리는 친구를 보면서 "야~ 웹툰을 누가 돈주고 사서보냐? 그냥 다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봐주면 않으면 웹툰작가도 없어질걸?"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난 내가 웹툰작가로 빙의되어 "그럼 네가 웹툰 작가야.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주변 배경을 스케치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허락도 없이 맘대로 내가 가져가서 내꺼 라고 우기거나 내 맘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면 너는 어떨 것 같아?"라고 말하자 친구는 "그건... 그건.... 안되지..."라고 말하면 머쓱해 했다. 잠시 침묵이 오가고 서로 눈치를 보던 친구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분위기를 바꾸어 보았다. 잠시 적막했던 분위기는 웃음바다로 바뀌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다. 우리는 함께 토론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정말 우리가 소중한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내 나이를 살았던 시대보다 좋아진 환경만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엄마, 아빠가 썼던 사전을 보기위해 도서관으로 음악을 듣기위해 CD와 카테이프를 구하러 다녀야 할 것이다. 편안해진 환경에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이런 고민은 내 미래, 친구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고, 드라마의 극본을 쓰고, 웹툰을 그리기 위해 무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 참아보기로 친구들과 약속하였다. 한 친구가 찾은 저작권의 노래에 구절처럼 "지켜야합니다. 지켜야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얘기들을, 지켜줄

수록 아름다움을 서로 간직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처럼 보호해주고 아껴주면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을 침해해 많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젠 우리 함께 지켜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멋진 미래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라본다.

요즈음 우리들은

작년 3월 즈음부터 저작권 교육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옛날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가 많아지자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영화감독이나, 작곡가 등의 피해는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지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많다보니 많은 자료가 공유되고 유출된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저작물들은 저작자들의 창작 욕구 저하로 발전이 더뎠을 것이며,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는 등 겉보기에도 많은 피해를 받는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인 '막' 같은 역할로 창작 욕구를 증진 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주고, 저작권은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창작물이기에 독창성 또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정보화로 이런 법은 무시되고 있다. 이런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하고,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는 도중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그들은 멋대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법 행위를 하기도 한다.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인터넷에서는 이런 공유 활동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 포털 사이트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고, 영화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를 배포하는 등,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창작자의 욕구를 저하시킨다.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확산성이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다운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이트에 게시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나는 '이러한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는 '왜 이런 불법인 다운로드를 하는걸까'라는 생각을 영화나 음악을 들으며 생각하곤 한다. 우선 '첫째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이라면 익명성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 '죄의식'이 없어지고 위법 행위를 해도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신상 파악으로 처벌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오래 걸린다. 또한 처벌 또한 정해진 것이 없어 더욱 안일해진다. 그래도 최소한의 방편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법을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로 상처받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둘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위법할 뻔한 적이 꽤나 많았다. 학교 시험으로 작년 시험지를 복사하려고 문구점에 갔더니 아저씨께서 저작권 침해라고 말해주셔서 알았고, 음악과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여 받으려고 했으나 엄마께서 저작권 침해라고 알려주셨다. 이외에도 사진, 그림 또한 저

작권의 관리 하에 있고, 나도 당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림을 도용되어봤기에 반성했다. 불법 공유 사이트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더욱 나아질 것이다.

아직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아 생긴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큰 고통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렵고, 저작권의 관심이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저작권 보호 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두가 저작권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다.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은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호에 동참해줄 것이다. 나는 이런 국가적, 개인적인 노력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나는 소원하고 굳게 믿는다.

전신거울 같은 저작권

여러분은 저작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저는 저작권은 전신거울이라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이용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남의 과제를 베껴서 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가지셨다면 그 생각은 지금 당장 접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과제는 한 인물의 생각이므로 동시에 그 인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과제를 베낀다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신거울은 자기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들도 다 되돌아 볼 수 있는 전신거울입니다.

자신이 할 행동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세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나부터’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세히 모르는 것을 무턱대고 실천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든 그것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남의 것을 탐하는 습관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습관이 지속되다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자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견제하고 경쟁자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도 피곤할 뿐더러 사회에서는 외톨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가끔씩 조금은 너그럽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하며, 그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서 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 질 것 입니다.

셋째, 스스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입니다.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남의 것에 눈독들이고 탐하는 것 입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것에 눈독들이고 탐할 필요가 없겠지요. 저런 몸쓸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하는 것 입니다.

넷째, 저작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의 진짜 뜻을 널리 알리는 것 입니다. 저작권. 이 세 단어는 분명 들어는 봤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저작권은 나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저작권의 뜻을 알리고 쓰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한층 더 지식 깊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의 네 가지의 쉬운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작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나쁜 습관과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르고, 사람들에게 알려만 주는 것 만 으로는 더 나은 미래, 한층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만 되돌아보고 한번만 반성하면 그걸로도 저작권을 지키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표절예방교육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지난겨울 홍대 앞을 지날 때 우연히 길거리공연을 보게 되었다.

“쿵쿵쿵 쿵 빠라라 뽐뽐~~”

음악 소리와 함께 서 있기도 힘든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공연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크레용 팝’ 표절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때 내가 보았던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서 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다. 일본의 5인조 걸그룹(모모이로 클로버z)의 컨셉을 표절했다는 내용이었다. 모모이로는 히로인 복장에 히로인용 헬멧이고, 크레용 팝은 오토바이 헬멧에 츠리닝과 티셔츠 히로인(모모이로)과 독수리 5자매(크레용 팝) 등이 표절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었다.

비슷한 점은 있으나 꼭 똑같다고 할 수 없으니 표절이라 보기 힘들 것도 같고, 표절이 아니라 컨셉이 겹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의혹이고, 뭐가 진실일까? 모모이로 클로버z는 헬멧을 쓰고 노래 한 적이 없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헬멧을 쓰고 나와서 파워레인저와 비슷한 코스프레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크레용 팝은 헬멧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코믹하고 엽기적인 특유의 유니크한 베이스에 만화주인공 컨셉을 차용한 것이다. 분명히 컨셉의 ‘차용’이지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표절’은 아니다.

크레용 팝에 대해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 소규모의 기획사에서 시작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홍대, 신촌, 명동 등 길거리공연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 대중들을 찾아 길거리로 나갔고 추운 겨울에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력했다. 예쁘고 섹시하게 보이려는 여자 아이돌그룹의 일회성 방송용 게릴라 콘서트가 아닌 진정성 있는 길거리공연을 고생하면서 해 온 크레용 팝이 조금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랄한 소녀 컨셉에서 코믹한 춤사위, 엽기적 패션에 독수리 5형제 만화주제곡 같은 컨셉까지 다양함을 보여주고 이제 겨우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표절’ 시비에 상처받고 힘들 것 같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표절에 대한 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표절에 대한 인식조차 흐려 표절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또

한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열풍을 타고 표절에 대한 범죄 의식이 더욱 흐려지고 있다. 검색어만 입력하면 쏟아지는 이미지와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퍼 나르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미니홈피로 가져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표절은 범죄’라는 인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절 관련 교육을 하여 표절을 범죄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내가 ‘저작권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다. 처음 공모전을 알게 되고, 푸른 누리 기자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을 글로 써서 수상하게 된 후 매달 집으로 오는 ‘저작권문화’ 홍보물을 받아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 저작인격권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저작 인격권 속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저작권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표절예방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독립적인 표절예방 상설기구를 만들고, 민간차원에서 표절 감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저작권문화가 정착할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학교 과제물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부모가 학생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권유하고, 과제물 아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학생은 모든 과제를 직접 손으로 쓰고, 인터넷에서 관련 부속물을 찾아 인쇄해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학교와 가정이 손잡은 표절예방” 운동을 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표절하면 엄격한 벌칙”을 주어 표절은 나쁜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영국은 에세이숙제를 낼 때 “정답은 없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지 말고 자기 생각을 담아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교육을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가이드북을 통한 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신입생들은 표절방지교재 “출처를 인용하는 글쓰기 가이드북”을 통한 4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표절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의 선진국처럼 우리도 학교에서 앞장서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학교공부가 중요한 것처럼 표절관련교육을 해 준다면 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범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크레용 팝’의 표절 기사를 보면서 표절과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배운 것이 많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다. 저작권은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다.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것으로 나의 것과 너의 것을 지켜주자

지구는 정보화 시대에 입성하면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서로의 문화교류도 빨라지며 서로의 정보 전달도 빨라졌다. 정보의 대중화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P2P 사이트가 생겨나서 불법으로 음원, 영화, 뮤직 비디오를 다운받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P2P사이트뿐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보급화로 인해 카카오토티라는 어플로 공짜로 영화들을 볼 수도 있다. 한사람이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할수록 더욱 퍼져나간다는 점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스트하면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방문하여서 쉽게 볼 수가 있다. 우선 첫째로, 이런 불법 다운로드의 시스템을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의 인기는 외국에서도 대단하다고 한다. 해외의 어느 국가는 연예인들의 노래를 설문 응답자의 99%가 불법다운을 해서 듣는다 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듯이 불법다운은 심각하다. 만약 설문에 100명이 응답했다면 99명은 불법다운을 해 듣고, 1명만이 합법으로 다운받는다라는 내용이다. 둘째로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불법다운을 해도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한다. 우리나라가 불법다운 처벌의 강화에도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서 나온다. 우리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잘못을 혼내면 10에 6~7은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재도 했는데 재는 왜 안 혼내요? 라면서 남의 이야기를 꺼낸다. 이 생각은 재도 불법다운을 받는데 나만 멍청하게 왜 돈을 주고 받지?라는 생각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뭉치면 나뭇가지 1개를 부러뜨릴 땐 쉽지만 10개를 다발로 묶어 부러뜨린다면 힘든 것처럼 그 뜻을 꺾기가 힘들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다운은 계속될 것이다. 몇 년 전 논문 표절 사건처럼 그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굴욕을 입었었다.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또한 표절의 한 종류 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법 다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듯 행동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많이 부족 한 것 같다. 평상시 필자는 영화를 볼 땐 항상 극장에서 본다. 큰 스크린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란 점도 있다. 노래는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다. 하지만 항상 저작권 문제가 나올 때는 영화와 음악이 쌍벽을 이룬다. 그중 음악을 불법다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인기는 식지를 앓아서 인기가 있는 그룹은 점점 더 인기와 팬들이 늘어난다. 한 번쯤은 불법다운을 받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불법다운을 받아본적이 적잖이 있다. 필자는 그 당시 P2P사이트가 합법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저작권 수업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주로 불법다운을 받던 영화도 이젠 모두 극장에서 본다. 조금 돈을 낸다 하면 어떤가? 아이돌이 대사 한번만 훑어보고 노래를

부르는가? 배우들이 아무런 연습 없이 연기를 하는가? 스태프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찍는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거라면 여기서 멈춰야한다. P2P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포인트로 바꾸기 때문에 돈을 냈으니 합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쉽게 추측하나만 하면 된다. 포인트로 바꿨을 때 그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가? 합법다운을 했을 때의 금액은 얼마인가? 차이는 아주 많이 난다. 또한 P2P사이트에 내는 돈이 그 음원 소유자(아이돌)에게는 10원도 가지 않는다. 그저 올린사람과 운영자만이 배를 채우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법다운을 받을 것인가? 아이돌은 죽어라 노력해서 새 앨범을 냈다. 하지만 한명도 돈을 주고 사질 않는다. 숙소의 방값도 없다. 기름 값도 없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면? 그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누군가가 내 주겠지, 누군가가 돈 주고 사겠지라는 생각이 퍼질 것이다. 야구 플레이중 베이스볼 근처에 1명이 있으면 능숙하게 잡아낸다. 하지만 2~3명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이 잡겠지라는 생각이 서로에게 미루어 공을 잡지않게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 플라이 아웃이 될 수 있는 공도 안타가 된다.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어 고쳐나가지 않는 이상 불법복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항상 먼저 고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이며 저작자에게 힘을 주는 권리임을 항상 명심하자.

저작권 보호, 나부터 시작하자

모두들 한번쯤은 ‘저작권’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저작권들을 접할 수 있다. 저작권이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바로 ‘저작권법’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권자의 독창성을 법으로 인정해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독창성이란 개인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독창성 즉,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저작권이 현대사회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 가지 저작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저작권법 위법행동에 대표인 불법복제가 활성화 되기 어려웠었다. 예전에는 영화는 보통 비디오테이프, 음악은 테이프로 접할 수 있었다. 이런 매체는 현재의 CD나 DVD에 비해 크기가 크고 전용 재생기가 없으면 재생하기 어려웠고 복사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저작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방법은 대부분 대량제작해서 판매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정도였다. 온라인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에 더 쉬웠고 그로인해 저작권 침해도 현재와 같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다운로드 등 불법유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람도 많아져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졌다.

저작권 침해 사례도 많이 다양해졌다. 이렇기에 저작권법 위법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에도 어려워졌으며, 처벌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저작권의 위기에는 첫 번째로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을 이용한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남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상정보는 알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해도 지금은 위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위

반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찾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처벌하는 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독창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쓰기 전에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저작권법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저작권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보다 강화된 법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다. 강압적으로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식은커녕 법이 통하지 않는 방법만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저작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해주고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가도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신경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독창성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인권까지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다. 우리 모두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지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권리, 저작권

뽕뽕.. 무더웠던 여름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성이는 선생님께서 방학 전에 소개해 준 학교에서 열리는 ‘올바른 저작권 문화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프로그램은 민성이네 선생님이 진행하여서 캠프 기간 동안 놀러가거나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여하였습니다. 민성이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영화광입니다. 친구들이 영화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민성이는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꿈이 영화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성이는 영화제작에 관해서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미 교실에 도착하니 민성이네 반 친구들인 장난꾸러기 준한, 음악을 좋아하는 솔연이 등 낯익은 친구들도 있고, 다른 반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자료와 활동들을 가지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게 될 거예요.”라는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컴퓨터에 영화를 제작하는 사진이 담긴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어~이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하며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음 그림을 넘기자 그 그림에는 큰 글씨로 불법다운로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 말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는 불법다운로드라고 적혀 있었지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똑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불법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불법인 다운로드예요. 불법으로 영화를 내려받거나 음악을 다운받으면 그 사람은 불법다운로드를 한 셈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준한이는 알쏭달쏭한 얼굴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준한이의 얼굴을 보더니 준한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 차렸습니다.

“흠.. 이해가 아직 잘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영화제작자가 8월 10일쯤 영화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영화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영화라고 소개글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화출시를 1일 앞두고 영화가 인터넷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법다운로드를 한것이지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게 도와줍니다. 영화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퍼져 손 쓸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지요. 결국 그 영화는 제대로 출시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보다도 영화를 잘 아는 민성이는 영화를 제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한다면?? 수많은 정성과 노력을 제외하고 클릭 몇 번 만으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한다고 생각하니 민성이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

어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지는 않죠? 당연히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저작권이라는 것이예요. 저작권은 미술, 연극, 음악작품에 대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출판, 복제에 관한 법적 권리에요. 그리고 저작권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저작권이라는 작품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속의 예술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저작권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권리다!라는 것도 꼭꼭!!기억해두세요~~”

아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민성이는 영화에도 신경을 쓰지만 영화를 만든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저작권이라는 노력의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은...

과거에는 노래, 시, 소설 등 현대에 저작물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목적은 단순한 그 순간에서의 기쁨이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농민들이 만든 민요는 현재에는 엄청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다 같이 재밌게 지내기 위해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었다. 즉, 옛날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이 강했고 만든 사람조차 창작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창작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창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되었다. 내가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계기는 우리 초등학교가 저작권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이다.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이 시범학교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미 저작권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 그 누구도 저작권 시범학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배운 누구나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제일 처음 내가 배운 것은 저작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작권과 우리 생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물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아주는 권리이다.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작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며 얻는 기쁨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모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돈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작자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기쁨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누구라도 더 이상 창작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도 없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먹고 살 걱정은 많이 안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면 생계유지가 힘들다. 또한, 누구도 대가 없는 창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창작의 고통은 다른 노동의 고통보다 심하다. 저작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함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창작자들을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저작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사라지는 것과 문화발전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 창작물이 곧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은 음악, 영화, 글, 스마트 기술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기능 등 많은 것들이 특허를 받는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창작의 결과물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특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는다.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 문화도 보호받을 수 없고 문화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일상

생활 속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 인지를 배웠다. 저작권은 어떻게 침해되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디자인을 내 과제에 그대로 적용하여 제출한다거나 기능을 함부로 내 상품에 적용시키는 것 등 많은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영화관에서 더 이상 상영하지 않는 영화는 무료로 다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작자를 상대로 한 도둑질이다. 누군가 힘들어서 작곡한 곡과 몇 년간 노력해서 찍은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본다면 이것은 법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생각하여도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벌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한 사람을 신고해야만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다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일부만이 벌을 받는다. 창작자들만 노력해서는 저작권을 지킬 수 없다. 우리 모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을 지켜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잠깐의 행복을 누린다. 한 사람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침해한다면 어느 순간 들을 노래가 없어지고 볼 영화가 없어지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디자인이 없어질 것이다. 짧게 보면 당장 창작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게 보면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무나 쉽다. 양심에 따라 자신의 한순간의 작은 이익보다 이것을 만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면 된다. 우리 미래 문화생활을 위해 이 정도 법은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저작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들이 사는 세상

‘저작권 침해’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담을 타고 익명이란 복면을 쓴 채 누군가가 땀 흘려 열심히 모은 재산을 훔쳐 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내려지고 벌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도둑질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둑질에 비해 법이나 제도가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그 ‘도둑질’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고, 어느 정도가 저작권 침해이며 법에 걸리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고작해야 나 하난데, 무슨 일 있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나 하나’들이 모이고 모이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결코 작지 않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군가’는 지금도 사람들의 무관심에 치여 수백, 수천 번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아니 사실은 보려고도 하지 않던 ‘그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스스로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했던 적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저작권 도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행했던 ‘영화 무료 공유’를 들 수 있다. 아주 유명하고 인기 있는 한 SNS 앱에서 어느 날부터 최신영화들은 물론이고, 아직 상영이 끝나지 않은 영화들까지도 무료로 공유해주는 계정들이 생겨나서 앱 사용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 계정의 유저들은 대부분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바일로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파일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링크를 복사해 배포하는 식으로 수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부추겼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계정을 즐겨 찾았지만, 방금 영화관에서 보고 온 영화가 무료 공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댓글들도 소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계정 이용자들의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될 게 아니냐.’, ‘링크복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무조건적인 비난과 욕설들뿐이었고,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로 링크만 복사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글들을 몇 번이나 신고했지만 그 글은 삭제가 되지도, 경고를 받지도 않았다. 계속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채로 공공연히 배포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그 법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정말 링크만 복사해 뿌리는 것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닌 걸까? 정말로 저작자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걸까?

그 유행은 전에 비해 줄었지만 끝나지는 않았다. 아직도 종종 내 타임라인에는 최신 영화 공유 글들이 눈에 띄고는 한다. 안타깝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작자들은 훨씬 더 안타깝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나와 다르지 않은가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앞으로 억울하게 재산을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보다 보장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법이 힘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도의 보편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약간의 개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접하는 우리들의 태도변화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들테면, 우리들이 영화를 한 편 보고난 후 항상 떠올려보아야 할 점은 컴퓨터 그래픽의 정밀함이나 제작에 들어간 수십억대의 제작비용, 주인공 배우들의 비주얼, 감독이나 작가의 화려한 명성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화려한 스크린 뒤에 감춰진 우리들은 모르는 ‘그들이 사는 세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는, 그래서 더욱 대강대강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엔딩 크레딧 속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석 자, 그들의 땀방울과 몰래 훔쳐던 눈물. 소주병과 대일밴드, 빠진 머리카락과 약봉지, 굳은살과 헤진 양말에 말이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에 아빠가 대본 작가와 조감독을 하셨기 때문에 난 아직 까지도 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 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 어깨가 축 쳐진 채 돌아오신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 말없이 담배만 태우시던 아빠의 그 걱정 가득한 눈빛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아빠가 대본을 쓴 영화가 개봉할 무렵 아빠의 그 들뜬 목소리를 기억하고,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또한 그 속에 있던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아빠는 영화 한 편으로 인해 웃고 우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만든 영화 속에는 아빠의 인생 전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아빠는 당신의 전부를 이 영화에 걸으신 것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내가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에 어느 또래들보다 더욱 안타깝워하고 씁쓸해하는 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들이 사는 세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도 아빠처럼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었을 때에는 부디 지금보다 우리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는 말을 핑계 삼아 다른 이들의 간절한 희망을 짓밟고 있는 그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누군가 당신에게 2시간여, 혹은 4분여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신이 누린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권리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커서도 나는 저작권에 대해 그리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가끔 TV나 인터넷에서 저작권이라는 말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다.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글에 호응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을 보면 괜히 뿌듯해지고, 내가 글을 아주 잘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중에서 내 글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틈만 나면 ‘와, 글 정말 잘 쓰세요! 저도 이렇게 쓰고 싶다.’ 하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카페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나면 누구보다 반가운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나도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주는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고, 나와 그 사람은 꽤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글이 보였다. 그건 다름 아닌 내가 쓴 글이었다. 몰라볼래야 몰라 볼 수 없게, 내가 쓴 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 놓은 것이다.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쓴 글인 마냥 ‘오늘은 좀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오늘 제 기분을 살려 글을 한 번 써봤어요.’ 하고 밑에 후기까지 써놓은 것을 보고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평소 그 사람이 자주 내 글을 본문 스크랩 해가겠다고 허락을 구해,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고, 다만 말하는 것을 깜박했을 뿐이라고 억지로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괜히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싫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갔다. 그 후에도 계속 짹짹하고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채팅방이나 댓글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나를 대했고 나는 착각이겠지 실수 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내가 무어라 말하지 않은 까닭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일까, 내가 다시 그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자 못 본 사이에 내 글이 두 어 개가 더 올려져 있었다. 역시 내 글에서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심지어 오타마저 똑같은 글이었다. 더군다나 내 글보다 댓글도 더 많이 달려 있었다. 내 글인데 자기 글인마냥 행세하고, 심지어 내 글보다 더 좋은 호응을 받는 그 사람의 행태에 화가 발끈 났다. 아무리 인터넷 상에서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밀 댓글로 ‘제 글이랑 정말 똑같으시네요. 혹시 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텔레파시라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비꼬듯이 썼다. 곧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글을 전부 삭제했고, 내게 사과메일을 보내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에 있던 카페를 전부 탈퇴하고 블로그를 초기화했다.

그 사람과의 일이 있는 이후로 나는 꽤 많은 것이 달라졌다. 글을 쓸 때면 반드시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꼭 CCL이라는 것도 달았다. CCL은 저작물의 원 저작자를 표시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차적으로 작품을 작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꼭 내 글 밑에 CCL이 있어야 나는 안심하고는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던 것이다. 내 글을 멋대로 훔쳐간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화를 내기는 했지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도 다른 곳에 올리지는 않지만 때때로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복사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예쁜 그림이 있으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림을 복사하기도 했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열심히 쓴 글이나 그린 그림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만큼, 평소처럼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도 번뜩 정신을 차리고 그 손을 멈추게 되어버렸다. 나도 내가 당한 일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므로, 저작권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권이란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보통 사람들은 저작권을 지켜야 겠다는 인식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저작권을 위법하면서도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최근 창작의 시대가 열리고 정보 공유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보 통신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저작권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이란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독특한 고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들어가 완성되어진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갈수록 저작권 문제는 심각해져 가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물론 중요성이 강조되다보니 음악파일이나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주의는 조금 높아졌지만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어?’라면서 쉽게 넘겨버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쇼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하여서 포스팅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저작권법 위반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저작 활동은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소유권과 같이 꼭 지켜주어야 하는 것으로 말이다. 앞에서 말 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겠지, 설마 내가 걸리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만다. 여태까지 저작권법 위반을 해왔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갈수록 tv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이나 주변 친인척 중에 겪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 먼 세계 일 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저작권 또한 잘 지켜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이 먼저 가수들의 노래에 대하여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니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 중 학생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여러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학생 시절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분별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저작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위반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이익이 따라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으므로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덧붙이자면, 학생들은 장차 미래에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저작권을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는 국민들의 의식 차이로 이어진다. 창조의 시대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더욱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멋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나가기로 하자.

커져만 가는 아우성

요즘 들어 저작권 침해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많은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에는 불법으로 올린 사진과 글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p2p를 통해 영화나 노래를 무료로 공유하는 행동,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불법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친구들도 영화나 만화책 등 원하는 자료를 얻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작권을 무시하고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자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그림, 글짓기 작품과 학교 시험문제, 영화나 만화, 음악 등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의 자료들은 유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들을 불법 다운로드 하게 되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저작권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더 나아가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책이나 소설 등 제작자의 지식들 까지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하다. 이렇게 제작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힘들게 노력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게 만들어봤자 이익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누가 과연 만들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저작권자의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뒤쳐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은 저작권을 침해하여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 14세 이하는 처벌할 수 없고 처음 걸리는 경우는 경고를 주거나 가벼운 벌금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저작권 처벌에 대한 정도가 약하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여도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무단 복제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의 강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처벌을 받기 두려워서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옳은 방법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미리 저작권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침해 예방에는 무엇보다 사전교

육이 가장 도움이 된다. 청소년 때부터 저작권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어떤 피해가 가는지,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이유 등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에 관한 법을 강화하여 규제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작권의 보호의식을 깨닫지 않고 법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국민 모두가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씩 노력해나간다면 나중에는 법이 없어도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정보화 시대인 세계 시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열세 살의 나에게 경찰서에서 온 편지

올해 겨우 열여덟 살인 내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사실 잘 모르겠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인데 내 글을 읽은 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서도 부끄럽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저작권이라는 것과 그리 멀지 않음을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본다. 경찰서에 "소환"된 그 해 내 나이는, 지금 내 눈에 한없이 어려보이기만 하는 내 동생의 나이, 고작 열세 살 이었다.

어느 날 우리 집 앞으로 편지가 하나 도착했다. 그런데 웬걸, 경찰서에서 온 편지였다. 그것도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설렘 반 두려움 반에 못 본 척 하고 다시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이미 그 편지를 집에 가져와 뜯어보셨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않으신 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신 상태였다. 그리고 방에서 전화하던 엄마는 통화중인 채로 거실로 나오시며 나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찰아저씨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출석요구서는 나에게 온 것이었다. 소환의 이유로 쓰인 것은 내게 생소하기만 했던 "저작권법 위반"이었다.

내가 소환된 경찰서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보는 곳에 있었다. 낯선 곳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내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자주 보던 동네의 작은 경찰서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보던 중범죄자들이 조사를 받곤 하는 큰 경찰서였기 때문에 더 불안했던 것 같다. 눈앞이 팽팽 도는 상황에서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기분 탓이었는지 내부는 그리 밝지 않았고 낮인데도 어둠이 깔려있는 듯했다. 수사과 중에서도 사이버 범죄 수사과로 가니 그곳에 내가 앉아야 할 의자가 있었다. 정말로 내가 느끼기에는 의자에 앉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이었다.

우선 간단히 나와 부모님의 신상과 관계를 확인해야했는데 등본을 가져오지 않아서 발급을 받기 위해 아빠가 다녀오셔야 했다. 그 사이에 나의 주위를 맴돌던 침묵과 중압감은 지금 떠올려도 나를 억누르곤 한다. 다행히 그만한 침묵은 등본이 오며 깨졌으나, 다음 차례를 밟아야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어렸을 적에도 컴퓨터, 정확히는 인터넷과 친했다. 어른들께로부터 들어보지만 한 c언어나 알고리즘 순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대가 열렸을 때 태어난 덕분에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특정 포털사이트에 매일 접속해서 게임이나 나만의 공간을 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만큼 인터넷이 발전했고, 나는 그 트렌드에 늦으면 조금 늦었지 절대 뒤쳐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과 내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게 어찌면 내 "소환"의 화근이었다.

등본을 통해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경찰아저씨로부터 비로소 내가 불려온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블로그에 올린 애니메이션 때문이었다. 그 때 한창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만화에 빠져있었는데, 어떤 날은 학교가 늦게 끝나서 방송 시간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곤 했다. 그러다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다운 받아 나중에 볼 목적으로 내 블로그에 올렸던 것이었다.

내 블로그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고 글이라고는 그저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일기뿐이어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는 몰랐지만, 아무리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게시물이 없더라도 하나의 게시물만으로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방문될 수 있다. 때문에 내가 나의 저작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이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만화를 게시 중인데 왜 나만 걸렸는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려다가,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유머"책에서 본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자신의 차를 빠른 속도로 지나치고 있는 차들은 잡지 않고 왜 자신만 잡느냐고 했다. 그 말에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낚시터에서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소?"

낚시꾼이 모든 물고기를 잡지 않고 a라는 물고기만 잡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물고기가 아직도 물에서 헤엄치고 있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과속하든 아니든 나 또한 잘못된 물고기였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법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로그의 방문 수가 늘었고,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위협한 셈이 되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을 때, 나라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학교에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반성문 같은 진술서를 떨리는 손으로 쓴 후 집에 돌아왔다. 다행히 내가 아직 미성년자였을 뿐더러 만14세도 안 되었을 때여서 그것을 감안해 저작권을 가진 회사 측에서는 합의 하자는 말도 없이 넘어가주었다.

비록 그 순간에는 무지 떨리고 불안했지만 그 날의 경험 덕분에 이제 나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인터넷을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이용하고 있다. 내가 헤엄치는 인터넷 속에서, 오늘도 저작권은 함께 있다.

저작권 가려 지키기는 그만

까마득하게 어린 초등학교 3학년 시절, 그때는 왜 그렇게 mp3을 가지고 싶었는지 모른다. 내 주위 하나 둘씩 mp3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항상 부럽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었었다. 나는 그날부터 엄마께 mp3를 사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고, 용돈을 모으기 위해 설거지 한 번에 500원, 청소 한 번에 500원 등의 집안일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 모습이 기특해 보이셨는지 부모님은 내게 mp3를 사 주셨다. 집안일 아르바이트로 모인 돈은 꽤나 비싼 mp3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뿔뿔이 기뻐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물건은 그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만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파일을 넣어야지! 나는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 '음악 다운'을 검색했다. 여러 사이트들이 떴고, 음원 사이트에 들어간 나는 한 곡에 500원 짜리인 노래 다섯 곡을 구입했다. 재생되는 음악이 정말이지 신기했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못 견디게 좋았다.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에 학교에 mp3를 가져갔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생각을 하니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예상대로 친구들은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며 부러워했다. 곧 앞다투어 내 mp3를 구경하던 친구들이 내게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노래가 다섯 곡밖에 없어? 당황한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아니, 노래가 너무 비싸서 다섯 곡밖에 못 샀어. 내 말을 들은 친구들을 눈이 동그래져서는 말했다. 뭐? 노래를 왜 사? 한 친구가 크게 웃음을 터트리더니 말했다. 너 바보냐? 그냥 인터넷에 노래 제목 검색하면 다운 짝르륵 뜨는데 그걸 왜 돈 주고 사.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다. 이게 웬일이야. 그 친구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때부터 다운로드하고 싶은 노래가 생기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다. 그때는 그게 '불법 다운로드'인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공짜 노래들로 mp3를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을 때쯤,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다. 5학년이었던 내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샤이니였다. 비활동 기간에 샤이니에게 빠졌던 터라 나는 샤이니의 무대를 찾아보고, 예능 방송을 다시보기하며 열심히 샤이니의 컴백을 기다렸다. 물론 샤이니가 전에 냈던 곡은 인터넷에서 찾아 모두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샤이니의 컴백! 하루에도 수십 번 팬페이지를 들락날락거리던 나는 샤이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졌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샤이니 팬페이지에서 본 한 글은 나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샤이니 신곡, 멜o, 벅x, 같은 음

원 사이트에서 많이 다운로드 해 주세요! 그래야 순위가 올라가고, 샤이니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약간 의아했지만 샤이니가 좋았던 나는 몇 년 만에 음원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음원을 구매했다.

몇 주 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샤이니 줄리엣, 길보드 차트 1위'라는 제목이었는데, 길보드 차트는 불법 다운로드 차트였다. 화가 난 나는 씩씩거리며 포털 사이트에 불법 다운로드를 검색했다. 그리고는 그 내용에 깜짝 놀랐다. 더불어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래 다운로드가 모두 불법 다운로드였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저런 기사를 보고 화를 내다니? 내 행동이 다른 곡들의 길보드 차트 순위를 높여 주었던 옳지 못한 행동이었는데. 특정 가수의 곡만 사서 듣는 것이 정말 당당한 일인가?

그때부터 나는 저작권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음원 사이트에 지불했던 500원은 가수와 작곡, 작사자, 유통사를 비롯한 많은 곳에 나누어져 들어가는 돈이었고,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마땅히 내야 할 저작권료였다. 친구들의 말만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불법 다운로드를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정신이 확 든 나는 불법 노래 파일을 모두 지웠다. 그 후에는 샤이니의 신곡 줄리엣과 맨 처음에 받았던 다섯 곡밖에 남지 않았다. 즐겨 듣던 노래는 없어졌어도 뿌듯한 느낌이었다. 이 여섯 곡이 내 양심 같았다. 용량은 텅텅 비었지만 그만큼 내 마음은 짝 찼다.

이제 내 mp3에는 '굿 다운로더'가 되어 받은 노래들뿐이다. 그만큼 음질도 깨끗하고, 출처도 깨끗하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음악을 당당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지금도 불법 다운로드들은 많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 사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들은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하지만 그 두 이유가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밤을 새워 열심히 한 숙제를 어제 편히 잠을 잔 친구가 베꼈다고 해 보자.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아마 이 문장을 읽으며 공감할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겠다고? 내가 하면 콘텐츠 이용, 남이 하면 불법 다운로드 양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불법 다운로드도 똑같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알맹이만 가져가는 무임승차!

샤이니의 정규 2집에는 '악'이라는 노래가 있다. 비양심적인 불법 다운로드를 꼬집는 노래다. one click, finished, done. 이 가사는 고작 세 마디였지만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구절이다.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이면 제작자들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전락해 버리는 현재의 태세이다. 저작권. 더 이상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 활발한 창작, 양질의 생산, 제작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우리가 꼭 지켜 주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다.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당신에게 전하는 편지

방금 전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끝나고 당신들은 미처 보지 못한 화제의 장면을 보기 위해 제가 속한 인터넷을 켭니다. 또 제게 예능,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등을 다운 받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보고 싶은 TV프로그램들을 위해 저를 이용하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마저 ‘재방송’의 역할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제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는 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당신들은 단지 빠른 시간 내에 놓친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든 작품을 아무 죄책감 없이 공짜로 다운 받습니다. 물론 당신들은 ‘저작권’이라는 법 자체를 알지 못하지만요. 사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작지만 아주 큰 편지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자신이 직접 만든 시와 소설 등의 문학, 모든 음으로 구성된 음원이나 음반, 간단한 미술 작품부터 드라마나 영화들까지 누구의 때도 묻지 않은 순수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당신들에 의해 불법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저를 통해 아직 정식으로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를, 아직 정식으로 발매되지도 않은 음반을 간단한 클릭 한번으로 다운 받지요. 당신들은 그저 빨리 다운 받고자 제게 소리 지르기에만 급급합니다. 사실 이때 당신들이 느껴야 할 아픔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 받게 될 경우 누군가는 자신이 애써 만든 작품을 세상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어둠에 내어준 채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요.

창작 작품을 만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작품으로 세상이 밝게 떠오르는 것을 바랍니다. 자신의 작품이 세상에 떠오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몇 년간 작품을 위해 쏟아온 노력과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당신들이 저 사실을 간과한 채 저를 이용해 그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으며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당신들의 웃음, 어떤 것이 지켜져야 할까요?

다행인 것은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면 당신들 중 극히 일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댓가 치고는 아주 사소한 벌이지요. 창작

자의 쏟은 시간에 비해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것이 당신들의 벌이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단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닌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작은 법들과 정 도 자체가 약한 법의 처벌, 또한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알리지도 못했으니까요.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인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사회에서 매장당한 채 ‘의미 없는 사과’에 불과한 간단한 합의 선에서 분노를 잠재워야 합니다. 반면, 당신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나쁜 운으로만 생각하여 같은 행동을 또 저지릅니다.

이 반복되는 현상에 우리의 미래는 결국 창작자는 더 이상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고 당신들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문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작은 문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어떤 누군가는 자료를 다운 받고 그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 불법유출이라는 커다란 구멍은 이제 막 발을 들여선 창작자의 작품세계에서의 메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게 되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죠. 아직도 당신들의 행동이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 인터넷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지 못한 자료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로 인해 자신의 문화를 곳곳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아마 의식 있는 당신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곧 저는 인터넷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결국 저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저로 인해 죽어가는 ‘저작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살아난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인터넷 속 불법자료유출은 영영 사라지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다운받고 개인 블로그에도 꼭 출처를 남기고 자료를 옮겨와 실을 테니까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오기를 꿈꿔봅니다.

2013년 9월 어느 날

불법 공유 사이트로부터

너!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

삼년 전 쯤 인가, 당시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를 무료로 다운받기 위해 우연히 들리게 된 블로그 속 문구 한 줄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어리던 그때, 텔레비전 속 연예인에 확 빠져 일명 ‘오빠 부대’의 일원으로 열정적인 팬 활동을 하던 중학교 시절 나에게 내 나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말은 꽤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날로 엄마를 졸라 정식 음원사이트의 이용권을 끊었고, 내 우상이던 그분들! 을 위해 불법 다운로드 근절에 팔 걷고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가깝던 언니에게는 열변을 토하며 정식 음원을 다운받을 것을 요구해댔고, 주위의 친구들에게는 은근한 말로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과 합법적인 음원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어설픈게 늘어놓곤 했다. 나보다 한참 위의 언니들은 내 말을 무시하며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의 장점에 대해 늘어놓기도 했지만, 나와 같이 여러 연예인을 좋아하던 또래의 몇몇 아이들에게는 내 어설픈 열변이 조금 먹히기도 했었다.

그렇게 조금은 어이없는 이유로 시작된 내 저작권 사수작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나 좋아하던 연예인에 대한 열정이 슬슬 사그라지진 후 몇 년 뒤에 까지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매달 음원사이트 이용요금을 꼬박꼬박 결제했고, 파일을 검색하고 찾기에 좀 더 편하다는 이유로 영화나 다른 영상들도 모두 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고 다운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이없고 요상한 이유였지만 어찌되었든 어느 새엔가 나는 나름대로 저작권을 준수하는 정당한 네티즌, 흔히 말하는 굿 다운로드가 되어있었다.

삼년 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준수해오며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저작권을 지키는 것에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지한 듯하다.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의 글쓴이가 바보가 되고, 굳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면 그 글은 몇백 몇천개의 추천을 받고 높은 순위에 오른다. 간혹 그 사이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대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인 척 여러 가지 이유로 꾀꾀 싸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금방 반대를 받고 사라지곤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복사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말하기에 입 아플 정도로 셀 수 없이 많다.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이 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깨뜨려 버리는 것일까?

어쩌면 이건, 단순히 개개인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일부가 아닌, 상당수의 대중이 명백한 불법을 정당한 것인 양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지금의 현실은 결국 우리 모두의 실수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이다. 학교나 몇몇 시설 등 곳곳에서 저작권의 사

수를 위해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안내를 직접 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딱딱한 말로 이루어진 안내장과 어렵고 형식적인 강의들은 지루함만 일으킬 뿐 우리들에게 특별히 올바른 인식이나 마음을 심어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품고 자란 우리들이 사회를 이어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다보면 결국 저작권이 올바르게 지켜지는 사회는 그저 꿈같은 세상으로 남게 되고 말 것이다.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널리 퍼진 현재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통해 돈을 벌고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저작권으로 인해 예술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을 알아서,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 또한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만이 계속될까 불안하고 많이 안타깝다.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상 지금 이 상황이 단시간에 바뀌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이 바르게 유통되고 지켜지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선 멀리 바라보고 길게 호흡하며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철저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갈 수 있도록 여러 기회들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딱딱한 프레젠테이션과 강연보다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나 행사를 아이들에게 알리고, 어려운 말과 용어보다는 재미있는 영상이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언니의 핸드폰을 뒤지다, 우연히 핸드폰 구석 한 편에 설치되어있는 정식 음원 사이트의 어플을 보게 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자, 언니는 얼마 전부터 매달 돈을 내고 음원을 다운받고 있다 말했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가수가 애를 써 만든 창작물에 대해 작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몇 년 전 스치듯 내 말을 흘려들던 언니가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인터넷 곳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불법 다운로드 근절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몇 년 전 내가 보았던 그 문구들도 여전히 종종 눈에 띄곤 한다. 조금 어설피고 유치하면 어떤가. 이 세상의 영화를, 음악을, 글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따져 묻고 싶다. 너! 정말 좋아하는 거 맞아?

지켜지기 위해 알아야만 하는 저작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를 충분히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자유롭게 그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해진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로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다. 입고 다니는 옷과 매일 보는 드라마나 신문, 하나하나 다른 디자인의 가구들, 하다못해 아침을 깨우는 모닝콜 알람이나 직접 찍는 셀프카메라까지도 모두 일상 속의 예술이다. 그리고 그 예술작품들은 창작자의 열정과 노력이 내재된 그 자체적인 표현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우리는 그 것을 ‘저작권’이라고 부른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적, 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 지적 재산권을 가리킨다. 하지만 저작권이 이러한 목적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확히 그 권리를 지키고 있기보다는, 저작권이 대충 무엇이지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였고,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으로 연장시켰으며 또 ‘저작권 전문사제’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틀어놓은 CD나 스마트폰의 어플인 복스캔, 타인의 SNS사진을 이용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이 결합된, 창작자에게 꼭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범죄와도 같다. 하지만 그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확신 할 수 없다.

흔히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콘텐츠들은 명백히 잘못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무단으로 저작물들이 배포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전히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저작자들에게 콘텐츠의 이용을 허락받지 않아 아무런 출처 표기 없는 저작물의 남용으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는 창작물은 자유롭게 공유할수록 더 가치 있는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자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절대로 저작물의 무단 도용과는 같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저작자가 이용조건을 명시하여 허용을 한 것이고, 이용자들은 제한된 조건하에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허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다른 경우를 근거로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시킬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이나 인용과 보도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범죄는 합리화 될 수 없다. 그러한 경우는 공정이용의 사례인 것이고, 저작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포기하는 ‘퍼블릭 도메인’이 적용되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을 경우거나 허락 없는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합법화된 저작권법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이 저질렀던 또 자신들이 저지른 어쩌면 자신들이 저지르게 될 지도 모르는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의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으로서 배타적이므로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너에게

친구야, 안녕? 올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는데, 잘 보냈니? 나는 그 지독했던 여름
날의 기억이 희미해질 정도로 날이 추워졌다고 생각해. 매우 갑작스럽게 말이지. 이런
날씨에 내가 오랜만에 펜을 드는 이유는, 너의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랄까? 나쁜 행동
인 걸 알면서도 하는 너에게 친한 친구로서 따끔한 충고를 하기 위해서야. 하는 김
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줄게.

우선, 저작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지? 저작권은 말이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해. 이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
가 있는데, 내가 알아본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소개해줄게.

처음으로 소개해줄건, 다른 사람이 너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배포했을 경우야. 이
때 우리는 배포권이 침해당했다고 말하지. 전시권은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내 허락
없이 전시한 것이고, 복제권은 허락 없이 복제한 행위야.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말
이야, 내 저작권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사용한
경우를 말해. 또 만약, 내가 저작권을 어떤 친구에게 양도했다고 치자. 근데 그 친구
가 내 이름 말고 자기 이름을 넣은 거야. 그때는 성명표기권이 침해당했다고 해. 공
연권은 내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공연한 거고, 공표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공표한 거야. 이때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라
고 하네.

어때? 어떤 행위가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이제 좀 알겠지? 이런 말하기 부끄럽
지만, 사실 나도 잘 몰랐던 것들이야. 그러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알았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자.

음……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볼게. 내가 이 일을 본 건, 불과 며칠 전이었어.
그날 우리는 너희 집에서 놀고 있었지. 기억 나? 하여튼, 그때 네가 스마트폰으로 노
래를 틀어줬었어. 거기서 흘러나오던 노래는 거의 대부분이 신곡이었고, 나는 무심코
물었지. 너 노래 어디서 다운받아? 그때 넌 자연스럽게 어떤 앱에 들어갔어. 거기 보
니까 신곡부터해서 아는 노래가 꽤 많더라. 너는 거기서 아무 노래나 클릭하더니 손
쉽게 다운받았어. 그래서 나는 또 물었지. 공짜야? 내 물음에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응, 너도 여기서 받아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 너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의도를.

친구야, 음악은 말이야, 참 좋은 거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슬픔이
가라앉기도, 엄청나게 신이 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곡들을 돈 한 톨 들이지 않

고 무료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말이야, 과연 그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까? 음표를 그리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 말이야.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들이 좋아해준다면 기쁘겠지. 하지만 힘들어서 완성한 곡을, 수백 개의 땀방울이 들어간 곡을 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받아 듣고 있다는 걸 알면? 그때도 기쁠까?

있잖아, 우리.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지를 쓰고 네가 편지를 읽는 그 순간부터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자. 특히, 가장 먼저 그만둬야 하는 건 불법 다운로드라는 거, 알지? 난 네가 내 글을 읽고 누군가의 저작권이 땀방울이라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그런데 친구야, 이제부터 어떤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란 걸 알면, 하지 않기로 했잖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 말이야. 그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몇 가지 조사해봤거든.

첫 번째는 출처에 대한 건데, 네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쓰면서 출처를 밝혔더라도,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네. 두 번째는, 뉴스기사 중에서 그 기사를 취재한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기사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저작물에 속한대. 세 번째로 말해줄건 책에 관한 건데,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야. 문제집 하나를 사서, 복사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야. 많은 학원에서 이 행위를 당연히 여겨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할 기회를 줄게! 꼭 찾아보도록 해.

친구야, 편지를 거의 다 읽어가는 지금은 어때?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젠 정확히 알잖아. 저작권 침해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나중에 네가 커서 자식을 키울 때, 내 편지를 읽고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가지게 된 네가, 자식에게 저작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줄 수 있기를 바라.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나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 일이 아주 잘한 일이었다고 후에 행복하게 떠올리게 되기를.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 안녕.

희망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건 표절이잖니? 이 과제에는 점수를 줄 수 없어. 다시 해 와!" 벌써 열 명 쯤, 수업을 듣는 학생의 반 이상이 퇴짜를 맞은 종이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나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귀찮고 힘들다고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긁어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퇴짜를 맞을 줄이야. 출처는 다 밝혔는데 뭘 더 해야하지? 속으로 불평하며 나는 선생님의 첨삭이 적힌 종이를 퍼들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 과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내 과제가 되돌아온 이유는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했는지를 밝히는 인용부호 " "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기억에 중학교 때는 인터넷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지 말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참고한 자료를 어떻게 표시하라는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숙제를 하면서 여러 부분을 참고할 때도 있었지만 베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 참고 자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였다. 우리 학교, 즉 나의 고등학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꽤 많아서 특히 표절이나 무단으로 가져오는 행위에 민감하다. 처음으로 낸 숙제에서 '인용 문헌' 부분을 따로 할애해서 참고한 사이트 링크를 적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기분을 느낀 것도 생소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사이트 링크만 달랑 적어 뒀으니 제대로 출처를 밝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게는 그 이전까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학교 숙제에 참고한 자료를 적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2학년 1학기가 되어 세계사 수업을 들으며 한 달에도 두 세개의 에세이를 써서 내야 했을 때, 나와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년 때처럼 단순히 인용 문헌 페이지에 사이트 링크를 적어 뒀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경악하고 말았다. 선생님이 우리의 과제를 거부한 것이다.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다! 표절한 것은 받지 않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인용 부호와, 사이트 링크와 함께 정확한 제목을 적어 내라고 말씀하셨다. 기껏 낸 과제를 다시 고쳐야 했을 때 모두 불평했지만, 지금에서야 선생님의 말씀을 절실히 깨닫는다. "대학에 갈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대학에서는 그 실수가 매우 큰 것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인용 부호, 링크, 제목이 중요했기에 조금 귀찮았을 뿐 출처를 밝히는 것이 까다로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그 말을 지금에서야 뱉속 깊이 깨달은 것은 며칠 전 일 때문이었다.

2학년 2학기가 되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고 첫 조별 과제를 받은 날, 선생님

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표절하지 말아라. 선생님은 형식을 까다롭게 볼 거다." 나를 포함한 우리 조원 중 누구도 과제 제출일까지 그 '까다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은 과제를 들고 제출하러 간 날, 우리는 교무실 안에서 우리 과제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이유는 바로 출처 표기 방법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우리의 과제를 apa 스타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조원들 중 apa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apa 스타일은 논문을 쓸 때 참고문헌과 인용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료 형태에 따라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에 출처를 기재해야 하는지 등 매우 세세하고 까다롭다. 교무실에서 저녁도 못먹고 조원들 모두가 울상을 지으며 세 시간 넘게 과제에서 출처를 표시한 부분만 고쳤던 기억이 난다. 우리 말고 다른 조들도 출처 표시를 잘못해, 선생님이 과제 제출 마감 시간을 다섯 시간이나 더 연장해 주셨을 정도였다. 여태까지 1년 반동안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것이 출처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면, 이 날 경험한 것은 실제로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는 것, 세계사 선생님이 연습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이 경험 이후로 인용 출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금 귀찮은 것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키우고 출처를 밝히는 버릇을 들였더라면 위와 같은 일들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우리 학교야 몇몇 선생님들 덕분에 미리 준비를 해서 보낼 수 있다지만, 중학교 때는 저작권이니 인용 출처니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어쩌다 들어도 실제로 연관시키질 못하였으니, 아마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도 중학교와 별 반 다른 사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레포트를 쓰기 시작할 때 인용 출처를 적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만약 대학교 때도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고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쓴다면 그건 표절 의혹에까지 휩싸일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지 않고 도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아무리 학교 숙제이지만 아니 오히려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숙제 할 때도 어린 학생들이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길러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이나 말도 공허할 뿐이다.

나는 방금 전 인터넷에서 새 책을 주문했다. 인용 출처법에 관한 책이다. 앞으로 내가 과제나 논문을 내야 할 때마다, 이 책은 나의 충실하고 올곧은 동반자로 항상 옆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꿈꿔본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찾아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더욱 나아가, 자신이 어디서 배웠는지 정확히 출처를 밝혀 감사해하고 커서는 직접 그런 출처가 되는 정의로운 리더의 미래를. 나도 그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마지막 한 글자까지 틀리지 않도록 인용 출처를 적는다.

미래를 위한 작은 움직임

정현아 안녕? 정원언니야.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낯설지만, 언니는 너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써. 언니가 꿈이 드라마 작가인지는 잘 알고 있지? 언니 지금은 매우 서툴지만 실력을 쌓아서 꼭 좋은 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언니가 연습 삼아 쓰고 있는 작품들이나 미래의 작품들은 모두 언니 힘으로, 노력에 의해 쓴 거야. 그런데 이런 정성들인 작품들을 마음대로 무단 사용하거나 복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들어, ‘저작권 침해’ ‘표절 논란’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는데 이것도 같은 예에 속해.

나는 저작권이란 단어를 떠 올려 보면 우선 자기 소유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남의 글을 모방하거나 복사하고 남의 생각을 훔치는 행위가 생각나. 이런 행동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제일 많이, 쉽게 하는 행동이 남의 글을 베껴 숙제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인 것 같아. 이걸 남이 숙제를 해준 것이고 자신이 힘들게 노력한 숙제와는 가치가 다르다고 봐. 누군가는 이 글을 힘들게 정성스레 써서 남에게 참고만 되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을 거야. 그런데 이 글을 베낀다면 엄연한 도둑질이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언니가 중학교 때 국어 수행평가로 독후감을 써 오는 과제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인터넷의 독후감 예시를 그대로 내는 바람에 수행평가를 0점 처리됐어. 그 친구는 자기가 글 쓰는 소질이 없다며 독후감을 베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써서 의심을 한 거지. 저작권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그런 것 같아. 쉽게 안 들키고 남이 알지도 못 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며, 매일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기도 해. 인터넷은 자기의 생각표현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쓰이지만, 반면에 가장 저작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야. 솔직히 너도 한번쯤은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 한 자료를 숙제로 내거나 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을 거야. 넌 분명 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그 행동을 한 것이고 절대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 할 거야.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분명 범죄야.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

저작권은 창작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 같은 존재이고 앞으로의 더 빛나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언니의 생각은 그래. 서로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니깐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물러서서 이해하면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금방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표현의 자유 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허용되는지는 잘 구분이 안가. 하지만 나중에 너도 구두 디자이너가 꿈인데 너의 도안을 누군가 도용한다면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듯이 지금부터라도 남의 꿈을 짓밟는 행동은 하지말자. 누군가와 생각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도 아는 것처럼 문화

를 공유하는 행복을 오래 느꼈으면 좋겠어.

외국에서는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 엄격해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아쉽다. 배울 기회도 없고, 누군가 저작권이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침해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앞으로는 더욱 쉽고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저작권교육을 학교나 단체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부에서도 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들이 더 늘지 않도록 법을 강화시키거나 처벌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의 저작권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듯이 너도 너만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게 기본 지식을 알아 두었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너에게 쓰면서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얼마나 뜻 깊고, 잘 지켜야겠는지 깨달은 것 같아. 또, 앞으로 더 광범위한 정보와 경험들을 얻으려면 생각을 모방하지 말고 그대로 서툴더라도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서툴지만 이런 정보도 같이 알 수 있게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저작권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꽤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기에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무너뜨렸기에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루에도, 지금도 수십 번씩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형이 있었다. 사촌지간이고 근처에 살아서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 나보다 12살이나 많지만 그 형과 내가 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 형은 소설가를 꿈꾸고 있었다. 그를 통해서 나 또한 소설가를 꿈꾸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소설가임이 분명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형은 이미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형이 쓴 여러 가지 습작들을 봤는데 여느 작가와 다른 글이었다. 물론 당시의 내겐 하나같이 어렵고 시시콜콜하며 따분한 얘기들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 가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형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커녕 경기도 근처에도 못가고 대전대학교 문예창작과를 갔다. 당시 형의 변명은 “형은 말이지 학교에서 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기 싫었어. 쓸데가 없거든. 하지만 그 시간을 나는 내 글에 투자한 거고 그 결과 글로써 인정을 받았지. 아마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엄청 잘했을 걸?”-그 땐 멋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야 그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실기 합격해서 7등급으로 갔으니 말 다했다.

고모도 예전엔 반대를 하셨는데 정말로 글로 대학을 가니 반대를 못하셨다. 그만큼 형의 열정을 느꼈던 것이다. 몇 년 전까지도 ‘형은 아마 문제만 없다면 김영하에 버금가는 소설가가 될 게 분명해.’하고 생각하곤 했다.

형이 스물여섯 살 때 일인데, 형이 쓰고 있던 인터넷 소설이 출판사의 눈에 들어 책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제 막 연재가 10회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결정된 일이라 수십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형의 소설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형에게서는 기쁜 소식이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초판 2000쇄 중에서 20권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한 권은 내가 산 책 이었다. 그렇다면 2만원 남짓을 번 것이다. 의문스러웠다. 결국엔 출판사에서조차 적자를 보고 형은 4부작 시리즈를 더 출판하기는커녕 계약이 취소되면 오히려 학자금 대출도 못 갚는 실정이었다. 결국엔 1권을 마지막으로 그 책의 운명은 끝이 났다. 사실 형이 쓴 소설은 추리 소설로 우리나라 문학 시장에서는 기반이 좀 미약하기는 했다.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이토록 판매가 저조하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럼에도, 형은 수없이 책을 내고 도전을 했다. “원래 예술은 형그리 정신이야.”하면서 안쓰러운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계속 책을 써내려갔다. 형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이젠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저 출판사의 적자소식과 늘어만 가는 빚이었다. 형이 달려온 약 30년의 노력의 대가였다. 나까지 억울할 지경인데 형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 후, 형은 그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는 수입에 전전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정확히 반쯤 죽어 제 할 일도 못하고 집에서 소설이랍시고 예전과 달리 형편없는 이상한 낙서를 하는 듯 했다. 마치 세상에 대한 조용하고 시끄러운 시위 같다. 결국 형은 그렇게 몰락한 것이다.

사실 형이 몰락한 이유는 얼마 안가서 밝혀졌었다. 아마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을 때쯤이었을 것이다. 한 친구가 내게 텍스트 파일의 소설들을 보내줬었다. 그 중엔 낯익은 책이 있었다. 형이 처음으로 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져 있었다. 친구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거의 공유 사이트에 책 원본 그대로가 스캔되거나 텍스트 파일로 올라와 있어 그 책이 출판되어도 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공유해온 것들이 다 그렇게 됐다면 우린 얼마나 많은 소설가들을 침몰시킨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게다가 나는 소설가가 꿈이라는 놈이 그런 식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인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마치 잠자리(소설)를 잡아놓고 서서히 죽여가는 그 모습을 우리(저작권을 침해하고 복사 본을 다운받는 독자)는 시시덕거리며 즐기는 모습이다. 그 동안 잠자리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우리나라 문학시장에서 장르문학 즉, 추리, 로맨스, 판타지, S/F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E-Book도 안 팔린다. 전민희, 이영도, 김영하 이 세 사람 말고는-더 있으나 말 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름도 없을뿐더러 대다수가 생계유지도 힘들다. 국내에서 추리소설은 불법 텍스트로 보고 S/F소설은 복제 스캔 본으로 보며 판타지는 책방 가서 빌려보는 것이 우리나라 장르문학의 다. 이는 장르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으나 돈 내고 볼 바엔 차라리 불법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나는 지금 꽤 두렵다. 언젠가는 나도 내 책을 쓸 것이고 똑같이 2000권을 출판할 것이다. 형도 아직은 글을 쓰고 있고 나는 그가 언젠간 해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모습이 지속된다면 나도, 형도, 미래의 작가도, 어쩌면 현재의 작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린 우리의 문학적 욕구를 해외 문학에서 충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일반문학은 모르겠으나 장르문학은 종적을 감추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일반문학도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자, 이 글을 다 읽었다면 이제 컴퓨터, 핸드폰, mp3든 뭐든 아무거나 켜서 불법복제 소설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서점으로 달려가자. 그리고 보고 싶은, 아니면 보고 있던 책 한권씩 사들고 나오자. 그리고 딱딱하게 죽어있는 텍스트 파일 대신 부드럽게 살아있는 종이 책을 읽자. 서점가기 귀찮은 운동부족의 당신이라면 핸드폰이나 인터

넷 서점에서 E-Book을 사자-솔직히 종이 책을 보는 것이 더 비싼 만큼 더 집중도 잘 되고 재밌다.

길게 말했지만 이 긴 글의 요점은 법과 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저작권하나를 어긴 것이 대한민국 수백만 독자들과 살인을 공모한 것이 된다. 간곡히 부탁하는데, 제발 책은 사서 봐주길 바란다. 당신은 나를 살리고 형을 살리고 우리나라 문학을 살리는 것이다.

공모전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해결책

먼저 이 글을 적기 전에 저작권이 먼저 저작권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일정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대가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작권 침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하겠다.

여러분은 ‘저작권 침해’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아마 불법 다운로드일 것이다. 불법 다운로드의 뜻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와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을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 하지만 나는 불법 다운로드 못지않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공모전’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공모전 포스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공모전을 접하는 학생들은 어떨까? 당연히 학생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존재이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주제에 응모를 해서 상을 받으면 상금과 함께 상도 받고 덩달아 기분도 좋아진다. 하지만 이 훌륭한 보상 뒤에는 함정 같지도 않는 함정이 존재한다. 공모전 포스터를 보면 90%는 이 말을 적어 놓았다.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일절 회사에 귀속됨’ 비슷한 말투가 적혀 있다. 심하면 수상작은 물론 응모작역시 저작권이 귀속되어버린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보상을 줄 테니 권리를 내놔라’ 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먼저 응모작들에 대한 잠재력이다.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이 한 개 있다고 치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래서 회사는 A씨에게 200만 원가량의 상금과 상장을 주었다. 물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어버린 상태이다. 그런데 3년 뒤 그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다. 약 몇 백억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보자. A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몇 백억 짜리 아이디어를 200만원에 팔아 버린 것이다.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작품의 권리는 A가 아니라 회사에 있으니까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아직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이런 사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아이디어 일수도 있는데 그런 소중한 아이디어가 남의 손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수상작이 아닌 다른 응모작에 관해서이다. 응모를 하면 더 이상 그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낼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내용을 바꿔서 다시 응모하게 되고 회사는 그들이 응모한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만이니깐 말이다.

즉 이미 한 번 내버린 아이디어는 회사라면 몰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아이디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회사일까? 우리일까? 당연히 우리이다. 수상을 하면 저작권을 빼앗기고 수상을 하지 못하면 죽은 아이디어가 되어버린다. 이러나저러나 우리에게는 손해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일단 나는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작권을 빼앗기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남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청약이라 생각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즉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억울하면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정도의 재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혼자서나 같이 생각을 한 동료들끼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말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공동 저작권이다. 공동 저작권을 가지게 되면 응모자 역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회사의 경우 만약 그 응모자가 다른 아이디어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안겨 준다면 좋은 인재를 한 명 얻게 된 것인데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응모자에게는 이익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작을 제공하고 회사에게는 인재와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전국의 수많은 청춘들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다. 그 들의 꿈이나 다름없는 아이디어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차후에 얻는 이익을 회사 혼자서 독점하는것 역시 불법 다운로드 못지 않은 저작권 침해이며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의 권리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와 관련해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정규 19집 ‘헬로’를 들고 화려한 컴백을 마친 가왕 조용필이 ‘여행을 떠나요’를 포함,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그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은 1986년 조용필의 소속 레코드사 회장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2000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는 저작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가왕 조용필마저 피해갈 수 없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고 놀랐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단순히 불법유통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렌트와 같은 사이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품 CD 미사용, 블로그의 사진 불법복사 등 우리가 평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다. 우리는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저작권을 어기게 되는 것일까? 나는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 실체가 없는 저작권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저작권이 지켜야 되는 권리라는 것을 잊게 한다. 내가 타인의 물건을 빼앗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저작권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저작자와 나 사이의 먼 거리도 한 몫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와 저작자는 매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아주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나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사는 그의 영화를 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유’할 것과 ‘소유’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과거 공동체에서 ‘공유’하던 문화적 창작물을 개인의 고유한 창작물로서 인정하고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저작권은 새로운 위기를 맞는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공적인 의미와 사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산유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저작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고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곤 한다.

셋째, 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57년에야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유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서양식 법제가 유입되기 전까지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저작권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더 저작권을 늦게 도입한 여러 동남아국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보여준다.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과 흡사한 형태다.

넷째, 잘못된 합리(合理)가 문제다. 흔히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작권이 있는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저작물을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웠다, 이 2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무지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돈이 아까웠다는 사람들 ‘합리적 소비’에는 문제가 있다. 그들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 합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나쁜 소비’다. 저작자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문화 산업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자의 노력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정의 실현이며 바른 합리의 추구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작권이 이렇게 계속 침해 받도록 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교육의 확대다.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연령층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그에 반해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더 이상 잘못된 문화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작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유명 인사를 통한 캠페인 효과도 고려해 볼만한 방법이다. 최근 대중에게 친숙한 유명 인사를 발탁하여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다. 유명 인사들이 자신이 실제 겪었거나 주변에서 있었던 저작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폭넓게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체를 이용한 저작권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역시 무엇보다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다. 정보는 사회 전체의 공유물이지만 저작자를 통해 가공된 정보는 예술이다. 미술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눈으로만 감상하지 않고 저작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순간 저작물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저작자의 권리를 바르게 존중해주고 저작물이 바르게 이용되는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무언가가 불씨가 붙은 화살이 되어 날아왔다

나는 저작권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화를 가지고 있다. 철없는 나이에 그것이 범죄행위인 줄도 모르고 했던 행동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던 일.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부끄러운 고백을 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무지로 인해 순수한 마음이 짓밟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다음의 유명한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가서 하는 일은 오로지 컴퓨터 앞에 앉아 카페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었다. 정치, 스포츠, 경제, 연예 가리는 것 없이 나는 하루에 몇 백 개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할 만큼 열성적인 회원이었다. 게시판에 내 닉네임으로 된 게시글이 올라오는 것이 좋았고 사람들이 주는 관심이 좋았다. 여름방학이면 이달의 우수회원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내 닉네임이 걸려있는 것도 마냥 좋았다.

내가 주로 올리던 글들은 인기 있는 드라마와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그 날에 재미있거나 이슈가 된 방송들을 직접 편집해 swf 파일형식으로 만들어 카페에 올렸다. 동영상은 자르고 붙이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라며 좋아해주는 카페 회원들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동영상을 편집했다. 나를 통해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고 카페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며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행동은 몇 달 뒤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었다. 카페에서의 우수회원으로 명성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카페 회원들 일부에게 항의 쪽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김은별 회원님. A카페에 올리는 편집 영상들은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는 영상들인가요? 재미있는 영상들을 올려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제작사 측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영상저작물 침해로 보이는데요.’

나는 쪽지를 처음 읽어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남들도 다 하는 이 행동이 왜 잘 못 된 건가 싶기도 했고 카페 회원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영상저작물 침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도 제작자들이 한가로이 단속을 하러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 쪽지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경찰서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형명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되는지도 몰랐고 남들을 위해 한 내 노력의 마지막 길이 왜 경찰서인지 알 수 없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억울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으로 몇 백 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나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홀로 경찰서에 갈 수 밖에 없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경찰서에 들어오니 모두에게 관심받기 충분했다. 담당 형사님의 안내로 TV에서 본 범죄자들이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앉는 의자에 앉았다. 이 자리에 앉게 되니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니 육하원칙에 의해 상황설명을 해보라는 형사님의 목소리에 더더욱 고개가 숙여졌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내 잘못에 대해 말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러움에 가득 차 울음을 터트렸다. 목이 메어 숨이 넘어 갈 듯 끼이끼이 우는 나를 보고 형사님과 경찰서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하며 나를 달랬다. 경찰서에서 느낀 위압감은 어린 나이의 내가 감당하기에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무서웠다.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형사님은 회사에 계시는 부모님을 부르셨다. 부모님은 내가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부리나케 달려오셨고 형사님께서서는 나와 부모님께 말씀하셨다.

“김은별 학생은 제작사 측의 동의 없이 A카페에 인기 드라마나 방송영상을 편집해 올려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올린 드라마나 영상들이 얼마나 상관이 있냐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에는 작가와 PD, 연출가들의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이 들어있어요. 영상은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김은별 학생처럼 영상을 아무런 동의 없이 멋대로 편집하거나 카페에 올린다면 문화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되니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게 돼요. 김은별 학생은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고 초범이기 때문에 무거운 벌은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벌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작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그만 울고 여기 진술서 마저 작성하세요.”

형사님의 말씀에 나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입술을 꼭 깨물며 참았다. 나는 엄마가 건네주는 찬 물을 마시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저작권에 대해 무지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행동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선진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짓은 무엇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싶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절도가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러한 행위를 가장 추악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다.

여기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한명 있다. 그는 열심히 일하던 중 여유가 생겨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 그림들을 블로그에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 열광했고, 그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이용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스티커를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 사이트에선 그가 그린 그림에 접착지만을 붙여 1000원, 2000원씩 값을 매겨 팔고 있었다. 그 사이트에서는 이 그림이 그가 그린 것이란걸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가 그린 그림을 자신도 모르게 빼앗긴 것이다.

시선을 돌려볼까?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곳의 반대편에는 평범한 여고생이 한명 서있다. 그녀는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생이다. 기말고사는 어느덧 2주전이고 그녀에게 주어진 수행평가는 너무 많다. 그녀는 하루하루 초조해하기 시작한다. 어느덧 시험은 1주전이다. 그녀는 학교 시험공부도, 그녀에게 주어진 독서수행평가 중 아무것도 완료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읽어야 하는 책의 이름을 쳐본다. 그녀는 검색결과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씩 웃으며 ‘책 서평’이란 곳을 클릭한다. 그리고 그 글 전체를 복사하고 문서파일에 붙여 넣은 후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고 프린트 버튼을 꾹 눌러버린다. 그녀는 남의 글을 빼앗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끊임없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로 저작권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 각자를 꼽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의 실태를 알기 쉽게 나무와 열매로 한번 비유해봤다.

인터넷이란 나무 위엔 저작물이라는 열매가 있다. 또 그 열매엔 각자의 소유주가 있다. 우린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소유주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다. ‘귀찮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우린 나 하나쯤은 모를 거라는 생각에 열매를 한입 베어 문다. 소유주가 열매를 팔기 위해 다시 나무 위를 올라가 열매를 살펴보니 열매는 이미 상품가치가 없이 앙상해져있다.

이게 바로 현재 2013년 대한민국 저작권의 실태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에이 나 하나뿐일 거야’ 라는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우린 알게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한다. 저작권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왔지만 우리는 이를 잘 실천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저작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증거이다.

다시 인터넷이란 나무를 생각해보자. 각 열매의 소유주는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들였을 것이다. 벌레가 오면 벌레를 쫓기 위해 약도 쓰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바람에 날려가진 않을까 노심초사 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고초를 다 겪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팔기위해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미 열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앙상해져있다. 소유주의 기분이 어떨까? 저작권도 똑같다. 작가의 고뇌와 시간이 집약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다. 우린 그런 보호망을 마구 헤집어 놓으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채로 작품을 감상한다. 그러곤 말한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었지.”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진 우리나라의 저작권 실태를 위해 우린 무얼 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병의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비록 후유증은 조금 남겠지만 원인을 해결한다면 다시 사람들은 건강해 질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 진 데는 저작권에 대해 너무 안일한 우리 태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황폐해진 우리나라 저작권 실태에 대한 큰 원인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우리는 ‘나 하나가 뭐’ 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한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의 나비효과처럼 우리 각자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뀐다. 창작자는 마음 편히 작품을 구상하고,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문화 강국, 저작권 강국이 되어 선진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이 되길 조심스레 바라본다.

저작권보호!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

우리 집에는 1대의 컴퓨터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입한 고물 컴퓨터이다. 얼마 전 나는 과학 과목의 수행평가를 위해 그 고물 컴퓨터를 켜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파일이 눈에 띄었다.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형이 고등학교 시절에 작성한 실습보고서를 쓴 것이었다. 무심코 열어 봤더니 내가 작성해야하는 숙제의 주제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이었다. '웁거니~ 이걸로 제출해야지'라고 생각한 나는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제출했다.

며칠 후 사회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작권에 대해 수업을 해 주셨다. 막연히 저작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작권보호인지 몰랐던 나는 순간 많이 당황했다.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표현한 모든 것에는 저작권이 있다. 임의로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저작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아버지께 여쭙 보았다. 아버지 말씀이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수 많은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게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구 사용한다면 그 저작권자는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니? 그러니 더 좋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의욕을 높이려면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신바람나게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겠지? 그것이 바로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영화, 가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엄청나게 많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은 자동차 수 만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는 많고 자원이 부족하지만 창의성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우리나라가 이를 잘 활용하면 저작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짝퉁을 만들어 제대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저작권을 잘 지키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나라사람에게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해야 하려면 우리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허락을 받거나 이용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

이 바로 실천이다.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 순간에도 수 없이 많은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고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저작물들은 우리 인류에게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는 매우 소중한 저작물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저작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라 생각한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저작권보호는 우리 인류문화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아무런 생각 없이 형의 숙제를 그대로 제출했던 내 스스로가 매우 부끄러워짐을 느꼈다. 작은 것부터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형의 숙제를 형만 모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나를 반성하게 하였다. 이제부터는 나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지켜주는 저작권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데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짐1.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내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허락없이 올리지 않겠다.

다짐2. 토렌트, 웹하드 등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파일을 공유하지 않겠다.

다짐3. 영화나 음악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하지 않겠다.

다짐4.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이나 카페 등에 음악을 올리지 않겠다.

다짐5. 글짓기, 그리기, 숙제 등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겠다.

다짐6. 반드시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다짐7. ccl 등의 표기에 따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

불과 몇 만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인류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수 백명을 태운 비행기가 음속으로 날아다니고, 몇 억분의 1초 동안에도 슈퍼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 온 발명가나 창작을 해온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새로운 창작에 더욱 몰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작은 실천이 밑거름이 되어 저작권을 보호하여 창작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숙한 저작권 문화를 위한 논의

저작권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설이나 음악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건축물 등 상당히 넓은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저작물은 헌법 제 22조에 의거하여 법률로써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문화콘텐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저작권을 지켜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도 불법 다운로드를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만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시장 자체가 휘청거리는 걸까? 원인은 소비자들의 인식의 차이이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다운로드해서 마음에 들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은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나도 저작권 침해를 당했었다. 분명히 내가 쓴 글이 마치 다른 학생이 쓴 것처럼 다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버젓이 올라가 있었다.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등록과 같은 어떤 다른 절차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글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항변을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나에게 "왜 그렇게 사람이 각박하냐?"라며 짜증을 냈다. 나는 허락도 없이 열심히 쓴 글을 도용당해서 힘이 빠졌다. 내가 겪은 느낌을 여러 가지 저작물 공급자도 느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생계와 관련이 있어 타격이 클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 저작물은 무려 근 3년간 6조 8천억 원이라는 피해액을 입었다. 이는 공급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킨다.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양과 질의 저하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작권침해는 문화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이다.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재화만이 재산이 아니라 정보나 문화 콘텐츠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엄연한 재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건을 훔친다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처럼 법의 저작물 보호도 당연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관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작권 관련 캠페인,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저작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캠페인과 공익광고는 공급자들이 직접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동방신기가 앨범mirotic의 구매를 호소하자 판매량이 몇 배로 오른 것이 좋은 사례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저작권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음악 무료 다운로드는 불법이다'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추상적이거나 정확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사이트를 이용하던 불법 다운로드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그런데 검거된 다운로드들은 돈을 내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경우 그 다운로드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범법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들은 저작권법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권법만을 담당하는 법률상담센터를 지원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작권법을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연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많아도 1년에 1번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의는 '교육을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보여주기 위한 강의에 지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작권법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한 달에 몇 회 이상'같은 할당량을 정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의 유통과정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 하지만 사실 불법 다운로드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물 공급자의 수익 보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디오헤드 사례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라디오헤드는 계약을 맺고 있던 레코드 회사와 계약이 만료된 후 다른 레코드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인터넷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레코드회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음악을 자신들의 웹페이지에 올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게 했다. 가격은 소비자가 스스로 매긴다. 이런 직접거래는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문화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는 마치 물건을 보고 사는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한 후 구매를 하는 것이 이점이다. 공급자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파급력을 이용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린 것이 시초였다. 문화 산업 전체에서는 비주류 문화생산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하고 균형 잡힌 성장이 가능하다.

문화 콘텐츠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기본 소양이며 문화 시민의 첫걸음이다. 건전한 저작권 문화 정착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과학 탐구의 저작권에서 느낀바

정보시장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이익추구가 기본이 되며 이는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때 장애가 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할 권리 '저작권'을 무시하는 이용방식이다.

영화를 다운받는데 있어서 '무료'라는 불합리한 구매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방법이다. 영화산업을 죽이는 악이라고, 근절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무료 영화파일을 무시하고 정당한 구매를 하여 감상을 하기는 힘들다. 자신은 정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들여서 영화를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무료로 똑같은 영화를 감상할 때 자신이 불필요한 비용을 소비했으며 타인에 비해 손해를 보았다는 피해의식 때문일 것이다. 정보 그 자체의 불법적 이용과는 다른 의미로 타인이 만든 성과물들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사용자가 기존의 성과물을 '참고'하여 더 발전된 방향을 제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닌 기존의 결과물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여 각색을 하였는지, 이러한 기준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소용돌이에 갇혀있다.

지식재산의 제공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시장의 합리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적 보호의 한계성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영화제목을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에 무료다운로드가 뜬다든지, 학사, 박사 논문 표절관련 기사들을 보면 법으로 규제한다는 1차적 생각을 넘어서 우리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로 보인다. 보편적인 피해의식과 기존 데이터에 의존하는 성격, 우리가 개선 또는 없애야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한다. 나는 한 계기로 인해서 저작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을 직접 체험해보았고 정보 그 자체의 이용과 이를 각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실감했다.

학생들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실, 기존의 고정이론을 탈피하고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곳, 국제규모의 전람회로 중국에서 개최된 이 기회에 다양한 색깔을 지닌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다. 1년간의 준비로 변화를 추구할 연구 성과물들을 뽐내는 틈바구니에 우리 팀도 나름 독창적이고 참신하다고 인정받은 결과물을 전시하고 심사위원들, 참가자들 및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 'castic'이라는 대회로 추구하는 바는 '변화'이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와플 제작법부터 시작해서 해양 무단 투기 조사 로봇까지 그야말로 현 과학의 변혁을 꾀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그중 우리 팀의 주제는 '현 스마트폰 배터리의 대체'이다. 기존의 휴대폰배터리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하는 탐구로 타 기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만 진행했던 우리는 대체배터리를 완전히 재현해내지 못하고 투박하면서 실용적

이지 않은, 단지 앞으로의 연구방향만을 제시하는 쪽이었다. 실제 실용화할 수 있는 배터리는 대기업의 기술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했고 기술 연구원에서 우리가 제시한 방향으로 배터리를 연구해본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탐구에 자신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대회를 치르는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팀들의 연구를 보며 교류를 하러 다녔다. 연구들을 살펴보던 도중 홍콩에서 온 팀들 중 한 팀이 우리와 같은 계열의 탐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듣고 기대를 품고 살펴보려갔다. 결과는 상당한 충격이었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제작했으며,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을 보기 좋게 깨버리는 순간이었다. 두껍고 커다란 몸체에 금속가루들을 사용하여 투박한 우리들의 배터리와 달리, 탄소나노튜브라는 신소재로 압축하여 얇으면서도 깨끗한 배터리를 만든 것이다. 대회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던 상은 홍콩 팀에게 빼앗기고 씁쓸한 마음으로 귀국을 했다.

사실 우리의 배터리 연구도 상당한 질을 가지고 있는 터라 한 선생님께서 이번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환경관련대회에 나가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탐구를 재정비를 하던 도중 우리는 castic에서 접하였던 새로운 배터리기술을 도입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기술보다 난이도나 참신함이 높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우리의 전력 증대에 확실한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이었다. 물론 전람회에 출품된 연구들의 저작권은 당연히 그 연구팀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팀이 타국인 홍콩이고 탄소나노튜브대신에 셀룰라이트와 다른 신소재를 첨가해 변형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진행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계획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대회를 치르는 동안 친분을 쌓은 해당 홍콩 팀이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공동 탐구를 제의해왔기 때문이다. 동료로써의 양심의 가책이 1차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기존 탐구에서 조금 더 실용화하는 방법으로 하여 대회를 출전하기로 한 것이다. 홍콩 팀의 연구 결과물을 도용 및 각색을 하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긴 것은 홍콩 팀이 castic의 상위 대회에서 해당 주제로 수상을 하고 난 후였다. 저작권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는 단순한 생각도 있었지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의 연구과정과 이론들을 받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연구에 매진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를 비슷한 연구를 했던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배로 이론조사를 하고, 발로 뛰며 자문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연구 성과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을 이메일을 통해 느끼면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살짝 각색한 다음 우리의 결과물인 양 상을 수상했으면 우리가 어떠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진실하게 알 수 있었다. 사실 남들이 땀을 흘려가는 노력으로 만든 정보를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 이용하고 정당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남들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그 땀을 흘려가는 노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그 노력을 알기에 다른 이가 만든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수

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경험을 이렇게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자신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제공자에게 얼마나 큰 실례인지 가늠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준 홍콩 팀의 sam wong과 poon oi ching의 연구는 우리가 무심코 하려던 표절과 남용을 막아준 도덕적인 지표이자 우리 팀의 양심의 지표이다.

나는 저작권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누군가의 소유로서 말이다. 하지만 나는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명확하지 않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무심할 때, 수많은 작가와 작곡가들이 만든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들의 의욕조차 떨어트렸다. 이런 상황을 통해 점차 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나를 법률로 제정하여 이 세상에 '권리'로서 태어나게 해주었다. 이런 나의 이름은 저작권이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것들이 창작되고 또 금방 소멸되어 버린다. 하지만 그 소멸이 정말 소멸인지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방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가치의 소멸이 일어난 건 아닌지 의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소멸은 정당한 경쟁 사이에서 뒤떨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세상을 바꿀만한 소중한 창작물들이 모방된 가짜에 숨겨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p2p사이트를 사용한다. 심지어는 다수의 컴퓨터 전문가들조차 이런 불법 사이트를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에게겐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이트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들은 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정해진 금액을 내야하는 정식 사이트와는 달리 무료 혹은 적은 돈만으로도 최신 영화 또는 게임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누구나 편리하고 좋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영화나 음악 등 저작물의 '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를 가진 사람들과 나를 무시한 그들에게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영화는 개봉 전에 이런 사이트에 유포되어 300억이 넘는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들이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의욕이 생길까. 이로 인해 더 좋은 영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가 즐길 수 있을 것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는 것은 그들이 노력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자 한 국가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나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게임에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어떤 유명한 외국회사의 fps게임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 게임의 cd가 비싸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불법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실질적인 cd판매량이 낮았다고 한다. 매우 한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었지만 그 게임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인기 없는 걸로 간주하여 더 이상 한국말로 번역 하지 않고 한국유저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높이지 않았다. 순간의 '나'를 어겨 얻은 즐거움이 결국엔 더 질 좋은 저작물들을 경험할 기회가 '나'를 어긴 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과연 순간의 즐거움과 저작물의 가치를 존중하여 얻는 오랜 시간 즐거움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일까. 사람들은 개인의 즐거움 때문에 사회 전체의 즐거움을 버리는 불법 다운로드라는 어리석은 짓이며 결국 양심의 가책과 법에 의한 처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나를 지키는 사람들, 나로 인해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나를 희망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희망이라고 말이다. 지금은 모두들 나를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 불리지 안헤 되기를 꿈꾼다. 모든 사람이 나의 존재를 감각하고 나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의 존재가 당연해졌으면 좋겠다. 진정한 즐거움을 만드는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현실로서.

영혼을 훔치는 범죄!

"나 인피니트 신곡 다운 받았다!" "어? 벌써 음반이 나왔나?" "바보! 요즘 누가 음악을 돈을 주고 듣니?" "혜윤아, 해운대 영화가 새로 나왔데. 같이 보러갈까?" "에이, 왜 돈 주고 아깝게 영화를 보니? 웹하드프로그램에 가면 얼마든지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볼 수 있어" "공짜로 함부로 다운 받으면 불법인거 아냐?" "공짜 아냐, 120원 냈는걸." 특정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대화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친구들끼리만 하는 이야기일까? "어? 방학숙제로 저작권에 대한 글짓기관련 숙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인터넷에 치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나와. 그걸 참고로 해서 쓰면 돼" "미니 홈페이지 사진이 필요한 데 뭐가 색다른 사진이 없나?" "마음에 드는 걸로 퍼오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여기서 나아가 음악과 영화 뿐만 아니라 게임, 동영상등을 누가 더 최신의 것을 공짜로 다운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자신만의 뛰어난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 몇 년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창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울림이 아닐까? 우리는 순간순간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tv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 종종 어떤 가수가 음원이 유출되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린다. 몇 년 전 에는 영화 '해운대' 파일이 불법 유출되어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도이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빼앗아 오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은 글, 그림, 음악과 같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저작권은 유명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 생길 수 있는 권리이다. 좋은 창작물이나 자료를 공유하며 나누는 것은 창작자에게도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창작자가 글이나 그림, 음악과 같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인고의 시간을 흘려 탄생시킨 창작물을 어떤 대가도 없이 다른 사람이 몰래 사용하면 마음이 어떨겠는가? 창작자는 저작물로 수익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새로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데 저작권의 침해는 그들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력에 대해 정당한 가치나 평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좋은 창작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문화와 예술 산업의 힘은 무한하다.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저작권에 대한 무지함으로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나도 전에는 이런 저작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하던 클래식 블로그에 클래식 음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내 블로그에 올려 놓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었다. 그때는 클래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면 그 클래식 음악을 보냄으로써 매우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이후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지난 클래식에 대한 저작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원 작곡가의 클래식 음악 저작권은 소멸되었지만 그 클래식 음악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연주자의 저작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무척 당황했었다. 무지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창작자의 시간과 노력을 훔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당연히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인터넷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루에도 수 만 가지의 새로운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창작물과 생각을 훔쳐오고 있다. 인터넷이 여러 사람의 목인 하에 불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이에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절실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할 때 나의 권리도 존중 받을 수 있으며 영원히 새로운 창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은 영혼을 훔치는 것이며 영혼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일 수 있다!

이기주의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거 하지마라, 돈 못 벌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

저작권. 창작자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한. 산업인격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게임, 디자인, tv프로그램이나 영화에 관한 저작권이다.

우리나라에는 음악가나 화가, 소설가와 같이 예술적 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부모님에 의해,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꿈이 밝히는 일이 발생한다. 이유는 바로 “돈벌이가 안돼서” 라는 이유이다. 처음의 대화는 “음악가” 라는 직업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때문에 예술을 생으로 하는 직업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 자리 잡은 것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저작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 그 자체에 대한 권리와 소중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저작권에 대한 침해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와 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수 없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례로 음악과 소프트웨어(게임, 운영체제, 유틸리티 등), TV프로그램, 영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음악과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음악의 경우를 살펴보자.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포털사이트 BLOG의 음악에서부터 웹하드, 웹하드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나 아티스트에 대한 전곡 앨범을 게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음악을 유통하는 음악 사이트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을 예로 들어보자. 기사에 의하면 “강남스타일” 은 국내 다운로드 286만 건, 스트리밍 2732만 건을 기록했지만 국내 저작권료 수입은 3600만원에 불과하고, 음원의 최저 가격은 63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반면 외국의 경우 미국은 곡당 다운로드 최저 가격은 791원, 캐나다 804원, 영국 1064원

이라고 한다. 음원의 가격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저작권 침해, 혹은 적은 저작권료에 의한 무분별한 음원의 유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경우로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게임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의하면 외국계 게임회사들이 우리나라로 PC게임(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나 패키지시리즈)의 수출을 꺼려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게임 구매에 의한 개발자의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품을 사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고, 왜 비웃음거리가 될까. 정품구매자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기에,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품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는 정품구매자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바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불법다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다운이 만연하는 우리나라이기에 게임업계가 PC게임을 수출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나라 PC 게임시장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임 이외에 또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우리나라에 일파만파(一波萬波)퍼지고 있다. 바로 M사의 운영체제 Windows NT(NT를 기반으로 하는 Windows Xp, Seven, vista, 8)시리즈와 A사의 CS Master(Photoshop, Premiere 등을 포함하는)시리즈이다.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기업이나 학교를 제외한 개인 사용자들 중에서 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저 프로그램들은 정품을 사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악과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이미 많은 저작권 침해를 볼 수 있다. 그 외에 tv프로그램, 영화 등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한으로써 매우 귀중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거나 가져가려 하면 덜컥 화를 내곤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작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배포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것은 안 되고, 남의 것은 된다.”라는 식으로.

지켜야할 우리의 자산

나는 OO고등학교 2학년. 2013년 1학기는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는 수업이 많았다. 특히, 진로 교과목 선생님께서 도서관 활용수업 신청을 많이 해 두셨기 때문이다.

4월 둘째 주는 도서관주간이었다. 진로수업은 15일이었는데, 그날 도서관에는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실’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때문에 우리 반은 처음엔 원하지 않았지만, 진로수업의 일환으로 저작권 강의를 듣게 되었다. 저작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지루할 것 같아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강의를 해 주신 나이가 어려보이는 예쁜 여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누듯이 들려주신 저작권 내용은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 생각 없이 행했던 패러디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게 되면 가수가 얼마의 돈을 벌게 되는지 등과 같은 일상에서 실제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쉽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 저작권 문제(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흥미를 끌었다.

한미 FTA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저작권 법안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은 저작권자가 죽은 뒤 저작권을 인정하는 년 수를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와 같은 디즈니사의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사용료 등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약 10조 엔에 달한다.(참조: 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기사) 만약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권자가 죽고 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꾼다면 미국은 연간 10,000억 달러 이상을 20년을 더 벌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죽은 후 70년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특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그에 관련된 이익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 특허 실패로 뽑히는 MP3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MP3의 원천 기술은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가 세계최초로 발명했다. 그러나 특허소송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던 디지털캐스트는 다른 국내기업들의 특허 무효소송을 잘 대처하지 못해 그에 대한 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특허료를 내지 못해서 결국 국내 특허는

사라져 버렸다. 한편 MP3에 대한 해외특허는 미국의 특허괴물인 Texas mp3 Technologies가 모두 매입해 버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MP3기술에 대한 특허를 세계 최초로 확보했지만 특허 전략이 없어서 오히려 특허료를 지급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만약 우리가 MP3에 대한 특허를 지켜냈더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이 약 3조 1,500억 원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새롭고 유용한 기술을 발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제 2의 MP3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특허에 대한 올바른 공부와 관심을 가지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과 국민에 대한 특허 교육과 전략 개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의 꿈은 방송국PD가 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PD가 되면, 나는 저작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써서 나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